자기를 바로 봅시다

금주의 법구

내가 자신을 이기는 일은
남을 이기는 일보다 뛰어난 것.
그러니 자신을 억제하고
절제하는 사람이 되자.
-법구경-

현대불교

THE HYUNDAE BULKYO

대표전화 02-737-8881 구독문의 02-737-0090 www.buddhanews.com

불기 2544년(서기 2000년) 6월 21일 수요일(주간) 제275호

佛事 전념 30年
불교미술전시관
02)733-4800 · http://www.Buddha.co.kr 신흥사 청동대불

현대불교 연중캠페인



인터넷 이용자가 1천5백만명을 돌파했다. 각 사이트들마다 회원 몇십만명 돌파, 접속자 수 몇백만명 돌파를 들고 나서며 눈길 끌기에 여념이 없다. 인터넷 보급 속도가 상대적으로 빠른 것은 사실이지만 이를 낙관적으로만 볼 수는 없다. 인터넷 이용자 수에 대한 통계가 부정확하며

인터넷시대 막차라도 타자
사이버 불국토 만들자

상당한 거품이 있을 수 있다. 전세계적으로 표준화된 인터넷 이용자의 정확한 정의나 측정 방법론이 정립되어 있지 않은데 일차적인 원인이 있으나, 인터넷 접속 서비스 업체간의 가입자 수 경쟁 등 관련 사업의 이해관계로 실제보다 다소 부풀려진 측면이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인터넷 사이트 운영자들은 회원 수보다는 각 회원당 방문횟수를 늘리기 위한 작전에 몰두하고 있다. 즉 손님보다는 단골고객을 찾고자 하는 것이다. 단골손님으로 끌어들여야 지속적인 매출과 연관시킬 수 있기 때문이다. 일례로 삼성전자 사이트에서는 컴퓨터 오디오 합체형 모델 아지트를 출시하고 삼성전자 사이트에서 아지트 사진 조각을 모아 사진을 완성하면 추첨해 선물을 주는 이벤트를 벌였다. 이를 위해 접속자들이 사이트 곳곳을 서핑해야 하는 것은 기본이다.

질 좋은 서비스 제공
단골네티즌 확보

현재 인터넷 이용자의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학생과 직장인들은 인터넷을 주로 직장이나 학교에서 무료로 이용하는 사용자들이다. 별다른 비용 지출 없이 인터넷 이용이 가능한 이들이 초기 인터넷 이용자 확대에 기여했다. 만약 이들에 대한 인터넷 보급이 끝난 시점에서도 인터넷 이용 비용이 낮아지지 않는다면, 상당기간 인터넷 이용자수가 정체될 가능성이 크다. 그렇게 된다면 일정한 사용자를 놓고 각 사이트들간에 경쟁은 더 치열해질 수밖에 없다.

불교계에서도 쇼핑몰 등의 운영자들은 단골손님을 확보하고 좀더 질 좋은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어야 한다. 또 현재의 상황에서 인터넷을 가장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지와 같은 보다 근본적인 질문을 해결해야 한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불자님들이 내시는 구독료
'불국토'로 가꾸는 밑거름

▶편리한 자동이체를 이용하십시오.
▶자동이체 문의 전화 (02)737-0090

"휴전선에 위령탑·통일원찰 건립
상처치유 불교앞장"

정상회담 성공 회향…종교 교류 활성 예상

영통사·신계사 공동복원 가능성 커져

남북의 화해·협력·교류의 시대가 활짝 열렸다.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명한 '6·15 남북공동선언문' 4항에서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스님과 목사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보고 가서 불공도 하고, 기도하는 것이 좋지 않느냐"고 말했다고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이 16일 밝힘에 따라 남북 불교교류 또한 이전보다 더욱 폭넓고 깊이있게 결쳐질 것으로 보인다.

이런 가운데 전쟁과 분단으로 인한 상처를 씻어내는 데 불교가 앞장서야 한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김용운 한양대 명예교수는 "과거 전쟁으로 희생된 영령들을 위로하는 천도재를 남북 불교도가 함께 휴전선에서 봉행할 것을 제안한다"며 "나쁜 인연을 씻어내고 새 인연을 만드는 일에 불교인들이 기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분단의 상징인 휴전선을 화해와 상생의 발원지로 만들기 위해 위령탑과 통일원찰을 건립해 희생영령을 모시자는 제안도 나오고 있다. 일본의 재일본한민족불교도총연합회와 조총련계인 조선불교협회는 2차대전 희생자 유골을 한반도에 안치하는 사업을 공동으로 추진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교류 분야의 다양화도 과제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도각스님은 "이후 당국간 협력이 확대되면서 인도적 지원에 중점을 두어온 민간교류의 비중이 줄어들 것으로 전망된다"며 "보건·복지 등으로 불교교류 분야를 넓혀야 한다"고 말했다.

정성운 기자

관련기사 2·3·7·8면

또 조불련의 위상을 강화시키는 동시에 북한의 유물총국, 아·태평화위원회 등과의 접촉도 진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남북정상회담이 성공적으로 회향됨에 따라 남북불교 8·15 합동법회, 영통사 신계사 공동복원, DMZ 내 폐사지 공동조사 등의 가능성도 높아졌다. 진각종 방북단은 7월초 평양을 방문, 남북불교 학술세미나 개최 등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를 진행한다는 계획이다. 민족공동체추진본부도 8·15 남북합동법회 개최를 논의하기 위해 조불련과의 만남을 계획하고 있다.

정성운 기자

"남북공동선언 환영"
종단·단체 잇달아 논평

6·15 남북공동선언문 발표와 관련, 조계종과 태고종 천태종 진각종 등 주요 종단과 통일정진불교연대, 전국불교운동연합, 실천승가회, 불교장기수후원회 등 불교단체들은 일제히 논평을 발표하고 "우리 민족의 새로운 역사를 기록하는 기념비적 사건"이라며 환영했다.

조계·태고·천태·진각종은 논평에서 "남북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나가기로 한 것에 지지를 보내며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후속조치들이 이어지고 이번 선언이 남북 불교문화의 교류 활성화로 이어지기를 희망하며, 민족이 하나 되는 결실로 회향되기를 기원드린다"고 밝혔다.

통일정진불교연대는 "들뜬 분위기 속에서 지킷 놓치기 쉬운 북한식량난으로 인한 북한 민중의 피해와 탈북난민들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지켜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성운 기자



'6·15 남북공동선언'에 서명한 직후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맞잡은 손을 들어 올려 한민족의 상생시대가 활짝 열렸음을 알렸다. 평양=청와대 사진기자단

한민족 相生

"공원입장료 인상 반대"
조계종 관람료위원회

조계종은 관람료위원회와 관람료사찰 주지 연석회의를 13일 불교회관에서 열고 국립공원관리공단이 협조 요청한 공원입장료 인상에 대해 원칙적으로 반대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연석회의에서는 국립공원 입장료를 폐지하는 것이 종단의 기본 입장임을 재확인하고, 따라서 공원공단에서 공원입장료를 인상하는 것을 원칙적으로 반대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공원공단에서 공원입장료 인상을 강행할 경우 문화재관람료도 동일 비율로 인상하기로 했다.

공원공단은 10일 현재 1000원인 공원입장료를 1300원으로 인상하는 것이 불가피하다며 공원입장료 조정에 조계종의 협조를 요청했다.

연석회의에서는 또 관람료위원회 위원장에 지명스님(법주사 주지)을 선출했으며, 참여연대의 문화재관람료 반환소송에 대해서는 전체 관람료 사찰이 합심하여 소송에 대응하기로 했다.

정성운 기자

제3회 '부다피아 어린이캠프'

자연과 함께 부처님과 함께

7월 20~22일
에버랜드·용주사

현대불교신문은 불교 알림이의 주인공이 될 새싹불자를 키우기 위해 제 3회 부다피아 어린이 여름캠프를 엽니다. 2교구 본사 용주사와 에버랜드의 자연 속에서 공동체 생활을 익히면서 건강하고 맑은 신심을 길러주게 될 부다피아 캠프는 어린이들에게 유익하고 즐거운 시간이 될 것입니다. 여름방학을 이용해 불교문화를 체험하고, 에버랜드 통나무집에서 생활하며 생명의 소중함을 피부로 느끼는 등 멋지고 신나는 부다피아 캠프에 많은 어린이들의 동참을 바랍니다.

◇일 정 : 2000년 7월20일(목)~22일(토)
2박3일(사찰 1박, 에버랜드 통나무집 1박)
◇장 소 : 용주사, 목아박물관, 에버랜드
◇대 상 : 초등학교 1~6학년(선착순 250명)
◇참 가 비 : 6만원
◇문 의 : 전화 080-717-0114, 011-317-2555
◇은행계좌 : 농협 100030-52-039999 (예금주 : 이성훈)

•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 • 주관 : 선재이벤트
• 후원 : 조계종 포교원·진각종 통리원·조계사·한마음선원·봉은사·삼보사·보덕학회·(사)한국불교교화복지선도회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생명관 6면

6·25 50주년 특집 전화속 사찰지킨 호법신장 14면

동화로 만나는 푸른 자연의 친구들

창비아동문고 166
풀꽃과 친구가 되었어요
이상권 생태 동화집/정수영 그림
모든 풀꽃에는 다 이름이 있어요. 애기똥풀, 씀바귀, 제비꿀…… 어떻게 이런 재미있는 이름을 갖게 되었는지, 풀꽃들과 무엇을 하고 노는지 궁금하지 않나요?
값 6,000원

창비아동문고 161
하늘로 날아간 집오리
이상권 생태 동화집/장양선 그림
물귀신 소동을 일으킨 수달, 고양이 잡을 먹고 지란 다람쥐, 청둥오리와 결혼한 집오리 등 흥미롭고 감동적인 우리 나라 야생 동물 이야기가 한가득 펼쳐집니다.
값 6,000원
● 어린이도서연구회 선정 과학의 달 추천도서
● 중앙일보 선정 '98 좋은 책 100선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

완역
창비아동문고 164 · 165
삐노끼오의 모험 1, 2
까를로 골로디 지음/이현경 옮김
말썽꾸러기 삐노끼오에게 어떤 일들이 일어날까요?
인형극을 보러 갔다가 땔감이 될 뻔하고, 노는 것만 좋아하다 당나귀로 변하고, 상어 뱃속에 갇히기까지 하는 삐노끼오. 우리 친구 삐노끼오가 들려주는 모험의 세계에 귀 기울여 보세요.
●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선정 청소년권장도서(아동부문)
값 각권 6,000원

(주)창작과비평사 전화 718-0541~4 팩스 713-2403 인터넷 홈페이지 www.changbi.com

"달라이 라마 11월 중순 방한"
방한준비위 인도 다람살라서 초청장 직접 전달

티베트의 정신적 지도자 달라이 라마가 11월 중순 방한할 것으로 보인다.

달라이 라마는 14일 인도 다람살라 티베트망명정부를 방문한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이하 방한준비위)'로부터 초청장을 받는 자리에서 "하루빨리 한국을 방문하고 싶다"고 밝혔다. <달라이 라마 인터뷰 4면>

달라이 라마는 방한준비위 방문단(단장 여연)의 예방을 받고 "남북한 정상회담을 계기로 평화통일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한다"면서 "남북한 정상들이 인내와 결단력, 전체적인 안목에서 대화를 지속한다면 평화통일이 이루어질 것으로 믿는다"고 덧붙였다. 달라이 라마의 방한은 서울 아셈 2000 회의가 끝나는 11월 중순(16~20일경) 성사될 전망이며 불교계는 물론 종교, 시민 단체의 공동행사로 개최될 것으로 보인다.

초청장은 가톨릭의 김수환 추기경, 불교계의 일면 조계종 교육원장·정련 포교원장·법등 종회의장 스님, 개신교의 강원룡·김동완 목사, 원불교의 조정근 교정원장, 유교의 최창규 성균관장, 천도교의 김광욱 교령, 감중배 참여연대 공동대표 등 종교·시민단체 대표들의 공동명의로 되어 있다.

인도 다람살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
범불교연대 29일 창립

생태·문화적 가치 대사회 홍보등 추진

'지리산댐 건설계획은 낙동강에 대한 포기이며, 지리산이 갖고 있는 생태적, 사회역사적, 문화적, 민족통합적 가치를 파괴하는 정책이다'

지리산댐 건설 백지화를 주장하는 교계의 반대운동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출·재가 단체로 구성되는 '지리산댐 범불교대책위'가 29일 출범하는 것을 비롯하여, 댐건설 예정지인 남원 함양 산청 지역에서도 20일 3개군 불교연대가 창립한다.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와 전국의 본·말사주지들도 지리산댐 건설반대 성명을 내고 있다.

지리산댐 백지화 추진 범불교대책준비위(위원장 수경스님)는 14일 한마음선원 봉은사 해인사 능인선원 등 주요 사찰과 조계종총무원 대한불교청년회 경불련 불교환경교육원 등 30여 단체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1차회의를 갖고 29일 오후 3시 조계종총무원 1층 불교회관에서 범불교대책위 창립식을 갖기로 했다.

준비위는 이날 회의에서 사부대중이 참여하는 여법한 대책위 구성을 토대로 불교단체간 활동뿐 아니라 대 사회적 연대활동도 다양하게 펼치기로 했다. 회의에서 논의된 범불교연대 정관 및 기구, 사업계획안을 2차 회의가 열리는 23일까지 확정키로 했다.

준비위는 또 15일 지리산댐 건설의 부당함을 알리는 소식지 1만부를 발간, 전국사찰 및 주요기관, 지리산 일대 지역주민들에 배포하는 등 홍보에 주력한다.

이와 함께 지리산을 생활권으로 하는 지리산 살리기 댐건설 백지화 3개군 불교연대준비위원회(준비위원장 성후)도 14일 1차 준비회의를 갖고, 20일 오후 7시30분 함양읍 위성초교에서 지리산댐 댐백지화 함양·산청·남원 불교연대 출범식을 갖기로 했다. 또 지리산 일대 3개군 54개 사찰에 지리산댐 건설반대 현수막을 걸기로 결의했다.

5백여명의 사부대중이 참석할 예정인 이날 출범식에서는 '생명살림과 지리산'을 주제로 한 성수스님(조계종 원로회의 의원)의 법문과 지리산댐 건설반대 규탄, 결의문 채택이 이어질 계획이다.

이에 앞서 조계종 교구본사주지회의는 13일 불교계의 지리산댐 건설반대 입장을 담은 결의서를 정부에 전달했다.

교구본사 주지들은 결의서에서 "댐을 건설하여 영남지역 식수문제를 해결하겠다는 낙동강 물관리 방안은 낙동강의 수질개선을 포기함으로써 결국은 낙동강과 지리산을 동시에 파괴하는 결과를 낳게 될 것이다"고 지적했다.

한편 지리산댐 낙동강 물이용 조사단은 8월말까지 2차 조사를 진행하며, 최종 결론보고서는 12월말 발표된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조계종단이 커다란 난관에 봉착했을 때마다 수행자리를 떨치고 일어나 바른 길을 제시해 주었던 진공당 탄성대종사 영결식이 12일 법주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거행됐다. 사진=고영배 기자

"미혹한 중생 이끌어 주소서"

탄성스님 영결다비식…1만여 대중 애도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진공당 탄성 대종사의 영결식이 12일 법주사에서 1만여 사부대중이 운집한 가운데 원로회의장으로 거행됐다.

5번의 타종으로 시작된 영결식은 창혼과 행장소개, 육성법문 청취, 영결사와 법어, 조사, 헌화 및 헌향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이날 영결식에서 조계종 종정 혜암스님은 송광사 방장 보성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인천의 안목이시던 소요객이 종단불사로 일도 많으셨다. 그러나 우리 가풍은 본래 일이 없건만 봄이 오니 여전히 풀은 푸르도다"고 설했다.

원로회의 부의장 종산스님은 "영결사를 통해 사바에 다시 오셔서 미혹한 중생들을 바르게 이끌어 달라"고 말했다.

총무원장 정대스님은 조사에서 "스님이 계셨기에 종단이 수행과 교화라는 본연의 역할을 놓치지 않고 정신적 귀의처로 자리잡을 수 있었다"며 애도의 뜻을 표했다. 종회의장 법등스님, 이인제 민주당 상임고문, 박지원 문화관광부장관, 이원종 충북도지사, 송석구 동국대총장도 조사를 통해 "스님의 유지를 받들어 실천하겠다"고 다짐했다.

영결식후 사부대중이 나무아미타불을 염송하는 가운데 다비의식이 거행됐다.

한편 장의위원회는 13일 "스님의 유골에서 상당량의 사리가 나왔으나 덕숭문중의 가풍상 사리를 일반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관례"라고 설명했다. 탄성스님의 유골은 공림사로 옮겨져 안치됐다. 탄성스님 1재는 14일 공림사에 봉행됐으며, 2~7재는 법주사에서 봉행한다.

정성운 기자

남북공동선언문

1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 문제를 그 주인인 우리 민족끼리 서로 힘을 합쳐 자주적으로 해결해 나가기로 하였다.

2 남과 북은 나라의 통일을 위한 남측의 연합제 안과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안이 서로 공통성이 있다고 인정하고 앞으로 이 방향에서 통일을 지향시켜 나가기로 하였다.

3 남과 북은 올해 8·15에 즈음하여 흩어진 가족, 친척 방문단을 교환하며 비전향 장기수 문제를 해결하는 등 인도적 문제를 조속히 풀어 나가기로 하였다.

4 남과 북은 경제협력을 통하여 민족경제를 균형적으로 발전시키고 사회, 문화, 체육, 보건, 환경 등 제반 분야의 협력과 교류를 활성화하여 서로의 신뢰를 다져 나가기로 하였다.

5 남과 북은 이상과 같은 합의사항을 조속히 실천에 옮기기 위하여 빠른 시일 안에 당국 사이의 대화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2000년 6월15일

대한민국 대통령 김대중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장 김정일

동국대 훼불 진상조사단 구성

조계종 종립학교위, 이사·감사 후보 추천도

조계종 종립학교관리위원회는 15일 종회사무처 회의실에서 26차 회의를 열고 동국대 훼불진상조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이날 동국대 석림회 회장 도은스님으로부터 훼불사건에 대한 설명을 듣고 종립학교 발전 연구소위원회와 종립학교관리위원장 간사 등 7인으로 조사단을 구성, 훼불진상조사를 벌이는 한편 송재운 법인사무처장의 자료제출 거부 발언을 진상조사 후 책임자 문책도 촉구한다는 방침이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또 동국학원 이사 및 감사 후보를 선정하고 중앙종회에 추천등의를 요청키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이사 후보에 영배스님(중앙종회 사무처장)과 종림스님(종회의원), 감사 후보에 향적스님(종회의원) 무관스님(계단위원) 지명스님(법주사 주지) 지홍스님(조계사 주지)을 각각 선정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동국학원에 재무제표, 교직원 종교현황 등의 자료를 23일까지 제출토록 재촉구하기로 하고, 자료제출거부시 종법에 따른 의법조치도 검토키로 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이날 위원장에 학담스님, 부위원장에 정념스님, 간사에 정안스님을 선임했다. 종립학교관리위는 또 별도 성명서를 통해 "동국대는 종립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비판에 직면했다"고 지적하고 "종립학교관리위는 종헌·종법에 의해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철저히 행해 동국대를 정상화시키고 발전시키기 위한 사명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성운 기자

훼불이후 동국대 내홍
교직원 종교공개 등 학교측-석림회 신경전

성상 훼불 사건으로 시작한 동국대 내홍은 학교 당국의 '석림회 요구 사항에 대한 답변'으로 진정국면으로 들어섰지만, '교직원 종교성 공개 및 인사 반영'에 대한 양측의 신경전은 장기화될 조짐이다.

12일 석림회에 전달된 답변서에 따르면, 동국대는 △불교대학·대학원 명진관 이전 △수계자에 한해 보직 임명 △교직원 신행 평가 강화 △ 불교대학 특별전형 확대 및 전과 불허 △훼불 사건 자료 정리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문책과 △학칙에 건학이념 수호조항 삽입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그러나 석림회는 "중요 보직 인사들의 종교성 공개와 인사 반영 부분에 대한 대책이 구체적이지 못해 유감이다"며 "두 가지가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요구할 것"이라고 말해, '교직원 종교성 공개'와 '인사 반영'은 여전히 감정의 골로 남게 됐다.

오종욱 기자

"포교매체다운 프로그램 강화"

불교방송 김규칠사장



四肢"라디오 포교 매체로서 특화된 상품을 내놓지 않는다면 뉴미디어 경쟁시대에서 결코 살아남을 수 없습니다. 재임기간동안 '불교방송의 위상 정립'을 화두로 전파 포교의 소명을 다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13일 불교방송 3층 대법당에서 취임식을 가진 김규칠사장〈사진〉은 취임사를 통해 야심찬 새 각오를 밝혔다.

대학시절 강남 명성암에 수도원을 열고 하루에 3천배를 1주일간 했을 정도로 신심이 돈독한 김사장은 하반기 광고시장의 변화와 디지털 방송시대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당분간 긴축운영을 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라디오 매체는 진행자가 보이지 않는 무(無)의 상태에서 출발해 단순히 음성에만 의존하기 때문에 정적인 불교의 사상을 포교하기에는 영상 매체보다 장점이 많다고 생각합니다. 매체의 특성만 잘 살린다면 불교방송은 충분히 발전 가능성이 높습니다."

68년 직지사에서 고암스님으로부터 '덕원'(德圓)이란 법명을 받은 김사장은 대학시절부터 〈수심결〉〈금강경〉〈원각경〉 등 경전에 심취하기 시작했으며, 성철·경봉 스님 등 고승대덕을 찾아 산사를 순례했다고.

"외무부와 언론계 등 직장을 여러번 바꿨지만 항상 머릿속에는 대학시절 입문했던 불교일을 해야겠다 생각했었습니다. 불교포교 발전에 한몫을 다하겠습니다."

김주일 기자

'이타행 실천' 공동선언문 채택

한일 불교문화 교류대회

한일 양국 불교지도자 4백여명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을 기원하는 '공동선언'을 채택했다.

13일 일본의 도쿄 천초사에서 열린 제21회 한일불교문화교류 천초사 대회에서 참석자들은 공동선언을 통해 "남북정상회담의 성공과 계속 발전을 마음으로 기원하는 동시에 정치·경제뿐 아니라 민중의 융화에 '이타행'의 불교정신을 살리도록 노력하자"고 다짐했다.

또 2002년 월드컵 공동개최를 계기로 "참다운 상호간의 국민감정의 이해를 더해 가고, 한·중·일 3국 불교의 황금유대 정신에 입각하여 연대 활동에 더욱 힘쓰자"고 선언했다.

12일 도쿄뷰호텔에서의 환영만찬회로부터 시작된 이번 대회는 이날 오전 천초사 대본당에서의 평화기원법요식, 오중탑원 강당에서의 '일본의 관음신앙'(시오이리료죠), '한국의 관음신앙과 그 형태'(홍윤식 동국대 명예교수) 기조연설과 폐회식에서의 공동선언문 채택을 끝으로 모두 회향됐다.

정성운 기자

현 대 만 평 박구원



상상만 해도…

현대불교 불교의 생활화·현대화·세계화
회 장 : 노대행
발행·편집인 : 김광삼
논설고문 : 고 은
인 쇄 인 : 김규석
1994년 10월15일 창간
등록번호 : 다-3379
대표전화 02-737-8881
본지는 신문윤리강령 및 그 실천 요강을 준수한다
인터넷 日刊 현대불교 www.buddhanews.com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110-170
편집국 (02)722-4162 FAX (02)737-0698
광고국 (02)732-1522 FAX (02)737-0697
구독신청·배달안내 (02)737-0090
구독료 : 1개월 4천원 1년 4만원 영구 50만원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 구현과 종단의 관리감독 문제에 대한 종립학교관리위원회 입장

동국대학교는 1906년 불교계 선각자들의 발의와 전국의 많은 본사와 말사들의 재산출연에 의해 설립된 종단의 대표적 종립학교이다. 그 후 동국대학교는 약 100년의 역사가 흐르는 동안 불교이념에 입각하여 교육을 실시함으로써 국가의 인재를 길러냄은 물론 국내의 대학교육발달에 선도적 역할을 담당해 왔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동국대학교는 답보상태를 거듭하면서 학교발전에 있어 적신호가 켜진지 오래되었으며 심지어는 일부 신설 대학교에 비해서도 교육기관의 위상이 뒤떨어지고 있다는 일반적인 지적이 무성하게 되었다. 또한 최근에 동국대 교정내의 광장에 봉안된 부처님 성상을 손상한 충격적인 훼불사건에서부터 최근 7, 8년 이내의 기간 만도 동국대 교정내(서울, 경주캠퍼스)에서 각종 훼불사건과 반불교적 폭력행위가 난무하는데서 극명하게 드러나듯이 동국대학교는 이미 불교의 종립학교로서의 건학이념을 상실한 것이 아닌가 하는 종도들의 강력한 비판에 직면해 있다.

왜 이렇게 되었는가? 왜 한때 국내의 가장 유수한 대학 중의 하나였던 동국대학교가 건학이념도 상실하고 중하류 이하로 전락했다는 일부 대중들의 평가에 대해 항변 조차 제대로 못할 지경에 이르렀는가? 그 이유에 대해서는 많은 의견이 대두되고 있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학교의 설립자이자 주인인 종단과 재단이 동국대학교의 건학이념을 유지계승하면서 학교발전을 주도적으로 이끌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종단이 일차적으로 책임을 통감해야 할 일이지만 종단과 학교의 관계를 유기적으로 연계하면서 학교의 발전을 도모해야 하는 기본적인 임무를 망각하고 있는 재단과 학교당국이 가장 각성해야 할 것이다.

그동안 종단은 필요할 때마다 법인의 임직원 인사자료나 종립학교 발전대책을 수립하기 위한 제반 자료 요청을 해 왔는데 그때마다 종단 산하의 여타 종립학교 법인 사무처에서는 적극 협조를 해 왔으며, 심지어는 원불교나 이교도인 기독교나 천주교 산하의 법인에서조차 호의적으로 자료 협조를 했는데 동국학원 재단만 유일하게 종단의 요청을 거부해 왔다.

동국학원은 별도의 법인이기 때문에 종단과 독립되어 있어 자료요청에 응할 수 없다는 것이 재단 사무처의 답변이었다. 이는 동국학원의 탈종단화 선언에 다름 아니며 동국대를 종단과 무관하게 운영하겠다는 뜻으로 간주할 수 밖에 없는 일이다.

현재 종단은 슬프게도 동국학원의 재단 업무와 학교 운영실태에 대한 신뢰할 수 있는 어떠한 공식적인 자료도 학교나 재단으로부터 입수하지 못하고 있다. 재정실태나 주요 사업에 대해서도 모르고 있다. 동국대가 3류르 전락하고 있다는 항간의 이야기들에 대해서도 발만 동동 구르고 있을 뿐이다. 학교를 도와주고 싶어도 내용을 모르니 대책을 세울 수가 없다. 이 모든 것이 재단과 학교 측이 종단과 학교와의 관계를 단절한 결과이다. 그러나 종단의 발전이 동국대 발전에 기여할 수 있듯이 건학이념에 근거한 동국대의 발전이 있어야만 불교중흥을 기약할 수 있는 것이다.

이제 종단은 불교중흥을 위한 대작불사의 심정으로 동국대학교를 진흥시키는 일을 주요과제로 삼고자 한다. 더 이상 '종교와 학교가 분리되어야 한다'거나 법인의 독자성을 내세워 종단의 관리감독에 필요한 제반 요구를 거부하는 법인의 임직원들을 더 이상 용납하지 않으려 한다.

이에 본 위원회는 종헌종법에 의해 종립학교에 대한 관리감독 업무를 관장하도록 부여받은 권한과 임무를 철저히 이행하겠다는 다짐을 천명하면서 동국대학교를 정상화시키고 우수한 대학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종단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몇가지 입장을 밝힌다.

- 다 음 -

첫 째, 본 위원회는 동국학원 건학이념의 충실화와 동국학원의 발전을 위하여 진력할 것이며, 동국학원에서 조계종단의 지도성을 강화해 나갈 것이다.

둘 째, 본 위원회는 '소관 종립교육기관의 운영현황을 파악하여 년 1회 이상 중앙종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는 종단법에 규정한 의무를 다하기 위해 동국학원의 재단 사무처와 학교 당국에 재정이나 인사관련 등 필요한 자료 요청을 할 것이다.

셋 째, 지난 5월 23일자로 본 위원회가 재단 사무처에 '재무제표' 인사관련 자료 등을 제출해 줄 것을 요청한 것에 대해 사무처의 책임자가 종단을 무시하는 발언을 하면서 아직까지 자료제출을 하지 않는데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면서 관련자를 엄정 문책할 것을 재단 측에 강력히 요구할 것이다.

넷 째, 본 위원회는 동국대학교에 대한 적절한 관리감독과 발전방안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학교 구성원들과 종도들을 대상으로 동국대의 발전 방안과 개선할 점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 위한 창구를 개설할 것이다.

다섯째, 본 위원회는 종립학교 진흥에 필요한 대책을 수립하는데 필요한 세미나나 토론회 등을 정기종회 이전에 개최할 것이다.

여섯째, 본 위원회는 동국대의 재단과 학교당국이 건학이념 구현에 소홀하거나 학교운영에 있어 문제점을 노출한다면 이를 시정하는 일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불기 2544(2000)년 6월 15일

대 한 불 교 조 계 종 종 립 학 교 관 리 위 원 회

특별좌담

'6·15 선언' 이후 불교계 역할과 과제

민족 정서 공통분모 찾기 '불교에 열쇠'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6.15 남북공동선언'에 합의함으로써 한반도는 분단과 갈등을 넘어서 화합·상생의 시대를 맞이하고 있다. 현대불교신문은 조계종 민족공동체추진본부 사무처장 도각스님과 노귀남 새시대불교포럼 평화통일위원장, 조성렬 박사(정치학, 성균관대 정외과 강사)의 긴급좌담을 통해 이번 남북정상회담의 성과와 의미, 이후 남북불교교류를 전망했다.

진행 : 정성운 차장
6월 15일, 현대불교 사랑방



도각스님
민족공동체 추진본부 사무차장



노귀남
새시대 불교포럼 평화통일위원장



조성렬
성균관대 정외과 강사

조성렬 : 92년 남북기본합의서의 경우 실무자간 접촉을 통해 일을 진행시키는 구조였기 때문에 남북관계의 특수성상 정상들의 결단 없이는 남북기본합의서가 아무리 잘 만들어 졌어도 실제 이행하기 어려운 구조였다. 그러나 이번 정상회담의 경우 최고 정상간에 그리고 정부부처의 장관급, 각 사회, 종교, 문화, 경제 단체의 장 등 핵심자급들이 만났기 때문에 정상회담 이후에도 가동할 수 있는 민간차원의 다양한 채널을 확보했다.

앞으로는 그런 것들이 남북관계에서 다방면적인 교류협력의 중요한 통로가 될 것이다. 그런 뜻에서 이번 정상회담은 남북관계의 실질적인 변화로 볼 수 있다. 그러나 간과해서 안될 점은 이번 합의가 평화공존에 대한 합의지 통일에 대한 합의가 아니라는 점이다. 따라서 통일에 대한 실질적 합의에 이르기 위해서는 앞으로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

재통합은 역사의 흐름

도각 : 공동선언에서 국가체제를 구체적으로 언급한 점에 주목하고 싶다. 남측의 '연합제'와 북측의 '낮은 단계의 연방제' 통일안까지 얘기했다는 것은 이전보다 논의가 훨씬 진전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는 근거이다. 두 정상이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었다는 것은 통일국가의 체제를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가장 기본적인 논의의 단초를 연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번 남북 정상회담은 두 정상간 필요 때문이라기보다 민족 재통합이라는 거대한 역사의 흐름이 남북 정상을 만나게 했고, 거기서 미래지향적인 합의점을 찾아냈다고 생각한다. 지금 중요한 것은 지금의 합의를 잘 실천하고 관리하는 것이다. 더 중요한 것은 통일에 대한 자신감이다. 이번 합의는 단순히 정상간의 합의가 아니고 민족 전체에 의해 나온 합의다. 이 물줄기를 바꿀 수는 없을 것이다.

노귀남 : 또 하나 중요한 의의는, 이제부터 실질적으로 정부라는 보다 큰 틀에서 남북교류가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다시 말해 남북교류의 제도적 뒷받침을 마련했다는 데 회담의 성과가 있다.

통일과정에서 정치적인 부분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마음의 통일이다. 말하자면 사회 문화적 통합이다. 실질적인 통일과정은 바로 사회 문화적 통합인데, 체제문제에 발목이 잡히는 경우가 많다. 체제 문제를 논의했다는 것보다 사회·문화적 통일로 갈 수 있는 길을 텄다는 게 더 중요하다.

김정일 쇼크가 한국사회에 미치는 의미를 짚어볼 필요가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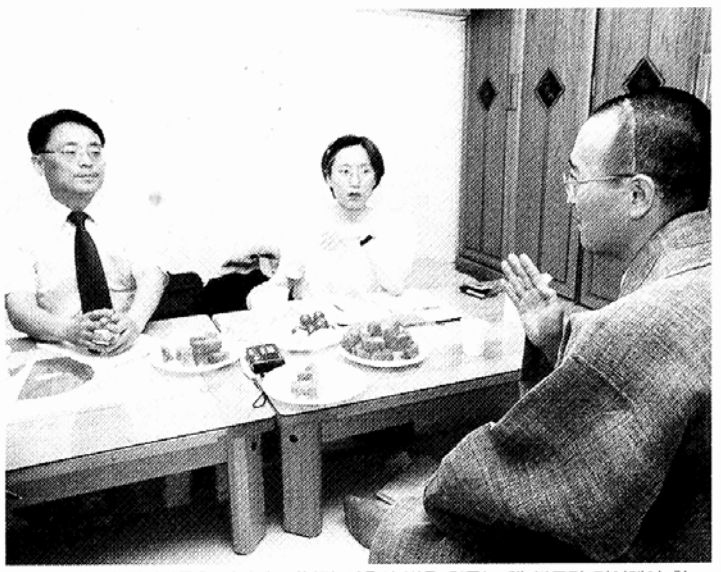
도각 : 가장 큰 쇼크라면 김정일의 활달한 모습이다. 그동안 우리가 냉전의식에 갇혀 북측에 대한 선입관이 강했다. 김정일 발언 가운데 공산주의자도 도덕이 있고 예의가 있다고 했다. 어쨌든 전체적인 인상이 레드콤플렉스를 벗었다는 것에서 오는 충격도 있지만 김정일 위원장이 기본적으로 가지는 인간적인 감정이 활달하고 화술에 있어서도 자신감이 인상적으로 받아들여진 것 같다.

노귀남 : 몇 대학에서 회담 기간 중 인공기를 걸었다고 하는데, 학생들이 깊이 생각지 못한 점이 있다. 그런 행동이 틀렸다기보다 그렇게 함으로써 파장되는 부정적인 측면이 뭔가를 깊이 생각하고 행동했어야 된다. 우리 사회는 지금 진보적인 사고를 요구하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수적이다. 그런 사람들까지 배려해 줘야 한다. 생각이 다른 사람을 배려해 줄 수 있어야 진정한 진보다. 섣부른 행동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조성렬 : 김정일 쇼크가 있었다면, 북한주민들은 김대중 쇼크를 받았을지도 모른다. 정상회담의 성과를 계속 지속시켜나가고 제도화시켜나가기 위해서는 김정일 쇼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가 매우 중요하다. 쇼크는 그동안 엄청난 벽이 있었기에 상징적으로 받는 것이다. 여기에 과민반응을 보이는 것은 기득권 세력에게 명분을 제공하는 것이다. 또 쇼크를 현실로 착각해서 대세로 인식하는 것도 문제가 있다. 김정일 쇼크를 어떻게 잘 관리해 갈 것인가는 정부뿐만 아니라 민간단체에게도 중요한 일이다.

도각 : 인공기 게양 사건은 그것을 바라보는 우리 마음의 문제이다. 그런 데서도 불교적 자세가 필요하다. 상대를 받아들이는 것이 나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나를 확장해 나가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바로 보살의 정신이고, 보살의 현신이다. 이런 식으로 우리 의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필요하다.

이제 남북관계는 적대적인 대결구도에서 민족의 공존·공생의 관계로 패러다임 자체가 바뀌는 상황에 이르렀다.



◇좌담회 참석자들은 남남간, 남북간 마음의 벽을 허무는 데 불교가 기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북 불교교류 창구 단일화 필요

'통일오계' 등 행동원칙 만들어야

상대 받아들이는 것은 '나의 확장'

대중적 참여 끌어내자

조성렬 : 다양한 불교통일단체들이 있는데 교류 논의가 본격화되면 공식적인 기구가 나설 수밖에 없다. 여러 단체의 활동을 부인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은 남북관계가 공식화 활성화되지 않았으니까 다양한 통로를 통해 교류할 수 있지만 남북관계가 성숙되면 불교의 대표성의 확보가 중요하다. 이 과정에서 여러 기구들의 경쟁이 소모적이 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통일에 대비한 연구작업은 두 가지 차원에서 진행되어야 한다. 하나는, 원효의 화쟁사상 같은 사상적 측면인데, 이는 통일을 바라보는 것이지 실천적인 면을 지시하지는 않는다. 대중적인 참여를 끌어내기 위한, 이를테면 '통일오계' 같은 행동원칙을 만들어야 한다.

도각 : 통일의 이념적 틀을 불교에서 제공해야 한다는 강박관념이 있는 것 같다. 큰 틀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자주평화 민족대단결의 원칙을 불교의 기본적인 덕목인 무소유, 비폭력, 인간의 주체의식으로 해석하는 접근이 필요하다. 자주를 일체중생 실유불성이라는 주체의식으로, 평화를 비폭력으로, 민족대단결을 화합으로 풀이할 수 있지 않은가. 휴전선에 있는 살상무기 철거운동 등도 불교의 비폭력사상으로 해결해 낼 수 있는 문제다.

노귀남 : 대북교류 공식 기구가 있었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종교의 정책차원, 창구역할에서가 아니라 민족의 역사를 어떻게 바라보고 종교적 차원에서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에 대한 해답을 찾는 의미에서 그렇다. 다양한 통일운동단체들이 만들어져야 하지만 동시에 이것을 정책적으로 총체적인 차원에서 바라볼 수 있는 창구가 필요하다. 주도권 차원의 창구 단일화를 말하는 것은 아니다. 각자의 독자성을 지키면서 동시에 힘이 결집될 수 있는 민주적 기구가 필요하다.

북한 조불련의 위상이 낮다고 해서 우리가 배제한다면 결국 북한의 창구가 아예 없어진다는 뜻이 된다. 그래서 북한 내의 조불련의 위상을 높여주어야 하는 정책적인 차원의 불교교류가 있어야 하고, 마음의 통일로 갈 수 있는 종교적인 차원의 만남의 장을 만들 수 있는 역할을 불교계에서 해야 한다.

도각 : 인도적 차원의 식량지원은 남북경제협력이 활발해지면 상대적으로 중요성이 떨어진다. 따라서 향후 보건·의료지원에도 눈을 돌려야 한다. 작은 단위에서라도 어떤 마을을 선정해서 의사를 데리고 들어갈 수 있다면 좋겠다. 낮은 단계에서 그 사람들이 필요로 하는 보건의 문제들도 접근할 수 있었으면 좋겠다.

조성열 : 학자의 이론은 열 명을, 정치가의 연설은 백 명을 감동시킨다면, 종교인의 설법은 천 명을 감동시킨다는 얘기가 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종교의 파급효과가 그만큼 크기 때문에 종교에 대해서는 상당 기간 규제할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불교에서는 문화재 복원, 학술교류 등 비종교적인 협력과 교류가 필요하다. 포교를 앞세우기보다는 민족동질성 회복의 차원에서 접근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불교의 통일운동을 공동선언에 나온 것처럼 환경, 문화, 보건 등으로 광의의 통일운동으로 넓혀야 한다.

교류 대상을 꼭 조선불교도연맹으로 고집할 필요는 없다. 사회과학원이나 아·태위원회와의 교류도 필요하다.

마음의 벽부터 없애야

노귀남 : 남남간, 남북간 마음의 벽을 어떻게 허물 것인가가 중요하다. 통일의 궁극은 민족문화론적인 사회통합이다. 예를 들어, 남북한의 춘향전을 비교해서 읽은 적이 있는데, 북한의 춘향전은 무슨 춘향전이냐고 할 정도로 계급적 요소가 들어가고 관소리적 요소도 완전히 배제되어 있다. 그러나 이본(異本)이 많듯, 그대로 인정해 주는 것이 우리 문화가 지닌 특성이다. 이질적인 것을 끌어들일 수 있는 것이 불교사상이다.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이 통일교육의 열기로 이어질 수 있다. 80년대 통일불교학당 같은 통일교육도 다시 생각해볼 수 있다. 물론 형태는 지금에 맞는 것이어야 한다. 소그룹 세미나의 활성화도 생각해 볼 수 있다. 앞에서 말씀한 실천덕목들을 교재로 만들 수도 있다.

도각 : 그동안 고착화된 남북교류에서 물꼬를 튼 것은 종교인이었다. 그러나 향후 남북 당국자, 제단체간 교류 등으로 다양화되면 종교는 본연의 자세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 통일과정에서 남북의 동질성 회복은 상당히 중요한 과제인데, 이런 점에서 불교의 역할이 새로운 과제로 우리에게 다가온다. 이것에 대한 방법을 세우고 대처해 나가야 한다. 불교는 체제나 이념의 이질성을 좁히는 역할을 해야 한다.

정리=김두식 기자 (doobi@buddhapia.com)

※ 지면사정으로 '선과 21세기' '목어' 쉽니다.

갈월사 영탑(靈搭)

수도권지역의 유일한 가족영탑(靈搭)

후손들을 편하게 하고 근본 이체에 순응하며
자신의 육신에 대한 애착을 놓아 버리기 위해 생전에 자신의 영탑을
미리 준비하는 것도 자신과 후손들을 위하여 바람직한 것입니다.

탑공원 설립의 의의

돌아가신 조상님들의 혼백을 자손과 모두 한마음안에 평안히 영생케하고자 하는 원리를 담고 갈월사영탑은 1999년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경내에 주지 홍인스님께서 조성하신 가족영탑 입니다.
묘지 문제로 몸살을 앓고 있는 현 매장제도를 개선할수 있는 최상의 모델로 향후 우리나라 장례문화에 획기적인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참다운 효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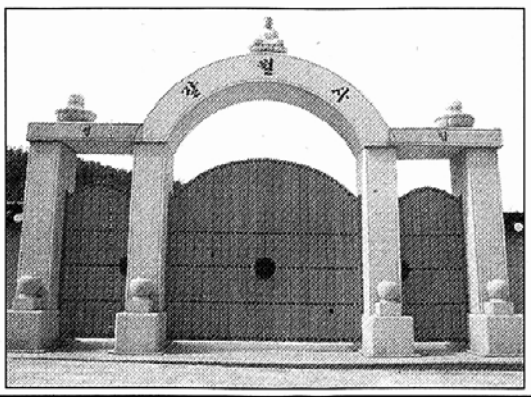
물질이 원소로 구성된 이 몸은 본래 영원한 참 생명이 잠시 입고 벗어 버리는 옷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면 썩어 들어가 결국 지수화풍사대로 화하여 소멸하고 마는 이 육신을 모시는 것은 참으로 허망하며 한낱 애착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조상의 참 생명을 인도하고 모시는 것이 참다운 효도이며 공덕임을 알아야 합니다.

탑은 영구히 사용합니다

영탑에는 조상분들을 화장하여 위패를 모시게 됩니다.
탑에는 3대까지 모시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4대를 모실때는 1대를 꺼내어 소(燒 - 절에서 처리)하고 2대부터 4대를 모십니다.
다음은 2대를 소하고 3대로부터 5대를 모시게 됩니다. 3대가 지나면 조상들은 이미 몸을 받기때문에 안모시는 것이 더 좋습니다.



▲ 조성된 영탑



▶정문

갈월사 영탑 조성지는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직접땅에서 출토된 미륵부처님의 도량에 사방이 우거진 웅장한 숲속에 평화롭게 안치될 영탑은
영탑1기에 16구의 영가를 안치해 5대까지 지속적으로 반복 사용할 수 있으며
영탑을 이용 하시는 모든 회원과 불자님에게는 영가를 모셔오는 **시다림의 초제부터 7.7제와 49제까지의 모든 제례행사**를
무료로 주관해드리는 특전을 드립니다.

영탑의 특징

- 탑 하나만 세우면 **가족 대대로 영구적**으로 사용 할 수 있습니다.
- 여기저기 흩어져있는 기존 묘지는 조상에 소홀하고 제사 지내기에 불편하나 탑안에 조상을 모두 모시기 때문에 소홀함이 없이 정성껏 모실 수 있습니다.
- 갈월사에서 **직접1년에 4회 합동천도제**를 올립니다.
- **내 조상과 똑같은 마음**으로 정성껏 관리합니다.
- **사통팔달한 교통망과 수도권에 위치**하고 있어 쉽게 오실수 있습니다.

접수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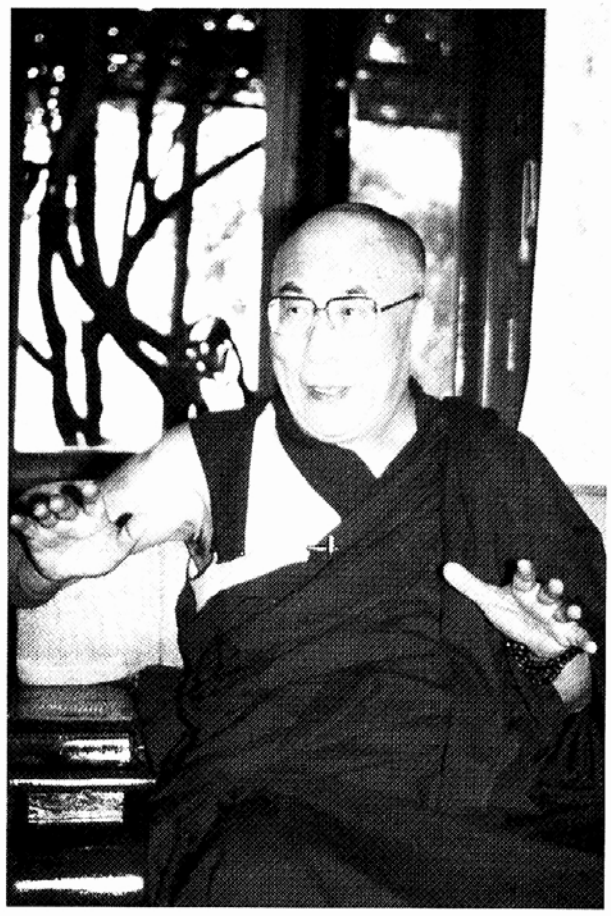
- ▶구비서류 : 본인의 주민등록 등본 1본
  화장증명서 1통(납골봉안시제출)
  호적등본 1통, 신청서 1통
- ▶자 격 : 본 갈월사영탑 관리규정에 동의하시는 분
- ▶관 리 비 : 매년 100,000원
- ▶문 의 : 0338)774-7374, 771-9577
  경기도 양평군 양평읍 창대3리 **갈월사**

·모시고 싶은곳, 자주자주 찾아뵙고 싶은곳 - 영원한 쉼터입니다. ·가신분을 위한 경건하고 엄숙한 안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모시는 분을위한 편안하고 쾌적한 휴식의 공간이 펼쳐집니다.

"영적 각성·종교화합이 나의 메시지"

인도 다람살라서 만난 달라이 라마

달라이 라마는 14일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원회'의 예방을 받은 자리에서 "부처님의 진리를 따른다는 점에서 티베트인과 한국불자들은 형제와 같다"면서 "한국민들이 하루빨리 통일을 이뤄 늘 행복과 원만한 성취가 있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티베트의 종교·정치 지도자인 달라이라마를 티베트 망명정부가 있는 인도 다람살라에서 친견, 그의 사상과 원력을 들어보았다.



한국불교 인류에 확산에 공헌 할 것
만족할 줄 알면 욕심·집착 절로 소멸
티베트 불교 평화로운 지구건설 기여

ㅡ달라이 라마께서는 한국불교의 장·단점과 미래를 어떻게 보시는지요.

▲한국은 위대한 대승불교의 전통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티베트처럼 많은 대승경전이 있으며, 비슷한 전통도 많아 비교·연구하고 싶습니다. 한국불자들은 종교적 신념을 받아들이는 태도가 매우 진지한 것 같습니다. 또 스님들은 마음의 평온을 잘 유지하고 타종교에 대해서도 관대해 대승불교다운 포용성을 갖고 있습니다. 과학자들은 불교를 종교가 아닌 '마음의 과학'이라고들 합니다. '일체유심조(一切唯心造)'를 강조하는 한국불교는 인류애의 확산과 전지구적인 환경보호에 많은 공헌을 할 것으로 기대합니다.

ㅡ남·북한 정상회담을 지켜본 소감과 두 정상에게 전하실 메시지가 있다면 말씀해 주십시오.

▲서로 상대방을 신뢰해야 합니다. 무력을 사용하면 부정적인 결과만을 낳는다는 사실을 직시하고 분쟁의 해결책은 오직 대화 뿐이란 걸 명심해야 할 것 입니다. 서로 마음의 문을 열고 한 발 나아가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남·북한의 두 지도자는 높은 경륜과 식견을 가진 만큼 잘 해 나갈 것입니다. 인내와 결단력, 전체적인 안목으로 대화를 지속하면 평화통일이 멀지 않을 것입니다. 한국은 분단 50년의 고통을 통해 충분히 인내했다고 생각합니다.

ㅡ티베트 불교의 특징과 인류의 당면과제에 대한 티베트 불교의 역할에 대해 말씀해 주십시오.

▲티베트 불교는 대·소승·탄트라 불교의 가르침을 모두 받아들였으며, 다양한 종교와 과학에도 관심을 기울여 왔습니다. 그리고 티베트 불교는 동·식물에게 까지 미치는 '자비심'과 이로 인한 '내적인 평화'를 가장 중요시 합니다. 티베트불교의 전통은 오늘날 비폭력과 평화공존, 생태보호, 인권운동 등을 통해 평화로운 지구공동체 건설에 기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ㅡ티베트의 종교·문화를 보존하기 위한 노력에는 어떤 것들이 있습니까?

▲먼저 전통적인 가치에 대한 인식을 갖도록 배려하고 있습니다. 박물관을 크게 짓는다고 전통문화가 보존되지 않습니다. 티베트인 모두가 전통에 대한 자발적인 인식을 토대로 스스로 공부하면서 또다른 전통을 세워 나가고 있습니다.

ㅡ인터넷 사이버세계와 불교세계관의 연관성은 무엇일까요?

▲잘 모릅니다(I don't know). 하지만 중중무진(重重無盡)의 인드라망처럼 인터넷은 세계 시민의 의식과 상호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합니다. 한 생각에 시·공을 초월해 모든 이들과 동시에 의사소통이 가능하다는 점에서 불교와 인터넷은 유사성을 갖고 상호 도움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

ㅡ재가불자들이 일상생활에서 무지와 집착을 없앨 수 있는 방법에 대해 가르침을 주십시오.

▲세상의 인연에 의존해서 존재를 보지 말고, 개별적으로 궁극적인 본질에 대해 관(觀)하는 '지혜의 수행'을 하면 무지를 제거할 수 있습니다. 집착을 없애기 위해서는 자족(自足)하는 수행을 해야 합니다. 그러면 탐·진·치 3독이 점차 줄어들어 온갖 욕심과 집착이 저절로 소멸됩니다.

ㅡ한국 방문시 하고 싶은 일과 만나고 싶은 사람, 가고 싶은 곳이 있으시다면….

▲나의 외국방문은 언제나 비정치적인 영(靈)적 방문입니다. 인간의 정신적 가치를 증진시키고 종교적 화합을 이루는 것이 목적입니다. 나는 주로 불교학자와 일반학자, 학생, 시민들을 만나 이같은 뜻을 전합니다. 물론 한국의 정치지도자가 원한다면 언제든 만날 용의가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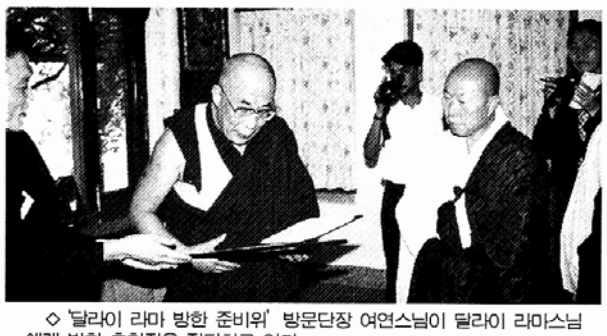
ㅡ스님께서는 전 세계를 무대로 정력적인 전법활동에 나서고 계십니다. 건강비결과 하루 일과를 소개해 주십시오.

▲건강비결은 별게 없습니다. 공양 잘하고 잠 잘자고 긍정적인 사고로 마음의 평화를 유지하는 것 뿐입니다. 하루 일과는 새벽 3시에 일어나 오후 8시30분에 끝나며, 오후불식합니다. 방문객을 접견하는 것 외에는 명상·독서로 시간을 보냅니다. 요즘은 〈불교 인식론〉이란 책을 읽고 있습니다.

ㅡ한국 불자들에게 당부하실 말씀은.

▲제게 한국은 늘 형제의 나라로 여겨집니다. 한국 불자들이 티베트의 고통스런 현실에 대해 관심과 걱정을 하고 계신데 대해 무한한 감사와 기쁨의 마음을 전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한국의 불자들에게 우리의 삶은 매우 소중하기에 의미있고, 창조적으로 살라고 말씀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항상 자비심에 바탕을 둔 선한 마음을 일으키라고 당부드립니다. 모두 행복하시고 성불하시기 바랍니다.

인도 다람살라=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 '달라이 라마 방한 준비위' 방문단장 여연스님이 달라이 라마스님에게 방한 초청장을 전달하고 있다.

티베트 '살아있는 부처'…독립운동 주도

달라이 라마는 누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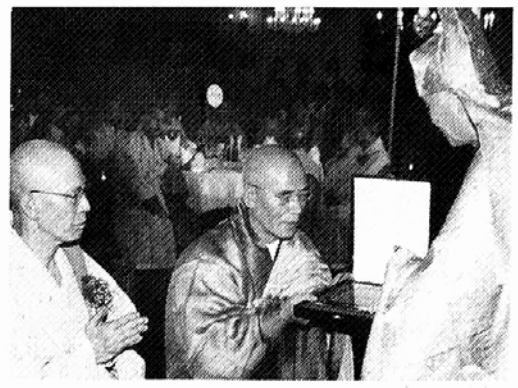
달라이 라마는 티베트어로 '지혜의 큰바다' 또는 '큰 지혜를 가진 스승'이란 의미로 티베트인에게는 종교적으로는 살아있는 부처로 숭앙받는 절대적인 신앙의 대상이며, 동시에 정치적으로는 최고 정책결정권을 갖는 국가 통치자이다.

현재 인도 다람살라에서 티베트 망명정부를 이끌고 있는 달라이 라마는 제14대로 본명은 텐진 갸초, 1935년 7월6일 티베트의 동북부지역인 타크처라는 작은 마을에서 가난한 농부의 아들로 태어났다.

티베트인들은 달라이 라마가 죽으면 '환생'을 한다고 믿는 불교전통이 있으며 이런 전통에 따라 텐진 갸초는 두살때 제13대 달라이 라마인 툽텐 갸초의 환생자로 인정받아 '왕위계승' 교육을 받다 40년 정식으로 14대 달라이 라마로 즉위했다. 이후 공산화된 중국이 1950년 티베트를 침략해 합병을 하자 달라이 라마는 국토와 고유문화 및 종교를 지키기 위해 고군분투했으나 59년 발생한 티베트 국민의 민중봉기에 대해 중국이 무자비하게 탄압하자 인도로 정치적 망명을 했다.

그는 고국 티베트와 제일 가까운 다람살라에 망명정부를 세워 밀려드는 난민을 수습하는 한편 일부 티베트인들의 '무장투쟁' '강경투쟁' 주장을 물리치며 평화와 비폭력에 의한 티베트독립을 위한 노력을 계속해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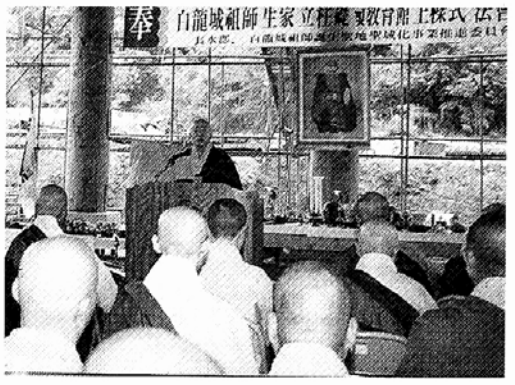
그는 비폭력 평화주의에 입각한 독립운동 뿐만 아니라 핵실험 금지와 세계 평화 및 인권을 위해 헌신한 공을 인정받아 89년 노벨 평화상을 수상했으며 막사이사이상과 스웨덴의 윌렌베르히 인권상을 받기도 했다.



대한법화종 법홍 총무원장 취임식

대한불교 법화종은 13일 서울 세종홀에서 창종 제54주년 기념 대법회와 법홍 총무원장, 혜도 포교원장 취임 법회를 봉행했다.

법화종 종정 금파스님, 원로 정공, 구압 스님, 전국 각 교구 종무원장과 주지, 신도 등 8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된 법회에서 제16대 총무원장 법홍스님은 취임사를 통해 "종도들과 함께 으뜸가는 종단으로 만드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면서 "종단의 화합과 재도약을 위하여 징계자에 대한 사면을 선포한다"고 말했다. 이날 전 총무원장 운경스님과 포교원장 도안스님에 대해 공로패가 수여됐다.



전북 장수 용성조사전 상량식

백용성스님 탄신 137주기를 맞아 9일 스님의 탄생지 장수 죽림정사에서 탄신 제137회 봉찬대제와 건립중인 조사전의 상량식, 생가 입주초 법회가 봉행됐다. 성관사 조실 월성스님, 죽림정사 조실 도문스님 등 50여 스님과 백용성조사유훈실현후원회 한명육 회장, 김상두 장수군수 등 5백여 사부대중이 동참한 가운데 열린 법회에서 불심도문 스님은 인사말에서 "3·1 독립운동정신을 계승하여 남북통일을 성취하자"고 발원했다.



대불어 직지사서 지도자 연수회

대한불교어린이지도자협회(회장 덕진 스님)는 4일 김천 직지사 만덕전에서 제29차 전국 어린이지도자연수회를 개최했다. 서울·경기·부산 등 전국 어린이 법회 지도교사 1천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이번 연수회에서는 제2기 연꽃 어린이 기자 연수회도 함께 열렸다.

'삶을 나누고 생명을 나누는 사람들'이 모입니다.
지금 곧 신청해 주십시오.

자원활동가를 위한 워크샵!

이번 워크샵은 일반인 및 자원활동가, 사회복지에 관심이 있는 분들을 모시고, '전 국민 1인 1장기기증'에 대한 인식의 공유와 홍보, '생명나눔운동'에 관한 의견교환 및 상담기법,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통해 훌륭한 자원활동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프로그램입니다.



☞ 일 시 : 7월 8일 (토) - 7월 9일 (일)
☞ 장 소 : 경북 경주
☞ 대 상 : 자원활동가, 자원활동 희망자, 일반인
☞ 참가비 : 무료
(서울, 경기,인천 지역 출발자는 관광버스 이용. 단, 지방참가자는 고통비 본인 부담)

⊙ 참가 신청
7월 3일 (월)까지 전화 및 e-mail 접수
참가신청시 성명과 나이, 연락처, 주소지 확인
⊙ 문의 및 접수
Tel : 02-734-8050 / E-mail : lisa@lisa.or.kr

▶ 주최 :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 후원 : 보건복지부, 사회복지공동모금회

사단법인 생명나눔실천회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74-8. http://www.lisa.or.kr, 02-734-8050)

人 事 말 씀

大韓佛敎 曹溪宗 元老議長이신 眞空堂 呑星大宗師의 永訣式을
佛紀 2544年 6月 12日(陰 5月 11日)敎團의 元老·大德스님과
在家佛子 그리고 四部大衆을 모시고 宗團의 元老會議葬으로 嚴肅히 奉行하였습니다.
公私간 多忙하심에도 不拘하고 參席해 주신데 대하여 일일이 찾아 뵙고
人事 드림이 도리인 줄 아오나 慌忙中 우선 紙面으로 심심한 感謝의
人事를 드리오니 널리 諒解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佛紀 2544年 6月 13日

四十九齊 案內

眞空堂 呑星大宗師 四十九齊를 다음과 같이 奉行합니다.

- 다 음 -

구분	장 소	일 시	전 화
1 재	공림사	6월 14일(음 5.13.) 수요일	0445)833-1029
2 재	법주사	6월 21일(음 5.20.) 〃	0433)543-3615
3 재	〃	6월 28일(음 5.27.) 〃	〃
4 재	〃	7월 5일(음 6. 4.) 〃	〃
5 재	〃	7월 12일(음 6.11.) 〃	〃
6 재	〃	7월 19일(음 6.18.) 〃	〃
7 재	〃	7월 26일(음 6.25.) 〃	〃

▶문 의 : 충북 보은군 내속리면 사내리 209 법주사
☎ (0433)543-3615 FAX (0433)543-3620

大韓佛敎 曹溪宗 眞空堂 呑星大宗師 元老會議葬 葬儀委員會

葬儀委員長 종 산　護　喪 보 성
指導委員長 정 대　執行委員長 지 명　합장
門中 代表 범 행　門徒 代表 성 본

"언론인 불자연합회 결성" 한목소리

마곡사 연수회 참가자 필요성 제기
법사 확보 쉽고 불교외호 역할기대



◇불자 언론인들은 3~4일 공주 마곡사에서 발우공양 등 1일 사찰체험에 도전했다.

다른 직종 불자회들과는 달리 회원들의 근무시간이 천차만별이어서 연합회 활동은 꿈도 꿀 수 없었던 언론인 불자들 사이에 연합회 결성의 필요성이 다시금 제기됐다. 이같은 의견은 3일 마곡사에서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열린 '불자 방송 언론인 연수'에 등참한 언론인 불자들 사이에서 불거져 나왔다.

연합회 추진문제는 이미 여러차례 거론돼 왔었지만 20여개 중앙 언론사 가운데 KBS, MBC, SBS, 경향신문 등 4곳에만 불자회가 있는 실정이라 연합회 결성이 쉽게 이루어지지 않았다. 96년 첫 불자 방송 언론인 연수에서 연합회를 결성했었지만 각 불자회가 결성 초기인데다가 서로의 의견을 조율하지 못해 몇달만에 흐지부지 사라져 버린 일이 있는 만큼 이번에는 좀더 튼튼하게 기초작업을 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언론인 불자연합회가 결성되면 지속적인 법회 봉행을 통해 불자 언론인들의 상호교류가 활발해질 전망이다. 언론사 불자회들의 고충인 법사 초빙문제에 대한 해결방안도 모색할 수 있게 된다. 연합법회를 봉행함으로써 지도법사를 수월하게 모실 수 있을 뿐 아니라 인원이 적어 법사 요청이 어려웠던 문제들도 자연히 해결된다는 것. 또한 연합 수련회를 통해 평소 접할 수 없는 발우공양 등 사찰생활을 경험하고 수행을 점검받을 수도 있다.

무엇보다도 교계에서 기대하는 점은 언론매체에서 불교왜곡이나 종교편향문제가 발생할 경우 불교계의 입장을 대변하고 불교외호단체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이란 점이다.

김재일 보리방송모니터회장은 "불자 언론인들이 교류와 활동을 강화할 때 불교포교는 물론 올바른 여론형성에도 기여할 것"이라며 언론인 불자연합회 결성을 촉구하고 있다.

연합회 성격은 아니지만 신문·방송사에 근무하는 불자 언론인들이 신행활동을 위해 98년 5월에 결성한 한국불교언론인회(회장 신광식)가 있다. 아직 이렇다할 대외적인 활동은 펼치지 못한채 친목도모와 신행다지기에 주력하고 있는 실정이다. 기자, PD 외에 총무부 등 사무직 직원들이 대거 포함되어 있는 언론사 불자회와는 다르게 구성된 만큼 나름대로의 차별화된 활동이 요구된다.

강신철 한국불교언론인회 부회장(경향신문 논설위원실장)은 "한국불교언론인회의 지부를 각 언론사별로 구성하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며 "한국불교언론인회와 각 언론사 불자회들이 긴밀한 관계를 가지고 서로 발전해 나갔으면 한다"고 말했다.

개신교나 가톨릭이도 언론인회가 있는데 특히 가톨릭의 경우 가톨릭방송인협회가 세계적으로 구성되어 있고 개신교는 기독언론인클럽과 기독언론인협의회 등이 결성되어 있다.

교계에서는 대중에 끼치는 영향력이 엄청난 언론매체인 신문·방송사에 불자회가 더 많이 생겨야한다고 주문하고 있다.

따라서 연합회 결성을 위한 전초작업으로 각 불자회 간에 친목을 다지는 일부터 시작해야 한다. 임원진부터 모임을 갖기 시작해 연합법회를 봉행하면서 회원들간의 상호교류 기회를 열어 주는 일이 시급하다는 것이다.

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일터에서 쓰는 마음의 편지



정 홍 희 〈부산 보현의 집 간사〉

노숙자 쉼터의 아침은 일터로 향하는 사람들의 떠들석한 인사와 아침 배식으로 시작된다. 공공근로에 참여하는 사람들은 8시가 되어야 출근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건설현장에 노무자로 일하기에 새벽 5시에 일어나서 식사하고 삼삼오오 팀을 만들어 용역회사로 출근을 한다.

한바탕 소란 같은 새벽이 지나가면, 당직을 서고 일어난 아침이라 간단하게 몸을 풀고 기도문을 가지고 아침기도를 한다.

나는 부처님 법 만난 것을 너무나 감사하게 생각한다. 부모님 은혜 보답하고, 일체 중생과 더불어 행복하겠노라고, 성불하겠노라고 발원하며 108배를 마치고 벽을 마주하고 명상에 잠긴다. 지나간 인연을 떠올려 보현의 집을 스쳐간 많은 사람들의 아픔과 마주하며 행복의 꽃밭에 그들을 쉬게 한다.

내가 일하고 있는 곳은 실직 노숙자 쉼터 부산 보현의 집이다. 부산 보현의 집은 IMF이후의 실직 등 경제적인 원인에서 비롯되어, 결국엔 가정이 해체되고 오갈 데 없이 노숙의 길을 걷게 된 사람들



처에 있는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 의자에 앉혀놓고 구구절절한 사연을 들으며 술취한 사람을 진정시킨다. 손을 꼭 쥐고 몇시간을 횡설수설하는 얘기를 듣고 난 후 술을 깨게 해서 숙소로 모시고 와서 잠을 재운다. 이런날은 유난히 이 분들의 외로움이 서럽게 느껴진다. 아침에 일어나 겸연쩍어 하는 사람에게 다가가 "김선생님 술 먹은 뒤끝이 상쾌하십니까?" 하고 물으면 다시는 술먹지 않겠다고 해 쉼터에는 한바탕 웃음이 터진다.

이것이 세상 살아가는 사람들의 진실한 모습이며, 마음이라고 생각한다. 나는 모든 면에서 부족한 사람이고

4相 비워 마음의 평화 얻자

을 거두어 부처님의 자비실천 사상으로 숙식을 제공하고 마음을 쉬게 하여 가정과 사회로 복귀시키는 공간이다.

지금까지 보현의 집에는 700명이 넘는 사람들이 숫자 만큼이나 참으로 다양한 사연을 가지고 거쳐갔다. 소설 속 얘기 같은 절망적인 사연을 상담하면서 그 깊은 상처를 보고 눈물도 많이 흘렸다. 심리치료 프로그램을 진행하면서 각자의 속깊은 곳에 있는 아픔을 나누면서, 서로 교류하고 분노를 조절한다. 마음과 몸을 추스린 사람들은 일요일마다 근처 사찰 법회에도 다니고, 일자리를 알선해 주면 착실하게 일도 다닌다.

그런데 한달동안 일도 잘하고 술도 안마시던 사람이 갑자기 고주망태가 되어서 돌아오는 날은 바로 월급날이다. 한 손에 오징어, 다른 한 손에는 소주병을 들고 찾아와서 "총무님 힘들어 죽겠어요. 마누라와 애들이 보고 싶어 미칠지경입니다. 내가 왜 이러는지 모르겠어요"하며 사무실을 한바탕 휘저어 놓는다. 80명의 입소자가 함께 생활하는 공간이기 때문에 술취한 사람을 데리고 나가서 근

부처님의 진실한 뜻을 아직 알지 못한다. 하지만 자립하여 사회로 복귀하는 사람들의 모습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한 가르침이 되고, 대학을 졸업하면서 어떻게 사는 것이 잘사는 것일까를 고뇌하다 세상 속에서의 수행을 택해 살아가는 참맛을 알게 하고 있다.

부처님 가르침이 아니었더라면 내가 어떻게 이런 기회를 얻었겠는가. 또한 아상, 인상, 중생상, 수자상을 끊임없이 비워서 참으로 평화로운 주인공에게 맡기는 공부를 몰랐더라면 이 공간에 융화될 수 있었겠는가.

남들이 떠들석한 주말을 좋아하듯 나도 휴일엔 친구들도 만나고 싶고, 하루쯤 여행도 떠나고 싶다. 어떤 날은 돌아오지 않는 길을 홀연히 떠나고 싶은 충동이 일어나기도 한다. 젊기에 그렇다고 내 모습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내려놓는다. 솔직한 내 심정은 밥 먹고 온갖 난리를 피우는 이놈이 뭐길래 이래 들었다 놓았다 하는지 환장할 노릇이다. 내 평화로운 주인공을 만나는 그날까지 이어질 여정에서, 내 일터는 나를 비워내는 수행처가 되고 있다.

직장법회 활성화방안 찾는다

조계종 7월8~9일 지도자대회

전국의 직장 직능 불교신행단체 지도자들이 한자리에 모여 법회 활성화에 대해 논의하는 자리가 마련된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직장 직능 신행단체 활성화를 위해 직장 직능 신행단체 지도자 대회를 준비하고 있다. 7월8일부터 9일까지 충북 속리산 법주사 유스타운에서 열리는 이번 지도자 대회는 직장 직능 신행단체 대표자 상호간의 유대감을 형성하고 현장의 문제점 및 해결 방안을 논의해 종단 차원의 지원방안 모색하고자 개최된다. 또 동일 직종간 연합조직의 결성 및 활성화 방안을 마련한다는 취지도 내포되어 있다.

주제는 '직장 직능법회 활성화 및 조직화'. 우선 직장 직능법회 모범사례를 듣고 법회활성화를 위한 토론을 개최할 계획이다. 이어 명사초청 강연, 법주사 참배 등으로 진행된다.

포교원에서는 직장 직능 신행단체 대표자 및 임원 외에도 전국단위 조직의 경우 지부지회 임원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참가를 희망하는 직장 직능신행단체 대표들은 7월1일까지 조계종 포교원에 신청하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

이번 지도자 대회에는 금융단 불자회, 한국전력공사등 정부투자기관 불자회, 공무원 불자회, KBS MBC 등 방송 언론 불자회 등이 참석할 예정이다. (02) 720-7060

클릭! 새 홈 페이지

■ 도선사불교학생회(http://cafe.daum.net/dobulhak)-5월24일 개설. 도선사불교학생회 선후배들의 만남의 장소.

■ 순수반야(http://cafe.daum.net/manhaing)-5월28일 개설.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같이 연구하는 모임.

■ 충청연불(http://cafe.daum.net/ccyb)-5월20일 개설. 충북의 청소년불자들을 위한 사이버 공간.

■ 최경성의 날마다 좋은날(http://cksno1.inticity.com)-불교입문, 산사 가는 길, 경전산책, 시 한수 차한잔 등의 코너가 개설되어 있다. 사찰예법, 발우공양법, 부처님의 생애와 교훈 등도 알기 쉽게 소개한다.

■ 신대기 홈(http://members.tripod.lycos.co.kr/padma)-불교의 우주관, 인도의 까비르 소개, 총림과 청규에서 찾아보는 수행문화, 선적해탈과 전위예술, 태국 사찰 순례, 사찰 건축과 불교 사상 등 다양한 볼거리 제공.

■ 부산대 불교정진회(http://myhome.dreamx.net/chang97)-부산대 불교정진회의 홈페이지. 나눔일기장, 정토회 소식 등을 알 수 있다.

■ 보타원(http://cafe.daum.net/botawon)-5월30일 개설. 부산 서대신동에 위치한 보타원에 다니는 학생회 모임.

홈페이지를 개설한 불자님들의 연락을 기다립니다. 02)722-4162 jygang@buddhapia.com

우리 모임에선

천불동 대구서 전국모임

천리안 불교동호회는 24~25일 대구 구도회 법당에서 전국모임을 갖는다. 이번 전국모임에서는 박태원 교수(울산대)를 초빙해 '천태불교사상'에 대한 강의를 듣는다.

25일에는 새벽예불과 함께 정진의 시간을 갖고 칠곡 송림사의 5층전탑, 기성동 3층석탑, 가산산성, 군위삼존석굴 등으로 성지순례 일정도 잡혀 있다.

감사원불자회 성지순례

감사원 불자회(회장 남정수)가 10~11일 수덕사, 개심사로 성지순례를 다녀왔다.

불자회희원들은 최근 개원한 수덕사 성보박물관에서 불교문화재를 보며 살아있는 불교문화의 현장을 답사하고, 주지 법장스님의 법문을 들었다. 감사원 불자회의 성지순례에는 농림부, 공정거래위, 법무부, 보건복지부 등 과천정부종합청사에 둥지를 틀고 있는 정부부처 불자회들이 동참해 회원들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다정산악회 속리산 등반

수원포교당 거사회 옥야지역모임(지역장 정영환)은 12일 충북 황간 반야사에서 6월 산행법회를 개최했다. 다정산악회는 25일 충북 보은 속리산에서 등산대회를 갖는다. (0331)245-9670

청주 MBC 불자회 창립

청주MBC에 불자회가 창립됐다.

5월30일 창립모임을 가진 청주MBC 불자회는 현재 15명의 회원이 불교신행 활동을 다짐했다. 창립모임에서는 함영배 방송제작국장이 회장으로 선출됐다. 청주MBC 불자회는 매달 사찰 성지순례와 두달에 한번 전국 MBC 불자회 연합 사찰순례법회에 참석한다는 계획이다. (0431) 229-7250

네띠앙 서경 · 충청지역모임

네띠앙불교동호회 서울경기지역모임인 서경모임(지역시샵 김융기)은 3일 수미정사에서 정기법회를 봉행했다. 서경모임은 매달 첫째주 토요일에 정기법회 및 월례모임을 갖는다. 대전충청지역 모임(지역시샵 나민균)도 이날 대전 용화사에서 정기법회를 가졌다.

하불동 충청모임 법화경공부

하이텔 불교동호회 충청법회는 7일 월례법회를 갖고 〈법화경〉 공부에 들어갔다. 충청법회에서는 〈법화경〉 제목 해제를 거쳐 본격적으로 〈법화경〉을 공부할 예정이다. 이번 법회에서는 지리산 제다실습을 통해 얻은 햇차 시음회도 가졌다.

직장인을 위한 불교강좌(2년과정)

동산불교대학 2000년도 신입생 모집

1. 대학 개설 취지

불교의 대중화와 대승불교 사상을 널리 알릴 사명감 있는 포교사를 양성키 위해, 교계대덕스님 및 교수를 초청하여 불교의 분야별 전문교육을 통하여 직장인을 위한 2년과정의 동산불교대학 제17기생을 모집함.

2. 교과목 및 교수

1년 교과목	근본불교 · 대승불교 · 비교종교론 · 불교상담론 · 인도불교사 · 중국불교사 한국불교사유사상 · 정토사상	· 무진장스님(본대학학장) · 최봉수(동국대교수) · 주명철(동국대교수) · 정병조(동국대교수) · 오 국 근 (동국대교수)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남수영(동국대교수) · 계환스님(동국대교수) · 김 상 현 (동국대교수) · 표주스님(동국대교수) · 장휘옥(동국대교수)
2년 교과목	반야사상 · 법화사상 · 화엄사상 · 불교사회복지론 · 불교학개론 · 선종사상 · 불교미술 밀교사상 · 포교방법론	· 박 종(동산불교대교수) · 김성철(동국대교수) · 권탄준(동국대교수) · 보각스님(승가대교수) · 권기종(동국대교수) · 최종석(동국대교수) · 윤열수(문화재전문위원) · 종석스님(승가대교수) · 한정섭(금강선원이사장) · 김호귀(동국대교수) · 유진스님(동국대교수)

3. 모집방법 및 전형

모집인원	지원자격	제출서류	원서교부 · 접수	전형방법	강의일시 및 장소	비 고
정규반(100명) 주간반(50명) 통신반(50명)	불교를 적극 신행하고자 하는자	· 입학원서1통 · 주민등록등본 1통 · 반명함판사진 3매	2000년 6월 15일~ 2000년 7월 31일 입학금 150,000원	서류전형 (합격자 개별통보)	· 매주 토요일 오후 6시(정규반) · 매주 목요일 오후 2시(주간반) · 동산교육회관	통신반은 지방거주자나 출석수강이 어려운 자만 지원가능

4. 입 학 일 시 2000년 8월 5일(토) 오후 5시 (동산불교회관)

5. 원서교부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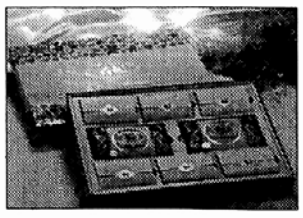
⊙ 본대학 사무국(☎ 732-1206~8, FAX 732-1207) (우)110-170 서울 종로구 견지동 13번지
⊙ 서울 : 보련각(조계사앞) ☎ 02)733-0333 ⊙ 부산 : 불 서 보 급 사 ☎ 051)246-4321
⊙ 대구 : 삼영불교서림 ☎ 053)425-4097 ⊙ 대전 : 보 문 서 점 ☎ 042)257-0161
⊙ 광주 : 불 일 서 점 ☎ 062)232-7542 ⊙ 제주 : 한라불교신문사 ☎ 064)55-2203
※ 특전사항 : ⊙ 상기과정을 졸업한자는 포교사고시를 거쳐 조계종포교사 자격을 취득함.
⊙ 동국대 불교대학원 입학 자격

대한불교조계종 동 산 불 교 대 학

"향기"로 아픔을 날린다!!

香妃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 기미, 스트레스가 말끔히…
혈(血)이 맑아지고 모든 통증이 사라집니다.



향비는 1997년 제15회 동경국제박람회에 출품하여 우수상품으로 선정, 향요법을 통한 여성 건강 증진 효과가 또 다시 입증되었고, 현재 독일, 일본, 오스트리아등 세계8개국에 수출됨으로써 여성 고민의 근본적인 해결책임이 밝혀졌습니다.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여성 고민은 끝 —

이 향비를 신궐혈(배꼽)에 착용하면 방향약용식물의 성분이 신궐혈을 통하여 인체에 흡수, 혈액 순환계통에 진입하여 각종 효과를 냅니다.
향비는 자연향인 피톤치드가 세라토닌이라는 물질을 생성시켜 음식물 과식억제를 하므로 비만이 이루어 질 수 없게 합니다.
태아가 엄마의 탯줄을 통해 모태에서 영양을 공급받는 것처럼 신궐혈(배꼽)에 향비를 착용하면 인체의 음과 양, 기력, 장부 조절을 비롯해 자율신경 내분비 개선 등의 효과가 있습니다. 특히 향비는 프로호르몬의 생성을 촉진하는데 이 프리호르몬은 우리 몸의 균형을 조절해 주는 역할을 담당하고 있어 인체의 자연치유력을 증강시킵니다. 그렇습니다. 이 향비를 배꼽에 착용하면 생리통이나 생리불순, 두통이나 불면증, 기미, 피부 및 혈액순환에 좋으며 자신도 모르게 좋은 향기를 발산하게 됩니다. 이제 향기로 건강을 지키는 향요법 향기를 꼭 기억하십시오.

"배꼽"에 간단하게 착용하면, 침의 효능, 뜸의 효능, 악리작용의 세가지 복합 효능을 동시에 느낄 수 있습니다.

▶ 체험사례

생리통 · 기미

33세된 가정주부입니다. 저의 경우는 약15년동안 허리진통으로 늘 고생해왔고 특히 그 진통으로 인해 저녁엔 깊은 잠이 들지 못하고 깨어있어야만 했습니다. 정형외과, 산부인과, 지압 · 교정등 치료방법을 해보았지만 진통은 쉽게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그러던중 우연히 향비를 알게 되었고 향비를 착용한 5일째부터 신기하게도 단 한번의 진통없이 아침까지 잠을 자게 되었습니다. 그 일이 향비의 착용이라는 것은 생각않고 피곤해서 그런가 했는데 며칠을 두고 관찰해 보니 향비사용으로 저는 생리통이 심하고 색은 아주 검고 양이 패드에 묻히는 정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향비를 사용한 그달에 생리의 결과는 놀랍게도 생리통이 없어졌으며 색도 아주 맑고 개끗해 짜증이 나지 않았고 물론 허리의 진통도 감소되었고 양이 많아졌다는 사실입니다. 이렇게 좋은 향비를 개발해 널리 보급한 고려물산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군포시 금정동 장 영 희)

해당되는 증상에 (○) 하십시오.

1. 피부가 거칠고 탄력이 없다.
2. 두통이 있거나 빈혈이 있다.
3. 불면증이 자주 있다.
4. 허리통증이 있는 편이다.
5. 기미가 있다.
6. 신경이 예민하거나 신경성이 있다.
7. 우울증이 있거나 의욕이 없다.
8. 생리주기가 정상적이 아니다.
9. 생리통이 심한 편이다.
10. 생리때 빛깔이 검고 탁하다.
11. 배나 복부 근처에 살이 찐 편이다.
12. 피로를 자주 느끼는 편이다.
13. 가슴이 답답하고 옆기가 위로 올라간 것 같다.
14. 발바닥이 갈라지거나 트고 굳은 살이 있다.
15. 전반적으로 혈액순환이 안되는 것 같다.
16. 목이 뻐근하거나 눈이 침침하다.
17. 변비가 심한 편이다.
18. 당뇨나 갑상선으로 고통을 당한다.

※ 2가지 이상 해당되시는 분은 즉시 전화하세요

고려물산·한국방향연구소 080-200-4545, 02)755-9821

사 설

민족상생의 시대로

남북한 정상의 감격적인 만남에 온 겨레가 열광에 휩싸여 있다. 이번의 만남으로 어디서부터 손을 써 나가야 할지 막막했던 통일 문제가 이제는 우리의 구체적인 현실로 눈앞에 성큼 다가온 것이다. 이제 남은 것은 정상 회담의 성과를 차분하게 현실적인 조건에 맞추어 풀어나가는 일이다. 그리고 그 첫걸음은 그 동안 분단상황 아래 체제 유지를 위해 서로를 비하하고 적대시하던 모든 필요악적인 요소들을 하나 하나 제거해 가는 일일 것이다. 이미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남한에 대한 비방 선전을 중지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하고, 이쪽에서도 국가보안법의 손질을 준비하는 등 그런 움직임이 가시화되고 있다.

이렇게 서로를 적대시하던 과거를 청산해나가는 우리의 길목에 바로 6.25가 놓여져 있다. "조국의 원수들이 짓밟아 오던 날을… "하는 6.25 노래의 가사에 드러나듯 그만큼 6.25는 적대감의 원천이요, 남북한 민족의 감정에 깊은 상처의 골을 새긴 아픈 과거이다. 이 아픈 과거를 되새기는 날에 통일의 앞날에 비추어 이 상처의 자국을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를 생각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과거의 아픈 상처를 슬그머니 덮어서는 될 일이 아니다.

자본주의와 자유민주주의를 지향하는 국시를 부정하자는 것이 아니다. 이제는 보다 높은 차원으로 한 걸음 더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다. 사회주의와 자본주의의 극단적인 대결 시대는 이제 끝이 났다. 북한이 아직 마지막 사회주의 국가로 남아 있다. 하지만 세계적 흐름을 거스를만큼 힘이 있는 위험한 존재도 아니다. 민족의 밝은 앞날을 향한 전향전인 자세 아래서 보는 6.25는 이미 과거의 유물이 되어버린 이념의 대결이 빚은 민족사의 참혹한 비극일 뿐이다.

불교의 눈으로 본다면 6.25는 분별상에 대한 집착이 빚은 참혹한 역사에 대한 참회의 날이어야 하며, 민족의 하나됨을 통해 그 죄과를 씻기로 다짐하는 날이어야 한다. 수없이 스러져간 호국 영령들의 넋도 그러한 화합과 하나됨의 세계 속에서 진정한 해탈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6.25를 기해 불교계에서 계획하고 있는 많은 기념행사는 바로 민족의 하나됨을 통해 분별상에서 나온 과거의 죄업을 해탈케 하는 불이법문의 법회이어야 하며, 그를 통해 그 참화의 와중에 산화한 많은 영령들을 완전한 해탈에 들게 하는 법회이어야 한다.

지리산댐 건설 안된다

정부는 낙동강의 수질이 나빠지면서 식수를 공급하기 위해 상수원을 찾고있던 중 대구 위천공단건설계획이 발표됨으로써 낙동강수질개선은 더 이상 회복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그래서 건교부와 수자원공사는 결국 대체상수원으로 함양군 문정댐을 건설한다는 방침을 1997년 발표했다.

건설 예정지는 구례와 함양, 산청을 잇는 지리산 북쪽 경사면의 가장 아름다운 계곡이 있는 곳이다. 만약 댐이 건설되면 유명한 중산리계곡과 달궁계곡, 뱀사골, 백무동계곡은 지형이 달라지며, 벽송사, 서암, 금대암, 영선사 등의 진입도로가 수몰되어 고립될 것이다. 사찰의 목조건축물과 벽송사의 목장승, 실상사의 철불을 비롯한 부도, 탑 등 모두 15개 사찰의 피해가 예상된다. 나아가 생태계가 파괴되고, 신도들과 탐방객들의 사찰 접근이 훨씬 어렵게 될 것이다. 더욱이 이 댐이 지어지면 실상사 앞 약 200m까지 물이 들어찰 것으로 예측된다.

지리산은 이미 거대한 역사적 두께가 쌓인 곳이며 산 그 자체가 역사유적이자 문화유적이다. 또한 남한에서 가장 풍부한 생물종이 보존되어 있는 곳이다. 댐이 들어서면 엄청난 물이 채워져서 인근의 기온을 낮추어 생태계를 파괴하게 될 것이며, 안개가 많이 발생하여 곡식과 식물생장에 큰 피해를 준다. 뿐만아니라 공사를 위해서는 새롭게 이설도로공사를 해야 하는데, 결국 울창한 숲이 대규모로 잘려나가는 것을 피할 수 없게 된다.

이는 결국 당장의 식수문제 해결을 위해 지리산 생태계를 파괴한다는 것이나 다름없다. 노후된 상수관만을 교체해도 동강댐을 건설하지 않아도 된다는 말이 나온 적이 있었는데, 우리나라의 노후상수관의 누수율은 16% 정도가 되고 이 문제만 해결해도 연간 6억톤 이상의 용수가 절약된다. 그리고 중수도시설을 통해 물을 재활용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물절약 범국민운동을 전개하며, 수자원관리기구를 일원화하면 실질적으로 낙동강의 수질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

이 문제에 대해 초기부터 확고하게 대응해야 더욱 문제가 커지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교구본사 사찰주지회의에서도 이미 반대입장을 천명했고, 환경단체의 모임인 한국환경사회단체회의에서도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지리산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불자들의 단합된 힘으로 지켜야 한다. 지금과 같이 국립공원이나 산림이 파괴되면 이는 곧 생태환경문제 뿐아니라 불교의 수행환경이 파괴되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다.

게놈 프로젝트와 불교 생명관

① 유전자 조작, 인간존엄 파괴인가
② 불교적 관점에서 본 유전자 조작
③ 현재의 행위(業)가 중요하다

"생태계 질서 대변환 예고"



정호영 〈충북대 철학과 교수〉

전통적인 서구의 철학이 그러하듯이 전통과학의 문제는 사물을 분석적으로 바라본다는 점이다. 지구를 이해하기 위하여 지구를 여러 가지 요소로 분해하고 이것들마저 다시 작은 단위들로 쪼개어 더 이상 쪼개지지 않는 최소한의 단위를 찾는다. 그리고 이 최소한의 단위를 자립적인 것으로 이해한다. 결국 지구는 스스로 존재하는 개별적인 것들의 집합 이외의 다른 것이 아니라고 이해한다. 지구를 독립적인 여러 부품들이 결합되어 있는 일종의 거대한 기계로 본 것이다.

그러나 지구는 인체와 마찬가지로 여러 부분들로 이루어졌다 하더라도 이 부분들은 자립적인 것이 아니다. 엄밀하게 말하여 지구는 끊임없이 변화하며 요동치는 유기체이며, 부분들은 상호간에 순환적 인과성(circular causality)을 갖는다. 자전거 타기를 예로 들어보자. 자전거가 왼쪽으로 기울 때 나는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 균형을 잡는다. 그러나 그 결과는 내가 왼쪽으로 가게 되는 결과를 낳는다. 이제는 본래의 진행방향으로 가기 위해 나는 손잡이를 오른쪽으로 돌리지 않으면 안된다. 그런데 손잡이를 계속 오른쪽으로 돌리고 있으면 다시 본래의 진행방향을 벗어나 오른쪽으로 향하게 된다. 이제 나는 다시금 손잡이를 왼쪽으로 돌려야 한다.

영원 좇는 인간욕망
'칼날에 묻은 꿀'
달지만 결국 위험

이러한 현상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점을 깨우쳐야 한다. 나와 자전거는 자전거 타기라는 하나의 운동에서 독립적인 것이 아니다. 나는 자전거에 영향을 미치고 자전거는 나에게 다시 영향을 미친다. 결국 나와 자전거 사이에는 상호인과성이 개재해 있는 것이다.

불교의 연기설 특히 화엄의 상즉(相卽)·상입(相入)의 가르침은 우리에게 우주가 거대한 관계의 그물임을 일깨워 준다. 〈화엄경〉은 이러한 점을 단적으로 '하나가 곧 일체이고 일체가 곧 하나'(一卽一切 一切卽一)라고 한다. 또한 〈화엄경〉은 우리에게 '한 작은 티끌 가운데에 온 우주가 담겨있다(一微塵中含十方)'는 통찰을 제시한다. 이와 같이 화엄사상에서는 어떠한 사물들 사이에도 계층구조가 존재하지 않으며, 중심과 주변이 따로 없다. 세계의 구성요소 사이에 존재론적 단계나 가치론적 차별이 없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한갓 미물이라도 세계의 형성과 유지에 필수불가결의 요소가 되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으로 말하면 한 개체의 태어남은 새로운 우주가 출현하는 것이며, 한 개체의 죽음은 이제까지의 우주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 우리는 인간만이 아니라 모든 생명체 나아가서는 무기물에 이르는 일체의 존재가 도지히 다른 것으로 대체될 수 없는 숭고한 우주적 가치를 지니고 있다는 불교의 깊은 통찰과 마주치게 된다.

몇 해전 체세포 복제 기술을 통해 복제양 '돌리'가 태어났을 때 과학의 성과에 대해 경탄해 마지 않으면서도 그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 또한 매우 컸다. 이제는 '인간 게놈 프로젝트'라 불리는 인간의 유전체 분석 작업도 마무리 단계에 들어왔음이 속속 보고되고 있다. 게놈 프로젝트 즉 유전자 지도의 완성은 유전자 조작을 가능케 하고, 이것은 궁극적으로 자연의 질서를 근본적으로 바꾸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우리는 이러한 기술의 긍정적 효과에 대해 무지하지는 않다. 전통과학과 마찬가지로 유전공학은 유전자 치료의 길을 터줌으로써 이제까지 숙명으로 여겨왔던 질병과 고통으로부터 우리를 해방시켜 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과학기술의 효용성 밑바닥에 짙게 배어 있는 인간중심적(anthropocentric) 사고를 경계하지 않을 수 없다. 우리는 또한 이른바 유전자 조작 기술이 무상(無常)의 시간을 한없이 연장코자 하는 인간의 뿌리 깊은 욕망과도 깊이 결합되어 있음을 알고 있다. 부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초기불교의 〈아함경〉은 영원을 좇는 인간 욕망의 위험성을 '칼날에 묻은 꿀'로 표현한다. 꿀의 달콤함에 취하여 칼날이 입안 깊숙이 들어오는 것조차 모르는 우리의 어리석음을 비유한 말씀이다.

21세기는 생태중심적(ecocentric) 사고로 전환되지 않으면 안된다. 우리는 불교적 사유가 새로운 과학의 세계관, 모든 생명들이 서로 깊이 의존해 있으며 나아가서는 서로가 서로를 새롭게 만들어간다는 새로운 세계관의 형성에 빛을 던져 줄 수 있음을 알고 있다. 업과 윤회의 사상 또한 오래된 숙명론, 신화적 세계관이 아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미래를 창조할 책임이 있고 모든 생명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음을 우리에게 확신시켜 주는 영원한 가르침이다. 갖가지 생명으로 이 세상에 출현하시는 부처님의 전생 이야기 〈본생담〉이 이를 웅변으로 말해주고 있지 않은가.

"유전자 조작=인간성 상실"



윤용택 〈제주대 철학과 강사〉

불교적 관점에서 볼 때 인간의 유전자 조작은 신중하게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반면에 유전공학자들은 인간의 모든 것을 유전자의 탓으로 돌리지만, 불교에서는 그 모든 것이 業의 산물이라고 본다. 유전자와 업, 어떤 차이가 있을까? 한마디로 유전자는 외적인 원인과 결과이지만, 업은 내적인 의지를 조건으로 한다. 따라서 바람직한 유전자를 가지고 바람직한 인간을 만들겠다는 발상은 인간의 주체성과 자유의지를 전면 부정하는 것이 된다.

물론 유전자 치료법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환자의 질병들을 효과적으로 치료할 수 있다면 그 방법을 굳이 마다할 이유는 없다. 그러나 불가피한 유전자 치료를 넘어서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간을 만들어 내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한다면, 우리는 무어라 할 것인가? 실제로 일부 학자들은 유전자 조작기술들을 人性 치료는 물론 인성 개조에까지 응용할 것을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우수한 형질로 전환하기 위한 유전자 조작은 자칫하면 인간의 자기노력과 도덕적 책임의 의미를 삭감시킬 위험이 있다. 우수한 형질을 가진 인간으로 만들려는 유전자 조작은 인간을 그 자체의 인격적 가치보다는 도구적·기능적 가치로 보는 것이고, 그것은 곧 인간성 상실의 시작이기도 하다.

자기성찰 없이는
생로병사의 문제
궁극적 해결 불가능

유전자를 조작함으로써 질병을 예방하고 치료하는 유전자 치료법은 의약품과 수술을 통한 의료행위와 별반 차이가 없다. 따라서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그리고 육신의 고통을 현실적으로 체험하는 한, 그 고통을 덜기 위해 유전자 조작을 하는 것은 바람직하다. 그러나 그 경우에도 일시적인 고통을 잠재울 수 있을지 몰라도 궁극적인 고통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된다.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생로병사의 문제를 궁극적으로 해결할 수는 없으며, 우리의 마음의 병까지 치유한다는 것은 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인간에 대한 유전자 조작을 함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는 생명에 대한 신비성이 무너지는 것보다는 인간을 유전자의 종속 변수로 생각함으로써 인간의 정체성을 부정하는 데 있다. 즉 인간은 자율성을 가진 존재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책임을 지는 존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사고야말로 인간이 인간다움을 포기하는 것이요, 그로 말미암아 차기모순을 범하는 것이다.

인간에게 있어서 유전자는 외적 원인에 불과하다. 내적인 자기 성찰과 자기 수련없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완전한 즐거움을 얻겠다는 것은 마치 마약의 힘을 빌어 즐거움을 얻겠다는 것과 같다. 인간은 유전자나 환경 같은 외부적 조건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조건을 넘어서 자신의 손으로 스스로를 만들어갈 수 있는 존재이다. 따라서 인간의 유전자를 조작하는 것도 마약을 사용하는 것과 같이 생각해볼 필요가 있다. 육체에서의 엄청난 고통을 달래기 위해 마약을 최소한도로 사용하는 것은 도덕적으로 용납이 되지만, 마약의 남용을 통해 즐거움을 얻겠다는 것은 용납되기 어렵듯이,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선천적인 질병이나 장애를 치료하는 것은 용납될지언정, 유전자 조작을 통해서 우수한 인간을 만들어내는 것은 도덕적으로 받아들이기 어렵다. 그것은 자신의 운명은 스스로의 자기의지에 의해 결정된다는 불교적 관점과도 어긋나는 것이다.

하지만 유전자 조작이 윤리적으로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중요한 것은 유전자 조작의 행위 보다는 어떤 정신으로 조작행위를 하느냐에 있다. 불교는 바로 이 점에 주목하고 역할해야 한다. 불교는 생명의 가치를 밖으로부터가 아닌 스스로가 자신에게 부여해 가는 것이라고 보고 있다. 유전자 조작행위 자체가 불교교리에 어긋나는 점을 말하기에 앞서 어떻게 태어나느냐 보다 태어난 개체가 어떤 업을 쌓느냐를 중요시 여기는 불교의 생명관으로 이 문제를 볼 필요가 있다. 복제된 인간이 나온다 하더라도 결국 복제된 그 자신의 현재와 미래도 업에 의해 그 가치가 결정되기 때문이다.

과학기술의 발달로 현세의 육체적·물질적 행복을 보장해주는 기복에 바탕을 둔 종교는 점점 더 설득력이 없어질 것이다. 왜냐하면 과학기술로도 얼마든지 육체적·물질적 고통은 해결이 가능하고 행복 또한 얻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과학시대에서 종교의 역할은 과학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 즉 우주와 인생의 궁극적인 의미는 무엇인가, 그리고 왜·무엇을 위해 살 것인가 등과 같은 물음에 답을 제시하는 것이고, 육체가 아닌 마음의 병을 치료하는 것이라야 한다.

혜초여행개발(주)
HYECHO ADVENTURE TOURS.
대표☎ 733-3900 6263-3900
담당☎(직) 6263-3921-22,28 fax 733-3780
www.hyecho.co.kr E-Mail:hyecho@hyecho.co.kr

佛子世界
걸망메고 대륙의 중앙으로....

Tibet
금단의 大地 티벳 걸망여행 인기 ₩990,000
평균고도 4,000를 넘나드는 세계에서 가장 고립된 티벳고원...
스스로 불교 깊숙을 자처하는 티벳인들의 삶.....그리고 히말리아!
時호을 넘나드는 티벳으로의 순례를 시작 하십시오.
· 일 정 : 서울 - 네팔,카트만두 - 허말라야를 넘어 티벳 평원으로 (자유일정)...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중국 및 티벳여행허가서,카트만두 1박
· 출 발 일 : 매주 화,목,토 개별출발

JEEP 타고 티벳평원을 횡단 ₩1,990,000
· 일 정 : 카트만두-라사-장째-시가체-시가-장무-카트만두(11박 12일)
· 포함사항 : 항공료,숙박(조식포함),Zeep(4인탑승),중국비자,티벳여행허가서, 사원입장료,영어가이드,보험
· 출 발 일 : 매주 목요일(4명 이상 - 최소규모 출발합니다)
※영국,독일,프랑스,한국 연합상품으로 Zeep 이용조건

스포츠 조선과 함께 하는
중국 실크로드 문화탐방 여행 8日 ₩1,490,000
· 일 정 : 서울 - 서안- 돈황 - 유원 - 투루판 - 우루무치 - 서안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항공료, 국내선항공료, 비자비용, 공항세, 보험, 특급호텔 안내원, 전용차량, 일정상의 전식
· 출 발 일 : 7/14,23, 8/11,25

실크로드 (Silkroad)
長安에서... 쿤자랍까지 ₩1,690,000
불교전승지인 실크로드에서
통,서양을 넘나들던 구법스님들을 생각하며.....
· 일 정 : 【21박 22일】서안-난주-가욕관-돈황-유원-투루판-카슈가르-탁스쿠르간-쿤자랍고개(버스)-우루무치(열차)-서안
· 포함사항 : 항공료, 비자, 숙소(조식포함), 안내인, 도시간의 이동, 보험
· 출 발 일 : 7/24, 7/31, 8/7 (10명이상 출발)

인도전문 여행사 혜초에서 선보이는
세전년 인도, 네팔 자유여행(28日) ₩1,990,000
◈ 인도 대도시 : 델리, 아그라, 자이푸르, 바라나시, 카주라호
◈ 불교 성지 : 룸비니, 쿠시나가르, 녹야원
◈ 북인도 : 다람살라, 레, 스리나가르, 잠무
◈ 네팔 : 카트만두 여행등 다양한 장소, 충분한 여행 스케줄
· 일 정 : 서울 - 델리 - 다람살라 - 마날리- 사추 - 레 - 사스풀 - 카르길 스리나가르 - 잠무 - 델리 - 자이푸르 - 아그라 - 카주라호 바라나시 - 쿠시나가르 - 룸비니 - 카트만두 - 서울
· 포함사항 : 국제선 항공, 열차, 차량, 숙소(조식포함), 보험, 안내
· 불포함사항 : 비자비용, 여권발급비, 서울 공항세
· 출 발 일 : 7/2,16, 8/13 (10명이상 출발)

전통의 성지순례전문 혜초에서 선보이는
인도 · 네팔 불교성지순례 ₩990,000
부처님의 4대성지인 탄생지, 성도지, 초전법륜지, 열반지 순례및 8대성지 순례.
※ 순례후 카트만두에서 개별적으로 귀국 가능합니다.
(아시아나항공+네팔항공 : 1年 항공권)
· 일 정 : 델리-바라나시(녹야원)-부다가야(성도지)-나란다 불교대학-라즈기르(영축산,왕사성,죽림정사)-파트나-바이샬리(대림정사,아쇼카석주)-쿠시나가르(열반사,다비티)-사헤트 마헤트(사윗성, 기원정사)-룸비니-카트만두-방콕-서울(10일간)
· 포함사항 : 1년 항공권,숙소(조식포함),한국안내원,전용차량
· 출 발 일 : 7/2,16 목,일(15명이상 출발)

※ 10년 전통의 혜초 여행사는 불자와 함께하는 국내 최대의 불교전문 여행사입니다. 후원 : 현대불교신문, 스포츠조선

통일시대가 온다 **북한의 사찰**

60여곳 목탁소리…"문화교류 마당으로"

14일 남북 정상이 경제·사회·문화 등 4개 분야의 교류를 합의 서명함에 따라 다방면에서의 남북간 문화교류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에 따라 앞으로 불교계의 남북한 교류도 한층 앞당겨질 전망이며, 특히 불교유적지인 사찰을 중심으로 이뤄질 것이다. 북한 사찰 가운데 상당수는 6.25전쟁 등으로 인해 소실되었지만, 현재까지도 60여 사찰이 남아 그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 가까운 미래에 휴전선 너머 북한 불교 사찰과 문화재를 직접 만날 그날을 그려보면서 남북정상의 역사적 만남이 이루어진 평양과 민족의 영산 금강산, 묘향산 등지의 사찰에 대해 알아본다.



◇묘향산 보현사 경내의 8각13층 석탑.

광개토대왕 때 지은 대성산 광법사 국보지정

●평양의 사찰

반세기만에 분단의 벽을 허문 역사의 현장인 평양에는 광법사, 정릉사, 법운암, 용화사, 영명사 등 유서깊은 사찰이 명맥을 잇고 있다.

평양 대성산에 위치한 광법사는 고구려 광개토대왕 때에 지은 고찰이다. 6.25전쟁 때 대부분 불탄 것을 90년 현상태로 복원하였다. 현재 북한 국보 유적 164호로 지정되어 있는데, 북한 승려양성소인 불학원이 이곳에 있다.

평양 외곽 룡산리 동명왕릉 입구에 있는 정릉사는 고구려 장수왕 15년에 창건됐다. 고구려 동명왕의 명복을 빌고 동명왕릉을 지키기 위한 나라의 원찰(願刹)이었다. 최근에 새로 지었는데, 탑을 중심으로 사찰의 기본 골격만 세워 전형적인 고구려식 가람배치 양식을 지키고 있다.

평양 룡악산에 있는 법운암은 문익환, 황석영, 임수경 씨 등 남쪽의 유명인사들이 거쳐간 이후 명소가 되었다. 특히 이곳에 백범 김구 선생이 머물렀다 하는데 〈백범일지〉에 나오는 '평양에 와서 한 암자의 주지가 되어 부모님을 모시고 몇 개월 동안 지내다가 이내 환속했던' 곳이 바로 법운암이라 한다. 이밖에 평양에는 대동강변에 위치한 고구려시대 고찰 영명사와 일제시대에 창건한 용화사가 있다. 영명사는 불교가 융성했던 고려 때에 250명이 넘는 승려가 수행하고, 2만이 넘는 신도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던 곳이다. 현재는 내각초대소로 변했는데, 대동강변의 부벽루와 3층 석탑이 남아 있다.

수많은 사암 6·25때 소실 표훈사·마하연 남아

●금강산의 사찰

1만 2천봉 8만 9암자라는 이야기가 말해주듯 금강산에는 예로부터 수많은 사찰과 암자가 들어서 있었다. 특히 표훈사, 마하연, 장안사, 신계사를 금강산의 4대 사찰이라 일컬어 왔는데, 전쟁 등으로 인해 소실되고 지금은 표훈사와 마하연만이 남아 있다. 이 가운데 가장 규모가 큰 표훈사의 현재 모습도 6.25전쟁 때 반야보전만 남기고 불탄 것을 복원한 것이다. 또한 표훈사는 금강산의 주불인 법기(法起)보살을 모신 곳으로도 유명한데, 500척의 높이루와 53부처님을 새긴 철탑이 있었으나 아쉽게도 지금은 없다.

내금강 만폭동에 자리잡은 신라 고찰인 마하연은 원래 사찰 강당으로 지은 건물로 규모와 구조가 웅대하다. 부근에 만회암, 불지암, 연화대 등 옛 사찰건물과 유적이 남아 있다.

유점사는 금강산 지역의 대본산이었다.



◇금강산의 주불인 법기보살을 모신곳으로 유명한 표훈사는 6·25전쟁 때 대부분 불탄 것을 복원했다.

이 사찰에 있는 여러 전당 중에도 능인보전(能仁寶殿)은 최고의 자랑이었고, 신라 말에 조성한 53불이 있었으나 소실되었다. 장안사는 원나라 순제의 황후가 된 기씨가 지었다고 하는데 건축 기법이 정교하기로 유명한 사찰이다. 일곱 전각, 네 개의 누각과 함께 보물 제120호로 지정되었으나 6.25때 전소되었다.

또 법기봉 허리부분의 깎아지른 절벽바위에 1개의 가는 구리기둥으로 3층이나 되는 암자를 떠받들고 있는 입지가 특이한 보덕암이 있다. 관음보살의 화현인 보덕각시의 설화가 전하는 이곳에는 백색의 관음상이 모셔져 있는데, 영험있기로 유명하다 한다.

내금강에 위치한 정양사 또한 6.25전쟁 때 파괴된 것을 전후 복구해 현재에 이르렀다. 특히 약사전은 조선 후기에 복원된 것인데, 육각원형으로 되어 있으며 들보와 못 하나도 쓰지 않고 지었다.

보현사 북한불교 본산격 8각13층 석탑 '고려명작'

●묘향산의 사찰

묘향산에 위치한 보현사는 북한에서 가장 큰 절로, 북한불교의 본산격이다. 고려 현종 때에 창건했는데, 6.25전쟁 때 반 이상 파괴된 절을 복원해 오늘의 모습을 이루었다. 보현사 경내에는 고려시대 석탑을 대표하는 명작이라 일컬어지는 보현사 8각 13층 석탑을 비롯 불교역사박물관을 세워 전국 사찰에서 나온 많은 불교유물을 보관 전시하고 있다.

보현사의 산내 암자로는 상원암이 현존한다. 묘향산 제일암이라는 별칭이 있을 정도로 묘향산에서 가장 오래되고 규모가 큰 암자다. 16세기에 지어진 암자로 기도처, 수도처, 공양간에 수각까지 있는 제법 큰 규모다.

서산대사가 수행하던 곳으로 이름높은 금강굴은 칠성동 계곡에 위치하고 있다. 바위틈에 만든 토굴인데 숨은 듯이 겸손하게 지어져서 수행자의 면모를 그대로 드러내는 듯하다. 암자입구에 '청호방문(淸虎方文)'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다.

묘향산 만폭동으로 오르는 초입에 위치한 거대한 안심사 부도밭. 총 44기의 부도와 19기의 비석이 남아 있는 이곳에는 고려말 대선사 지공스님과 나옹스님의 부도, 서산대사의 부도 등이 있다. 지금은 부도만 남아 있는 안심사는 보현사의 할아버지가 되는 고찰이다.

이렇듯 북한에는 아직도 많은 사찰들이 남아 있다. 법타스님이 올 초에 펴낸 〈북한불교연구〉에 의하면 북한의 사찰은 60여 곳이 현존하고 있으며, 1만여명의 불교신자와 300여명의 승려가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그러나 신앙 공간으로서의 북한 사찰은 55년이라는 분단 세월 속에 많이 변모돼, 관광 휴양지화 된 경향이 짙다. 절을 지키고 있는 스님도 대처승으로 불교 성보를 관리하고 안내하는 역할을 하고 있을 뿐이며, 정기적인 법회가 열리는 사찰은 거의 드물다. 하지만 북한에서도 부처님 오신날 만큼은 수많은 불자들이 절을 찾아 등불을 밝힌다고 한다. 앞으로 남북의 스님과 신도가 자유롭게 오가는 사이 오랜 세월동안 단절됐던 불교적 전통이 되살아나고, 부처님 품안에서 또 하나의 통일을 이룰 수 있을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은자 기자
(ejlee@buddhapia.com)



◇한민족의 혼을 표현한 이철호씨의 '승무'.

조선족 2세 작가의 그림화두

'나는 누구인가'

이철호 작품전…서울·광주서 전시

중국 연변에서 조선족 2세로 살면서 끊임없이 되물어온 '나는 누구인가'라는 화두를 그림으로 풀어낸 이철호(39.중국 연변대학 연변예술대학 부교수) 근작전이 서울과 광주에서 열린다.

이번 전시는 아버지의 나라인 조국에 와서 생활한 3년 동안 그린 30여 점의 근작들을 선보이며 조국에서의 시간을 정리하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서울 인사동 아트사이드넷에서 21일~27일, 광주 남도예술회관에서 7월 5일-9일까지 두 차례 열리게 되는 이번 전시회는 이철호씨의 특별한 소망을 담고 있어 더욱 뜻 깊다. "국적은 중국인이지만 한국인으로서의 정서가 제 속에 있습니다. 가장 한국적인 것을 담고 있는 불교 문화를 통해 한국인의 정서를 전해주고 싶습니다."

대담한 구도, 빼어난 분석력, 원숙한 묘사력으로 인정 받고 있는 그는 앞으로 박경리의 토지를 읽고 받았던 감동에서 착안, 한국의 민족사를 재정리하는 작업에 들어갈 예정이다. 그것 역시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 재정립 작업이 될 것이다. 부산=천미희 기자

동화사 판소리합창단 창단

선지식의 법문을 판소리합창곡으로 작곡해 불교 행사 때는 물론 수행방편으로 부르는 이색적인 합창단이 결성됐다. 팔공산 동화사신도회는 17일 교계 최초의 동화사판소리합창단을 창단했다.

동화사판소리합창단은 지난 98년 영남불교대학·관음사에서 108국악단을 만든 바 있는 회장 임재욱씨(47 법운)의 발원으로 추진됐다. 택시운전을 생업으로 하며 합창단 총지휘를 맡고 있는 임씨는 법문과 청법가 등을 불자들이 쉽게 따라 부를 수 있는 관소리 평조로 작곡해 선보일 예정이라고 밝혔다.

30여명의 순수 아마추어 단원으로 구성될 동화사판소리합창단은 대구시 동구 용계동에 고가옥을 빌려 전용연습실을 마련, 매일 저녁 연습에 임하고 있다. 대구=이윤호 기자

'자비의 말씀' 기금마련 판화전

강행복씨 작품 무료기증

24일~7월2일, 조계사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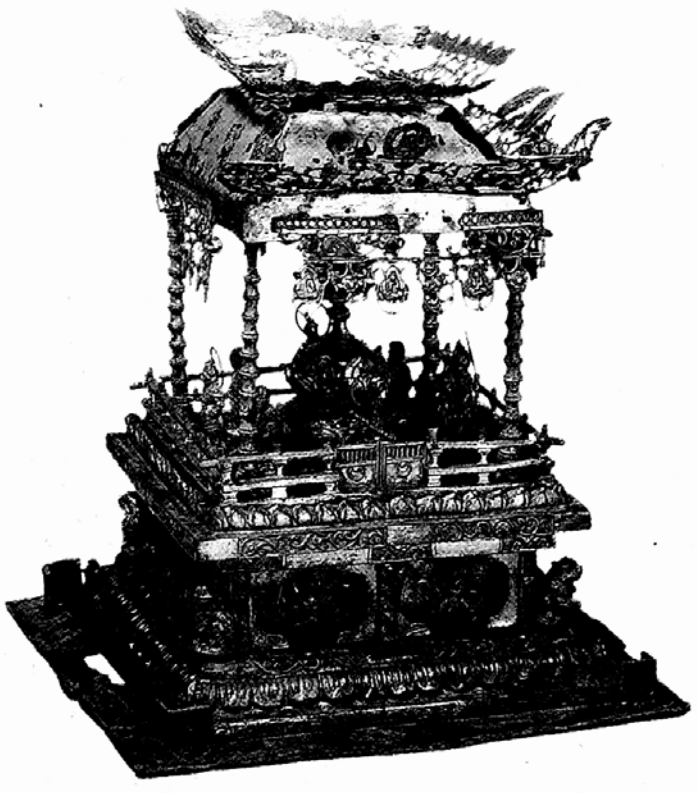
풍경소리 '자비의 말씀' 지하철 포교 기금마련 불교판화전이 24일~7월 2일까지 조계사 문화교육회관에서 열린다.

기금 마련 판화전에는 판화가 강행복씨의 작품이 35점이 전시 판매된다. 이번에 선보이는 작품은 강씨가 그동안 자비의 말씀에 무상으로 제공해 왔던 것으로, 수익금은 전액 지하철 포교 운영기금으로 활용하게 된다. 또 전시기간 중 조계사 경내에 그동안 지하철에 게시했던 포스터와 엽서형 '자비의 말씀'을 모두 전시한다.

지하철포교를 내세우며 지난해 9월부터 시작된 포교게시판 '자비의 말씀'은 철도청, 도시철도공사 소속 모든 역사에 설치 승인을 받음으로써 본 궤도에 진입하게 됐다. 그러나 게시판 협찬이 계획대로 이뤄지지 않아 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은자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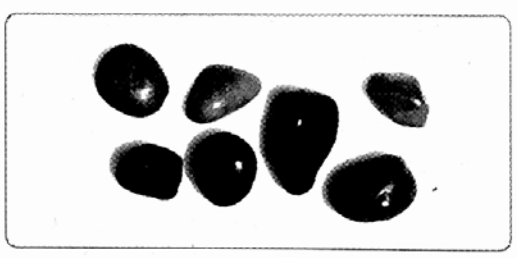
부처님 진신사리 친견 및 사리장엄구 특별전



경주 감은사 동삼층석탑 출토 금동전각형 사리기

통도사성보박물관의 신축개관 1주년 기념특별전『불사리신앙과 그 장엄』전이 많은 불자들과 관심있는 분들의 성원으로 지난 2일 개막 이래 연일 3,000여 명이 입장하는 등 성황을 이루어 지금까지 약 3만여 명이 관람하였습니다.
사리장엄구는 가장 성스럽고 아름다운 불교예술품으로, 1996년 발견된 후 보존처리를 거쳐 **일반에 처음 공개되는 감은사동탑 사리구**를 비롯하여 전국 50여 기 불탑에서 출현한 국보·보물 등이 함께 공개됩니다.
뿐만 아니라 **통도사 창건주이신 자장율사께서 중국 당나라에서 모셔와 1,400년만에 처음 공개되는 부처님 진신사리도 친견할 수 있는** 금생(今生)의 처음이자 마지막 기회가 될 것입니다.
불자님들은 모두 동참하시어 무량공덕을 쌓아 업장소멸하시기 바랍니다.

통도사성보박물관장 梵河 합장



1,400여 년 전 자장율사께서 모셔온 부처님 진신사리

◆ 사리 친견 안내 ◆

· 전시기간 : 2000년 6월 2일 ~ 7월 31일까지
· 친견시간 : 매일 오전 8시~ 오후 7시(사리친견 기간 중 휴관 없음)
· 입 장 료 : 개인 3,000원 / 단체 2,000원
· 예약안내 : 전화 0523) 384-0010, 팩스 0523) 384-0030(담당자 : 이승현)
(연락시 방문일시, 사찰이름, 예상인원, 인솔스님 법명을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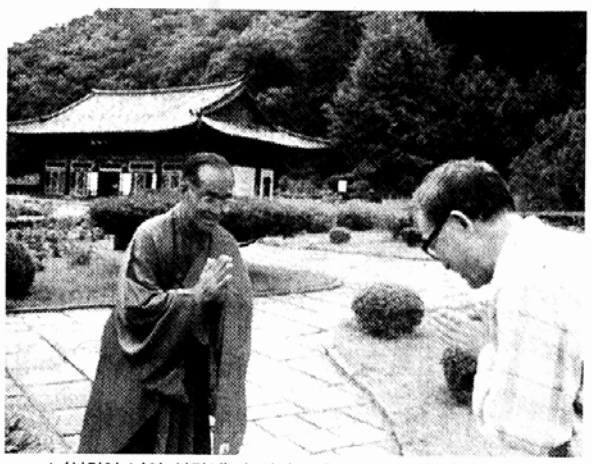
※ 사찰이나 신도단체에서 미리 예약하시면 특별요금 1,000원에 입장이 가능합니다.
※ 부산, 울산, 경주 등 가까운 지역에서 친견을 오실 때 30인 이상 단체일 경우 박물관 버스(45인승)를 운행해 드립니다.

"북한 불교를 읽자"…출판가도 '北風'

답사기·연구서 독자 손길 머문다

남북정상회담이 실현되면서 북한 불교에 대한 관심이 증폭되고 있는 가운데 출판가에도 북한 관련 불서들을 찾는 불자들의 손길이 이어지고 있다. 눈밝은 독자들은 이미 북한불교관련 불서들을 통해 북한불교에 바짝 다가서고 있다. 현재 북한불교의 수준과 현황을 알 수 있는 불서들을 어떤 것이 있을까.

출판가에 나와 있는 북한불교 관련 불서들은 크게 3부문으로 나뉜다. 사찰 및 문화유적 답사기, 북한불교 연구서, 그리고 북한동포의 실상 등에 관한 책들이다. 이 가운데 답사기가 주종을 이룬다.


◇〈산하여 나의 산하여〉의 저자 고은 시인이 북한의 최대 사찰인 보현사에서 북한스님과 인사하는 모습.

1925년 독일인 수도자 노르베르트 베버가 금강산의 사찰들을 둘러보고 쓴 〈수도자와 금강산〉(푸른숲)을 비롯 1940년대 북한불교와 1990년대의 북한불교 50년을 통해 북한불교의 어제와 오늘을 조명한 정태혁 교수와 법타 스님의 북한불교기행집 〈북한불교답사기〉(민족사), 유홍준 씨의 〈나의 북한 문화유산 답사기〉(중앙M&B), 고은 시인의 〈산하여 나의 산하여〉(중앙M&B), 풍수지리학자 최창조(전 서울대 교수)씨가 펴낸 〈북한 문화유적 답사기〉(중앙M&B) 등이 대표적이다. 또 최근 출간된 〈북한의 문화재와 문화유적〉(서울대출판부), 〈동독 도편수 레셀의 북한 추억〉(효형출판), 〈겸재를 따라가는 금강산 여행〉(대원사)을 비롯 〈나는 지금 금강산으로 간다〉(김영사), 〈북한의 지리여행〉(문예산책), 〈금강산 유람기〉(전통문화연구회) 등을 통해서도 북한불교의 일면을 엿볼 수 있다. 특히 북한 지역에 건립됐던 사찰을 총정리한 〈북한사찰연구〉(사찰문화연구원)와 지역별로 사찰과 사지, 그리고 문화재를 일목요연하게 소개하고 있는 〈북한의 사찰〉(일지사)은 북한불교의 현황을 총체적으로 이해하게 하는 만만치 않은 분량의 노작이다.

이들 책에서 소개하고 있는 사찰들은 대부분 한국불교사에서 큰 비중을 차지했던 곳으로 귀중한 문화재가 소장돼 있는 곳들이다. 하지만 분단 55년 사이에 신앙의 공간이 아니라 관광지나 휴식공간으로 전락한 점은 매우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답사기류의 책들이 북한의 사찰 현황 등 겉모습을 살핀 책이라면, 〈북한불교연구〉(민족사)는 북한불교 속살이라 할 수 있겠다. 1990년대를 전후한 북한불교의 현주소와 관련된 자료를 수집, 학문적으로 정리한 종합연구서이기 때문이다. 이 책에는 △북한 종교정책의 변화 △북한불교의 실상 △남북불교 관련자료 △북한의 현존 사찰현황과 국·보물급 문화재 등 방대한 내용을 수록돼 있다.

정토출판사가 통일마당 시리즈로 내놓은 〈통일로 가는길〉, 〈1999 민족의 희망찾기〉, 〈두만강을 건너온 사람들〉 등도 북한 불교와 관련해서 빼놓을 수 없는 책이다. 이 시리즈는 경제난과 식량난 이후 급속히 변모한 북한 동포들의 실상을 알 수 있게 하는 책들이다.

이밖에도 〈북한 고고학 미술사 용어집〉(백산자료원), 〈북한의 지리여행〉(문예산책) 등 그동안 창고에서 잠자고 있던 책들도 먼지를 털고 불자들의 손길을 기다리고 있다.

북한에서 불교는 공산화이래 침체 또는 폐쇄의 길을 걸었다. 그러나 불교의 자취는 아직도 적지 않게 남아 있다. 이는 불법이 체제와 이념을 초월한 것임을 알게 한다. 따라서 북한불교 관련 책들은 북한불교를 온전히 이해하게 함은 물론 남북한의 이질감을 해소하고, 통일의 기틀을 튼실히 하는 초석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김중근 기자(gamja@buddhapia.com)

'계학약전 주해' 출간

한국불교 최초 계율입문서

효탄스님, 현대어로 재구성



한국불교 최초의 계율 입문서인 석전 스님(1870~1948·박한영)의 〈계학약전주해〉(동국대역경원)가 출간됐다.

이 책은 〈사분율〉, 〈법망경〉 등 한국불교 전통 계율을 간추린 것으로, 효탄(동국대 강사) 스님이 등사본 원본을 입수, 현대적 언어로 새롭게 꾸몄다.

〈계학약전〉은 일본불교의 혼인·육식의 풍토가 은연중 한국불교에 스며들기 시작한 일제 강점기에 한국불교의 정체성을 지키는 데 일조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당시 한국불교계는 혼인·육식 등의 문제에 대해 '금지' '수용' 등의 이견이 서로 맞서고 있었다. 특히 만해 스님은 〈조선불교유신론〉 '불교의 앞날과 승려의 결혼과의 관계'에서 대처를 장려해, 이 논쟁에 불을 당겼다.

이 같은 상황에서 석전 스님은 누구나 읽고 전통의 계를 실천할 수 있도록 이 책을 펴냈다. 값 8천원.

오종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의천스님 생애-사상 청소년 눈높이로

차차석씨 '대각국사 의천'



천태종 개창자 대각국사 의천(1055~1101) 스님의 생애와 사상을 청소년들이 알기 쉽게 정리한 〈대각국사 의천〉이 나왔다.

밀알출판사가 불교사상가 전집시리즈 두 번째 권으로 출간된 이 책은, 의천 스님의 생애를 이야기 형식으로 구성하고 있다. 이와 함께 천태·화엄·원효 등에 대한 스님의 사상적 특징과 대표적 시(詩)와 저술들을 소개하고 있다. 이밖에도 부록으로 스님과 관련된 문헌자료도 수록, 청소년들이 의천 스님의 원융무애한 사상과 대중들에 대한 애정 등 모든 분야를 두루 살필 수 있는 데 부족함이 없다.

무엇보다 이 책이 눈길을 끄는 것은 시대를 초월한 스님의 삶이다. 시대적 한계를 극복하고 우리들 앞에 우뚝 선 선각자이자 수행자로써 의천스님의 삶은 청소년들에게 사표가 될만하기 때문이다. 여기에 읽기 편한 문장은 청소년들의 손길을 이끈다. 값 6천8백원.

김중근 기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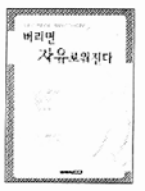
새로나온 책



▲선가귀감(서산대사 지음, 박현 해설)= 불교텔레비전에서 '바로 보는 동양학'을 강의하고 있는 박현 한국학연구소장이 서산대사의 수행지침서 〈선가귀감〉을 새롭게 풀었다. '노둣돌'이라는 이름으로 해설한 이 책은 이론적인 번역에서 벗어나 생활 속에서 이해할 수 있도록 했다. 동양의 유가와 선가의 지혜가 불가와 하나로 녹아 있어 여러 시각에서 서산대사의 말씀을 맛볼 수 있다는 것이 이 책만의 특징이다. 값 8천원.



▲세상의 어머니(유재기 지음, 혜림사)= 청담 효자상, 인천시 효자상, 국민운동본부 효자상을 수상, 효자 작가로 알려진 유재기 시인이 쓴 어머니에 대한 보은 시집. 이 시집은 한 어머니의 삶의 기록이다. 하지만 이 세상 모든 어머니의 삶과 무관하지만은 않다. 바로 이 시대의 모든 어머니들과 그 자식들의 이야기이기 때문이다. 값 7천원.



▲버리면 자유로워진다(방귀희 지음, 아세아미디어)= 사회·관습·성(性)·문학적 편견 버리기. '21세기는 희망적이다', '고향사람이 좋다', '나는 건강하다', '여성차별은 남성 때문이다' 등 우리가 버려야할 77가지 편견에 대해 신랄하게 비판한다. 글쓴이는 편견을 하나씩 벗어 던질 때 우리는 참다운 자유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한다. 값 7천원.



▲인디언의 복음(E.T 시튼 지음, 김원중 옮김)= 인간성을 황폐화시키고 자연을 파괴하는 오늘의 병든 문명을 향해 외치는 인디언의 메시지. 자연과 인간의 삶을 하나로 보는 인디언의 세계관과 자연관. 이 책은 이러한 인디언들의 삶과 철학이 담겨있다. 시애틀 추장의 연설문을 비롯 인디언 추장들의 어록을 모은 부록과 인디언들의 생활과 문화를 알 수 있는 삽화가 읽은 재미를 더해준다. 값 8천5백원.



▲팔자타령에는 음치가 없네(김원환 지음, 우리)= 사람들이 궁금해 하는 운명, 팔자 그리고 인생에 대해 바른 이해를 돕고 나아가 각자의 운명을 개척해 나가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김원환(수선회 부회장) 씨가 쓴 이 책은, 팔자란 무엇인가를 시작으로 팔자가 풀린 사람들, 행·불행은 팔자소관이 아니다, 팔자 고치기 심이요법 등 모두 8부로 구성돼 있다. 값 9천원.

▲새재왕건(김석태 편저, 윤솔)= KBS 대하드라마 '태조 왕건'을 정사 중심으로 재조명하고, 문경새재 촬영장 등 왕건의 발자취가 담긴 문경의 역사와 유물, 그리고 유적지를 소개한 관광 안내서. 값 7천원

◇금주의 베스트불서 10

책방 역시아문 집계

순위	도서명	저·편자	출판사
1	만행-하버드에서 화계사까지	현 각	열림원
2	선방일기	지 허	여시아문
3	법구경(작은경전1)	지 현	민족사
4	생활속의 기도법	일 타	효 림
5	마하르쉬의 복음	대 성	탐구사
6	마음을 비우면 세상이 보인다	달라이 라마	문이당
7	그물에 걸리지 않은 바람같이	전재성	선 재
8	위빠싸나 성자 아짠 문	김열권	불 광
9	티벳해탈의 서	파드마 삼바바	정신세계사
10	지대방 이야기	송광사 강원	법공양

도서 안내:(02)737-0695

미국 청년 동양의 영적진리 체험기

바가반 다스 '내가 만난 내 영혼의 성자들'



1964년 18살에 인도로 건너간 미국 청년 바가반 다스. 히말라야 일대를 돌며 수행의 길을 걷기 시작하면서 많은 성자들을 만난다. 인도의 큰 스승으로 불리는 카롤리 바바, 〈성자가 된 청소부〉로 우리에게 알려진 바바 하리다스, 정신세계 분야의 고전으로 꼽히는 〈지금 여기에 살라(Be Here Now)〉의 저자 람 다스, 초월명상의 창시자 마하리쉬 마헤시 등. 이 가운데 그는 카롤리 바바를 영적 스승으로 모시며 인도의 요가, 티베트불교, 샤머니즘, 초월명상 등의 체험을 한다.

바가반 다스의 자서전 〈내가 만난 내 영혼의 성자들(Be Here Now)〉(물병자리)은 이런 수행자들과 만난 체험담이다. 그리고 이 책에서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인도이야기이다. 그가 직접 체험하며 바라본 인도에 대한 다양한 모습이 들어 있기 때문이다.

글쓴이는 힌두-불교적 동양의 정신세계와 기독교적 서양의 정신세계를 종합함으로써 신앙의 조화로운 통합을 제시한다. 비슈누 석상을 참배하고, 명상에 잠기고, 좌도 탄트라에 입문하는 이야기들을 하면서도 항상 초월적인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책은 깨달음을 향한 길을 걷는 사람들이 겪게 되는 장애와 내적인 분열 등에 대해 자세히 묘사하고 있다. 그는 진정한 영성은 관습적인 신앙체계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다는 사실을 일깨워 준다. 진정한 영성은 초월적이란 게 그의 해석이다. 값 8천5백원. 김중근 기자

종석스님 '밀교학 개론' "밀교 궁금증 풀자"



한국불교의 의례 곳곳에 밀교적 요소가 많이 있지만, 여전히 낯설기만 하다. 심지어 이단시되는 경우도 있었다. 그러면 밀교의 진정한 모습은 무엇인가. 신간 〈밀교학 개론〉(운주사)은 그런 궁금증을 풀어주는 책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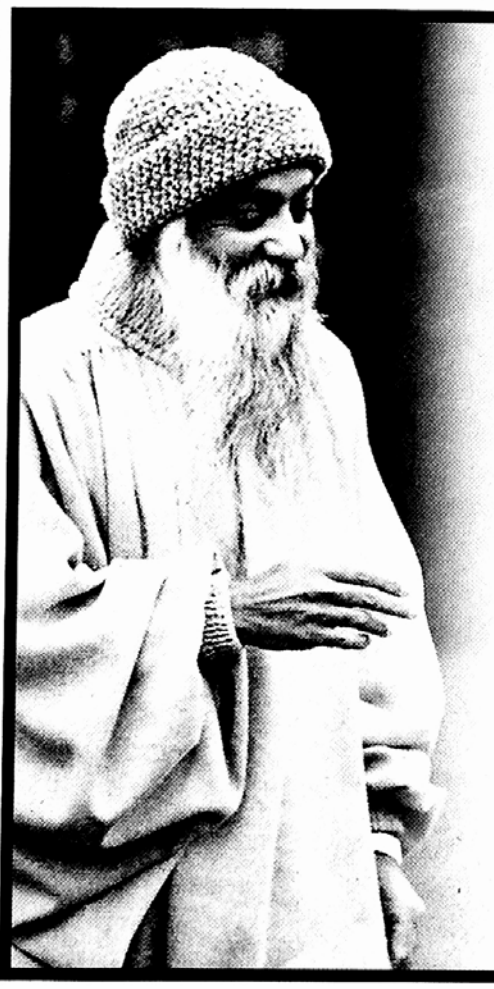
종석(중앙승가대 불교학과) 스님이 쓴 이 책은 밀교의 기본적인 내용들을 자세히 서술하고 있다.

밀교의 기본적 특징을 중심으로, 밀교가 탄생하게 된 동기와 시대구분 및 전파, 그리고 밀교의 실천도 등을 중점적으로 다루고 있다.

모두 7장으로 구성된 〈밀교학 개론〉은 1장에서 밀교의 핵심인 다라니에 대한 의미와 밀교의 전개과정, 그리고 다양한 탄트라에 대해, 2장에서는 밀교의 십주심교관론(十住心敎判論)을 천태종과 화엄종의 교판론과 비교하고 있고, 3장에서는 육대연기(六大緣起)사상으로 중심으로 밀교의 교리를 고찰하고 있다. 또 4장에서는 대일여래로 대변되는 밀교의 불신론을, 5장에서는 만다라의 의미, 성립배경, 특징 등과 함께 밀교의 대표 경전인 〈대일경〉과 〈금강정경〉의 내용을 살피고 있다.

이처럼 이 책은, 밀교의 모든 것을 담아내고 있지는 않지만 밀교에 대한 개략적인 윤곽을 그릴 수 있는 입문 및 개론서로 손색이 없다. 값 1만원.

김중근 기자



우주는 무엇이며 나는 누구인가?
그 해답을 찾아 떠나는 명상 여행

신간
Hyakujō. The Everest of Zen
禪의 최고봉 백장과 대주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8,500원

깨달음의 빛은 갑자기 다가온다.
그곳에서 우주 전체가 열릴것이다.
백장은 선원(禪院)을 최초로 정비한 것으로, 대주는 돈오(頓悟)의 사상을 설파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들의 선사를 일본의 시인인 바쇼의 짧고도 그림 같은 시와 함께 그려놓았다.

신간
The Great Secret
소중한 비밀 까비르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 손민규 옮김 | 값 11,000원

가슴 속에 사랑이라는
보이지 않는 신에 순종하라
이 강의는 까비르가 신을 향한 사랑을 노래한 열 편의 시에 대한 해설이다. 그는 말한다. 신의 얼굴을 찾지 말라. 신은 어떠한 것이든 좋다. 신은 사랑을 통해서만 체험할 수 있다.

신간
The Hidden Harmony
서양의 붓다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오쇼 라즈니쉬 강의 손민규 옮김 값 10,000원

삶은 끊임없이 흐르는 강과 같다.
모든 것은 변화하며, 변화만이 영원하다.
헤라클레이토스는 가장 심오한 영혼이며 진정으로 보기 드문 꽃이다. 그에게는 삶에 대한 어떠한 이론도 없으며 있는 그대로를 비출 뿐이다. 그가 역설적인 삶의 문으로 안내할 것이다.

21세기를 사는 지혜의 서

01. 탄트라 秘典 I
02. 탄트라 秘典 II
03. 탄트라 秘典 III
04. 탄트라 秘典 IV
05. 법구경 I
06. 법구경 II
07. 금강경
08. 반야심경
09. 탄트라, 더없는 깨달음
10. 십우도
11. 선심명
12. 하얀 연꽃(달마대사 강론)
13.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
14. 그대 가슴속의 꽃을 피워라 II
15. 禪, 빈 거울에 담긴 노래 | 마조
16. 마음을 버려라 | 임제
17. 오직 안으로 들어가는 길이 있을 뿐 | 조주
18. 텅 빈 가슴을 넘어서 | 남전
19. 법의 연꽃 | 이규
20. 禪의 최고봉 | 백장과 대주
21. 내 사랑 인디아
22. 소중한 비밀 | 까비르 강론
23. 명상, 처음이자 마지막 자유
24. 서양의 붓다 | 헤라클레이토스 강론

★ 색의 책은 출간 준비중입니다.
★ 책 제목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e-mail_taeilpub@chollian.net
tel_927-2831~4 fax_924-3236
태일출판사

폐허로 변하는 寺址

쌍사자 석등 옥개석 민가담장서 발견

전국 사찰터 5%만 문화재 등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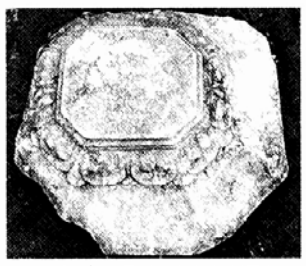
9일 경기도 여주군 고달사지 발굴 현장에서는 지난 9개월 동안의 발굴 성과를 공개하는 현장설명회가 열렸다. 이날 설명회에서는 99년 말에 발견된 옥개석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보관중인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의 옥개석임을 밝혀냈다. 그러나 석등의 지대석이 있던 바로 옆에서 이 옥개석이 뒤늦게 발견된 것은, 사지 지정 및 관리가 얼마나 허술하게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단적으로 보여준다.

93년 사적 제382호로 지정된 고달사는 고려 3대 선원의 하나로 불렸던 명찰이다. 여기서 발굴된 국가지정문화재만 국보 제4호 고달사지 부도를 비롯해 5점에 이른다.

문화유산의 보고 사찰. 하지만 지금은 흔적만 남아 방치되고 있다. 국보와 보물이 다수 발견되었을 뿐만 아니라 사적으로 지정된 곳이 이런 상황이니 비지정사지의 경우 더 말할 나위가 없다.

조계종 총무원이 97년부터 3년에 걸쳐 파악한 자료에 따르면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찰터는 2,141곳. 이 가운데 국가 사적 29곳 등 95곳만이 문화재로 등록되어 있다(문화재청 자료). 5%가 채 되지 않는다.

현행법상 사찰터가 문화재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지표조사를 거쳐야 한다. 그러나 겉핥기 식의 지표조사는 겉으로 드러난 것만을 조사하는 데 그칠 뿐 유구의 흔적을 제대로 파악하기는 힘들다. 고달사지의 경우 84년에 지표조사를 실시했으나 절터의 규모가 웅장하였을 것이라고 추측만 했지 정확한 사역조차 파악하지 못했다. 14년이 흐른 98년에야 본격적인 발굴을 위한 시굴조사에 들어갔다. 이나마 지방자치단체의 자기고장 가꾸기에 힘입어 가능한 일이었다.



◇최근 발굴된 쌍사자 석등(보물 제282호)의 옥개석.



◇전국에 흩어져 있는 사찰터는 2,141개. 이 가운데 95곳만이 지정사지다. 대부분 사지는 몇몇을 제외하곤 잡초에 묻혀 폐허로 바뀌고 있다.

서울 북한산 향림사지와 삼천사지. 둘다 고려시대를 대표하는 명찰이다. 향림사지는 거란군의 침입을 피해 고려 태조 왕건의 능을 두 번이나 이곳에 이안하는 등 고려왕실과 밀접한 곳이다. 삼천사지는 고려 법상종의 중심사찰로 전한다. 하지만 지금은 폐사가 되어 그 자취는 잡초에 묻히고, 탑은 붕괴된 채 어지럽게 흩어져 있다. 석물이 인근 계곡이나 능선에 방치되어 있기도 하다.

불교사적이나 학술적으로 중요한 사찰터 가운데는 개인소유나 문중터, 논으로 변한 곳도 있어 안타까움을 더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 관계자들은 "지정되지 않는 절터 가운데도 중요한 것들이 많다"며 "이런 곳들은 사적으로 지정해 더이상 유물이 파괴되는 것을 막아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그러나 문화재보호법에는 문화재 지정 주체는 있으나 지정신청 주체는 명시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점도 대부분의 사찰터를 폐허로 바꾸는 주요한 원인으로 작용한다. 때문에 지역 유적 정비사업이나 관광지 개발 사업을 제외하곤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적극적으로 문화재 지정에 나서는 경우는 거의 없다. 이같은 문제에 대해 동국대 문명대 교수(불교미술 전공)는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담당자의 경우 불교미술이나 건축 전공자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 사지의 의미와 중요성을 모르는 경우도 많다"며 "종단이나 인근사찰에서 지정신청을 하는 것도 한 방편"이라는 의견을 제시했다.

권형진 기자(jinny@buddhapia.com)

"사리신앙 자장율사 전파"

'사리신앙…' 학술회의서

장충식 교수 주장



한국의 사리 신앙의 근원은 7세기 자장 율사의 불사리 전래에서 찾을 수 있으며, 계단(戒壇)과 깊이 관련되어 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장충식(동국대박물관장) 교수는 16일 '사리 신앙과 그 장엄'을 주제로 열린 국제학술회의에서, "자장 율사에 의해 시작된 한국의 사리 신앙은 이후 계단수호의 역사로 전개되었는데, 이것은 사찰의 격을 높이는 결과를 가져왔으며 동시에 '공덕'의 개념으로까지 승화되었다"고 주장했다.

장 교수에 따르면 자장 율사가 이룩한 계단으로 인해, 통도사가 계율의 근본도량이 될 수 있었고 또 계단에 사리를 봉안함으로써, 사리가 곧 계단의 계체임을 말했다는 것이다. 즉, 사리 신앙은 계단의 중심을 이룩하고, 그 계단은 일명 사리탑이라는 명칭으로 오늘날에도 신앙의 대상이 된 셈이다.

국내 계단의 형태는 모두 고려시대 이후의 조형이 전래되고 있어, 신라시대 계단에 대하여는 그 원형을 알 수 없는 형편이다. 장 교수는 "다만 고려시대 계단의 형태에 준하여 볼 때, 감은사 동서석탑에서 발견된 금동사리구의 형태가 신라시대 계단의 원형으로 추정할 수 있다"고 말했다.

다시 말해 불국사의 다보탑과 같은 특별한 형식의 석탑이 하루아침에 바로 출현한 것이 아니라 신라 계단의 원형이라 할 수 있는 감은사 석탑 금동사리구와 같은 형식을 근거로 하여 조성될 수 있었다는 것이다.

장 교수는 "이후 사리 신앙이 불교의 신비주의를 극대화하였다는 평을 받을 수도 있겠으나, 이 역시 불교 신앙의 한 형태로 보아야 하며, 불탑미술과 같은 조형예술의 창조에 원동력이 되었음은 부정할 수 없다"고 결론 지었다.

이외에도 장 교수는 이번 논문에서 "자장율사가 중국 오대산에서 문수보살로부터 받은 게송은 화엄게송"이라고 밝혀, 자장율사가 단순한 계율종의 스님이 아니라 화엄교학의 스님임을 재차 강조했다.

통도사박물관이 16일 개최한 세미나에는 '경주 나원리 · 감은사지 석탑 내 발견 사리장엄구의 보존처리'(조유전 · 국립문화재연구소장), '한국의 불사리장엄'(강우방 · 국립경주박물관장), '중국 수 · 당대 사리용기'(양홍 · 중국 사회과학원 고고연구소 교수), '일본 불사리장엄'(가오다 사다무 · 일본 제총산대 교수) 등이 발표됐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대장경硏 세미나 '21세기 정보화시대의 문화변동'

"전자공동체 도덕성 불교서 찾자"

'21세기 정보화 시대의 문화변동'을 주제로 고려대장경연구소(소장 종림)가 개최한 세미나는, "가상세계는 이제 과학 · 예술 · 철학 · 종교 등 모든 영역에서 전환과 변혁의 장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는 자리였다.

자연과학과 인문학 분야의 여러 학자와 전문가 28명이 모여 발표와 논평으로 진행한 이번 세미나를 기점으로 '가상 공간'에 대한 불교계의 이해를 넓히고, 이에 대한 논의를 활발하게 전개할 수는 계기를 맞은 셈이다.

학자와 전문가들이 지적한 가상공간의 의미와 역할은 '인터넷 의료를 포함한 원격의료는 조만간 중요한 의료 방식으로 자리잡을 것'(권상옥 · 연세대), '온라인 게임 세계가 제2의 현실 세계가 될 날이 멀지 않았다'(김웅남 · 사이오닉스 게임 디자이너), '새로운 기술을 문화적 의미체계로 받아들이고 적응해 나가야 한다'(김민수 · 디자인문화비평가), '가상공동체라고 부르는 새로운 공간의 정착과 확산은 우리에게도 현실이 되고 있다'(박병기 · 전주교대), '가상공간은 문명의 혜택이라고 할 새로운 공간이다. 신대륙을 발견한 것에 비유할 수 있다'(소흥렬 · 포항공대) 등이다.

이와 같은 의미와 역할에 따르면 미래의 생활공간은, 현실적 공간과 가상적 공간이 어우러진 공간으로 분석된다. 그리고 이 같은 분석은 두 개의 다른 공간이 우리의 생활을 풍요롭게 가꾸어 줄 것이라는 믿음을 담고 있다.

반면 이동일(단국대 · 연극영화) 교수는 "테크놀로지와 전자매체를 어떻게 인간화하고 자연화하여, 문명의 흉기가 아닌 이기로 정착할 수 있는가 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며, 가상 공간의 역기능에 깊은 우려를 나타냈다.

이에 대해 종림 스님은 "불교계가 가상공간에 대한 기술적 논의만을 중시하는 배타성을 극복하고, 그 기술을 어떻게 사용할 것인지와 같은 도덕적 논의에 보다 많은 역량을 모아, 이 곳에서의 삶의 질을 고양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불교계는 더 이상 가상공간에 대한 무기력한 관객으로 남아 있어서는 안되며, 행위자가 되려는 의지를 회복해야 한다는 것이다. 가상공간은 네티즌의 전유물이 아니라 21세기를 살아갈 모두의 공간으로 자리잡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오증욱 기자



◇고려대장경 연구소가 9일 10일 한국방송통신대학에서 개최한 학술세미나중 '가상세계와 증교' 분과 진행 모습.

부다피아 사이버 기행

아트렉스 불교사이트

해외박물관 소장 성보 '구경'

해외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불교 예술품을 한번에 열람할 수는 없을까. 여기에 관심이 있는 불자 네티즌들이 있다면 아트렉스의 불교 사이트(artlex.com/ArtLex/b/Buddhism.html)를 클릭해 보자.

이 사이트는 월케스터 아트 · 메트로폴리탄 · L.A 카운티 · 기메 등 8개 주요 박물관에 소장된 아시아 유물 가운데 불교 예술품 40여종을 모아, 전문 큐레이터의 설명과 함께 생생한 그래픽 사진으로 제공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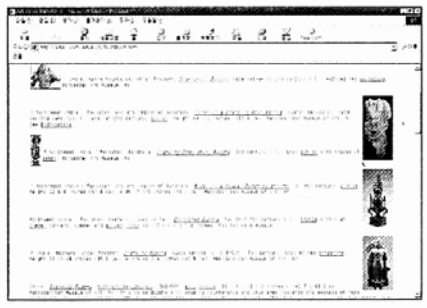
이 가운데 세계 고미술학계에서 주목하고 있는 유물로는 한국 보살상(기메 소장) 인도불상(웰케스터 아트 소장)과 중국 탱화(메트로폴리탄 소장) 등이 있다.

한국 탱화는 1888년 경북 성주 동광사에서 프랑스 민속학자 샤를 바라 씨가 가져간 천수관음보살상. 13세기에 조성된 이 보살상은 높이 90cm, 너비 90cm, 무게가 약 60kg으로 청동에 금이 입혀져 있다. 천수관음은 천안천비관세음 · 대비관음이라고도 불리며 양쪽에 각각 20개의 손이 있다.

인도 카트라스산에서 1985년 발견된 인도 불상은 2세기 경 사암으로 제작된 것으로, '석가모니 붓다(Shakyamuni Buddha)'라고 불린다. 얇고 긴 옷을 걸치고 있는 이 불상은 둥근 얼굴에 길다란 귀가 주목되며, 오른손을 들고 있는 형상을 하고 있다.

중국 탱화는 원나라 때의 작품으로 예술성과 종교성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푸른색과 흰색의 조화를 통해 부처님의 숭고한 가르침을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오종욱 기자(gobaoou@buddhapia.com)



포항 오어사 유물전시관 개관

신라때 창건한 천년고찰 포항 오어사(주지 학나)에 유물전시관이 들어섰다.

사찰 입구에 세워진 유물전시관은 13평 규모의 단층 한옥으로 원효대사 삿갓과 수저를 비롯해 법화경 4점, 오어사 사적지 2점, 대웅전 상량문 등 모두 20여점의 유물을 상설 전시하고 있다.

전시유물 가운데는 특히 지난 95년 오어지 준설공사 중 발굴돼 보물 제1280호로 지정된 고려동종이 눈길을 끈다. 신라동종의 주양식을 계승한 이 동종은 조성연대가 분명하고 보존상태가 양호할 뿐 아니라, 양각으로 새겨진 각종 장식문양이 우수한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오어사는 국가와 시에서 예산을 지원받아 1월부터 공사를 시작, 5월말 마무리작업을 마치고 6월부터 전시에 들어갔다. 개관식은 9월에 있을 예정이다.

신라 진평왕때 자장율사가 창건한 오어사는 원효, 혜공, 자장, 의상 등 신라 고승들이 머물렀던 곳으로 유명하며, 조선 영조때 중건한 대웅전은 경북도 문화재 제88호다. 권형진 기자

수련회와 글쓰기를 통해 생활불교에 힘쓰고 계신

지묵스님의 글모음집

산승일기



《산승일기》는 그림으로 비유하자면
절집 스님들의 생활에 대한 소묘라 할 수 있다.
선방생활, 총무 소임, 여름철 수련법회 원장 등을
지내며 스님들은 물론 재가 신자들과 접촉이 잦았던 지묵스님은
그간의 절집에서의 경험을 넉넉한 입심으로 풀어낸다.
법정, 성법명, 종철 스님의 이름과 관련한 일화와 전강, 구산, 고암 등
큰 스님들의 비화 등 얘깃거리가 풍부하게 담겼다.
송광사 여름 수련회에 참여했던 사람들의 갖가지 사연을 담은
'여름 수련회' 편은 올 휴가철에 '짧은 출가'를 꿈꾸는 사람들에게
흥미있는 소재가 될 듯하다.

- 경향신문 -

우리출판사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충정로 3가 1-38 전화 (02)313-5047, 5056 팩스 (02)393-9696

신국판 / 288쪽 / 8,000원

정휴스님 신작수상집

적멸의 즐거움

禪師들의 入寂과 임종게를 중심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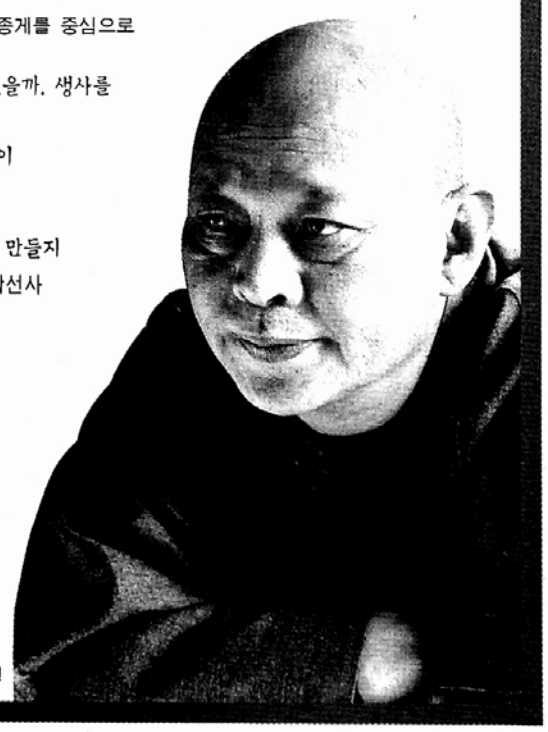
죽음이 이처럼 아름답고 자유스러울 수 있을까. 생사를
초월한 선사들은 앉아서 열반하거나
서서하였고 또 걸어가다가 입적하여 열반이
즐거움이 되게 한 감동적 이야기.

내 몸에서 사리를 수습치 말라. 그리고 부도와 탑을 만들지
말고 시신은 산 짐승들의 먹이가 되게 하라…… 청활선사



육신이 불에 타 흙으로 돌아가 근원이 된다
흙으로 돌아가 나는 다시 돌이 되어 태어나고
혼을 키우는 그릇 속에서
천년을 산다
죽는 것이 어찌 즐거움이 되겠는가
삶도 죽음도 적멸이 되어야 즐거움이 되는 것을
부도는 안으로 적멸을 키우면서
천년을 살고 있다

- 적멸의 즐거움 본문 중에서



우리출판사 전화/313-5047 팩스/393-9696

신국판 / 240쪽 / 7,000원

술 지나치게 마시지 말라

혜능스님의 '재가자 위한 계율' 〈22〉

오계상경-16

알콜 중독되면 몸과 마음 황폐

과음은 게으름 · 비행 등 불러

근본 오계의 마지막 다섯번째는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이다. '술을 마시지 말라'는 것은, 정신적인 나태를 유발하는 것, 즉 취하게 하는 것을 섭취하지 말라는 것이다. '불음주'는 보통 음주를 금지하는 것으로 이해되지만, 술을 마시는 그 자체보다는 그로 인한 정신적인 해이를 방지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는 계이다. 따라서 술이든 약물이든 마약이든 환각의 작용을 일으키는 모든 것을 금하는 계이다.

음주의 해악에 대해서 〈숫타니파타〉 '담미까경'에 다음과 같이 경계하고 있다. "술을 마셔서는 안 된다. 이 가르침을 기뻐하는 재가자는 남에게 술을 마시게 하거나, 남이 술 마시는 것을 묵인해도 안 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는 것임을 알라. 그러나 어리석은 사람들은 취함으로써 나쁜 짓을 하고, 또한 남들로 하여금 게으르게 하고 나쁜 짓을 하게 한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고 미치게 하며 어둡게 하는 것인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이를 즐기고 있다."

술은 사람을 취하게 하여 지혜를 흐리게 하는 음료이며 중독성을 갖고 있다. 그러나 술은 술 그 자체보다도 술을 마심으로써 유발되는 나쁜 결과 때문에 마셔서는 안 되는 것이다. 또한 여러 가지 중독성 약품도 마찬가지다. 술과 약물은 불화, 다툼, 가정 내 폭행을 야기하기도 한다. 가정 파탄도 흔히 술이나 약물중독 때문에 일어나며, 이에 따른 사회 문제들도 생겨나게 된다.

경전에는 습관적인 음주나 약물 복용이 자제력을 잃게 하고 지혜를 흐리게 하여 건강을 해치고 나쁜 평판을 얻게 한다고 쓰여져 있다. 재가자의 윤리를 잘 설명하고 있는 대표적 경전인 〈교계싱갈라경(선생경)〉에 술을 마시는 허물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말하고 있다. "싱갈라여! 술은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이니 술과 같은 것에 빠져 지내면 다음과 같은 여섯 가지 과오가 생긴다. 지금 당장 재산의 손실을 입게 되며, 다툼이 잦아지며, 쉽게 병에 걸리며, 악평을 듣게 되며, 벌거숭이가 되어 치부를 드러내게 되며, 지혜의 힘이 약해지는 것이다. 이러한 과오는 술이나 게으름의 원인이 되는 것에 빠져 지낼 때에 생기는 것이다."

〈비바사론〉에 전해지는 우화를 보자.

옛날에 한 우바새가 있었는데, 성품이 어질고 오계를 받아 잘 지켜 범하지 않았다. 어느 날 우바새가 멀리 여행을 갔다가 돌아오니 집안 사람들은 모임에 나가고 없었다. 우바새는 갈증이 나서 그릇에 담아 놓은 술을 물인 줄 알고 마셨는데 결국 불음주계를 범하고 말았다. 이때 이웃집 닭이 그 집에 들어와 곡식을 쪼아먹는 것을 보고 몰래 잡아먹으니, 다시 도둑질과 살생 두 가지 계를 범하였다. 이때 이웃집 여인이 닭을 찾아 왔는데 취한 김에 강제로 강간을 하니 다시 음계를 범하였다. 이웃집에서 관에 다 고발하였는데 바른대로 진술하지 않아서 망어계를 범하게 되었다. 평소 성품이 어질고 계를 잘 지키던 우바새가 술을 마심으로 해서 결국 나머지 다른 계도 범하게 되었다는 것이다.

이 이야기는 술이든 약물이든 그것을 섭취하면 열정을 부추겨 마음 상태를 흐트러뜨리고, 또다른 문제를 유발한다는 것을 잘 말해 주고 있다.

알코올 중독과 약물 남용은 현대 사회가 안고 있는 절박한 사회 문제이다. 술과 약물에 중독이 되면 심신이 모두 황폐하게 된다. 생리적인 측면에서도 음주는 소량으로도 성인의 뇌세포에 치유될 수 없는 손상을 초래할 수도 있고, 많은 양일 경우 신체의 주요 기관을 망가뜨리며, 약물 남용은 이보다 더 치명적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오늘날 대부분의 범죄 사건들이나 치명적인 교통사고는 근본적으로 술이나 약물 남용에서 발생한다. 우리는 사람들에게 술이나 약물이 얼마나 해로운지, 또한 사회생활에서 부딪치게 될 유혹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의지와 성품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를 납득시키고 그에 대한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술이나 약물 등의 덫에 걸려드는 것은 성품이 나약한 탓이기도 하지만, 불교는 술이나 약물의 해독을 확실하게 인식하였던 까닭에 기본 계율 중에 불음주계를 포함시키고 있는 것이다.

〈대애도비구니경〉에 다음과 같이 말한다. "술은 독약, 독수, 독기가 된다. 모든 잘못의 시초이며 모든 악의 근본이고, 현명함을 쫓아내고 성스러움을 깨뜨리며, 도덕을 부수고 망령된 행위로 재앙에 이르러 화를 부르는 근본이 된다."

불음주계는 붇자의 가장 기본적인 계율의 하나일 뿐만 아니라, 부처님의 가르침 속에서 이처럼 경계하고 강조하여도 잘 지켜지지 않는 계이기도 하다. 한번 시작한 술은 과음이 되고 과음이 되면 모든 계율을 깨뜨리기 쉽기 때문에 항상 조심하라는 부처님의 가르침이다.

〈해인총림 율원장〉

"마음 맑고 밝으면 윤회 벗어날 수 있어요"

법회증계

인천 보리회

〈2000년 6월 11일〉



원광스님

〈삼장불교 문서포교원장〉

인과응보 원리 이해하고 분별하는 마음 내지말며 절제해야 불교인 삶

부처님께서 열반을 앞두시고 이르셨으니 "수행자가 마음을 스스로 열면 앉아서 생각만 하여도 곧 천상의 일을 볼 것이며, 인간의 일을 다 알 것이며, 또한 지옥이나 아귀, 축생들의 좋고 나쁜 세상에 태어나는 것을 보는 것이 마치 맑은 물 속에 있는 모래와 돌들이 어떠한 모양을 가지고 있는지를 사실대로 볼 수 있는 것과 같느니라. 물이 맑아야 물 속의 일을 볼 수 있듯이 마음이 깨끗하고 맑아야 윤회를 벗어날 수 있느니라. 물이 흐리면 물의 깊고 얕음이나 바닥을 볼 수 없는 것처럼 마음이 깨끗하지 못하고 맑지 못하면 세상을 벗어나는 길을 얻지 못하느니 이는 마음이 더럽고 흐리기 때문이니라"고 〈불반니원경〉 권상에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불교의 핵심은 마음의 문제를 해결하여 진정한 행복과 평안을 성취하는 길을 열어주는 것입니다. 인간의 생활에 있어서 마음의 문제란 어떤 것입니까? 부처님이 여러 경전에서 밝힌 바에 의하면 인간의 마음에 어리석음이란 이름의 안개가 짙게 뒤덮여 있는 것입니다. 어리석음으로 뒤덮여 있는 마음은 현실을 올바로 볼 수 없기 때문에 늘 잘못된 판단과 행위를 발생시켜서 인생을 어렵게 하고 실패를 거듭하게 되고 따라서 불안과 불행의 고통에 빠지는 것이지요.

그러므로 사람이 생활의 평안과 행복을 진정으로 성취하기를 원한다면 무엇보다도 먼저 자기의 마음을 맑게 하고 어둡게 닫혀 있는 마음의 문을 활짝 열어야 합니다.

우리 불교인들은 부처님께서 가르치신 방법에 대하여 깊은 이해와 믿음을 가지고 생활에 실천하여 마음을 뒤덮고 있는 어리석음을 걷어내야 합니다. 이 어리석음이란 무엇입니까? 많은 설명이 있지만 그 주요 내용을 보면 자기의 행복만을 생각하고 남의 행복은 생각하지 않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인과응보의 원리를 모르고 제멋대로 생각하고 행동하는 것이 어리석음이요, 욕심과 성질을 절제할 줄 모르고 인내할 줄 모르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또한 자기의 마음을 건강하게 지키지 못하고 상처를 만들고 허약하게 만드는 것이 어리석음인 것입니다. 이러한 어리석음은 누가 만들어 주는 것이 아니요, 그 실체가 없어 허망한 것입니다. 스스로 깨우치고 마음을 추스리면 금방 없어지는 것이 어리석음입니다.

불교신자는 이러한 부처님의 가르침에 유의하고 큰 깨우침이 있어야 합니다. 그리하면 인간의 마음은 원래가 막힘이 없고 더러움이 없으며 어둠이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시간에 상관없이 막바로 제 모습을 드러내게 됩니다. 인간의 본래 마음은 부처님의 마음 바로 그것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부처님의 마음은 열린 마음이며, 맑고 깨끗한 마음이며, 찬란히 빛나는 밝은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바로 우리 인간 자신의 마음이라는 사실을 깨달으면 세상 모든 것이 한눈에 비쳐 옵니다. 왜냐? 세상의 일이라는 것이 모두가 마음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늘나라의 일도, 인간세상의 일도, 심지어 지옥의 일까지도 우리 중생의 마음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은 다름 아닌 열린 마음이요, 밝은 마음이며, 맑고 깨끗한 마음입니다. 열린 마음이란 모든 것을 받아들여 소화시키고 거부하지 않는 마음이요, 밝은 마음은 평등의 원리를 알고 분별하지 않는 마음이요, 맑고 깨끗한 마음은 티가 없고 미련이 없는 마음입니다. 이러한 마음을 확고하게 가지고 세상을 살아가면 안되는 일이 없고 의심할 일이 없어지기 때문에 세상만사가 다 내 마음 안의 일임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불만과 불안이 사라져서 행복과 평안을 되찾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교인의 삶입니다.

정리=강지연 기자 (jygang@buddhapia.com)

30개 불교단체 · 5천여 불자 활동

세계의 불교학 〈22〉 스웨덴

70년대 이후 티베트 불교 연구 주류

젊은층 '열린 사상 좋다' 불교에 끌려



◇사회봉사 활동에 전념하고 있는 스웨덴 불자들.

스웨덴 불교학은 60년대를 기점으로 스웨덴의 명문 스톡홀름 대학과 웁살라 대학에서 학문적 접근이 활발해졌고, 이 과정에서 나온 연구 성과물과 남방계 스님들의 노력에 힘입어 서서히 대중 속으로 파고들기 시작했다.

현재 스웨덴에는 30여 개의 불교단체들이 활동하고 있으며, 5천여 명의 불교 신자들이 이들 단체의 활동에 적극 동참하고 있다. 불교신자들은 20대에서 70대까지 다양하며, 남녀 성별도 고루 분포되어 있다. 특히 스웨덴 정부는 불교를 종교로 인정하고 있어, 학교 교육이나 고교졸업시험에서도 종교학 과목에 불교를 선택할 수 있다. 이외에도 불교 관계 서적이나 잡지 출판물은 대부분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영어 구사에 능통한 스웨덴인이 많기 때문이다.

스웨덴의 주요 불교 단체는 '티베트 학교 문학회', '불교협회', '티베트 불교회' 등이다. 12년 전 스톡홀름에 설립된 티베트학교 문학회는 10여 개의 지방 지회를 두고 있는 스웨덴의 대표적인 불교단체다. 여기에는 8백여 명의 회원들이 신행에 열중하고 있는데, 현재 티베트 어린이들을 위한 두 번째 직업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다. 스웨덴과 티베트 간의 민간 차원의 교류 관계를 사실상 주도하고 있는 셈이다.

'불교협회'는 스웨덴인들 사이에 불교가 어느 정도 파급되어 있는지를 가늠하게 하는 단체다. 불교협회는 정기 참선 및 채식 강좌를 개설해 놓았는데, 일반인들로부터 상당한 관심을 끌고 있다. 이와 같이 참선과 채식이 생활화되어 있는 스웨덴 불자들의 모습은,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한 철저한 인식과 함께 환경친화적인 생활로 그것을 적극 실천하는 태도를 보여준다.

'티베트 불교회'는 스웨덴 제2의 도시라 불리는 외떼보리의 조용한 주택가에 위치해 있다. 10여 년 전에 설립된 이 단체는 현재 하겐포스(Susanne Hagenfors) 회장이 이끌고 있는데, 회원의 직업과 연령층은 대학생부터 60대 중반의 전직 교사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특히 '티베트 불교회'는 외떼보리 지역의 젊은이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교리 공부와 수행을 가르치고 있는데 수강생들로부터 폭발적인 관심을 모으고 있다고 한다. 최근에는 전화번호부에 실려 있는 티베트 불교회를 보고 문의한 후 곧바로 법회에 참석할 정도로 호응을 받고 있다. 외떼보리 지역에서의 불교에 대한 관심도가 그만큼 높아졌다는 것을 확인해 볼 수 있는 대목이다.

이 같은 경향은 70년대 들어서면서 스웨덴에서 불기 시작한 티베트 불교에 대한 관심과 무관하지 않다. 이에 대해 스웨덴의 사회학자들은 첫째는 티베트 스님과 법사의 유능함과 훌륭함 때문이며, 둘째는 티베트 불교 스님들의 유연한 사고와 수행이 상좌부 불교와 차별적이기 때문이다. 셋째는 티베트 불교문화와 스웨덴의 전통 문화의 유사성을 갖고 있고, 넷째는 다양한 종파가 스웨덴인들에게 흥미를 끌었기 때문이라고, 그 원인을 분석하고 있다.

사회학자 켈 크리스틴 박사는 "젊은 세대들은 불교는 물론 동양문화 전반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다"며 "불교철학은 매우 개방적이고 유연해 기존의 기독교적 세계관과 합리적인 서구 사고방식에 몰두한 청소년들에게 큰 변화를 주고 있다"고 강조한다.

스웨덴의 젊은이들이 기존의 서양 지식에 대한 회의와 함께 자성의 목소리를 내며 자연스럽게 불교로 눈길을 돌렸고, 이후 스웨덴 불교는 서서히 대중 속으로 들어가기 시작한 것이다.

오증욱 기자 (gobaoou@buddhapia.com)

백중기도 및 영가천도 법보시용으로 매우 좋은 책

일타큰스님의 유고법문집

불자의 마음가짐과 수행법

신국판 / 값 5,000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
어떻게 닦고 익힐 것인가?

이 책은 일타큰스님께서 마지막으로 남기신 유고집으로, 모든 불자들이 불자로서 지녀야 할 마음가짐, 참선 · 염불 · 간경 · 주력의 불교 4대 수행법 등을 갖가지 비유와 함께 자상하게 설하여 불자들의 삶과 공부에 큰 도움이 되도록 하였습니다.

"기도는 어떻게 해야합니까?"

일타큰스님의

생활속의 기도법

4×6판 / 값 3,500원

불교계 최대의 베스트셀러!

여러가지 상황에 따른 기도 방법은 물론 기도할 때 지녀야 할 마음가짐까지, 큰스님 특유의 자상한 문체로 예화(例話)를 섞어 쉽고 재미있게 엮었습니다.

가정의 평화를 위한 기도, 입시 합격을 위한 기도, 수행인의 기도, 영가천도를 위한 기도, 제사 때의 기도 등 일상생활에서 행할 수 있는 구체적인 기도 방법이 모두 담겨 있습니다.

"영가는 어떻게 천도하나요?"

우룡큰스님의

영 가 천 도

4×6판 / 값 3,500원

영가의 장애를 느끼십니까?
돌아가신 영가를 제대로
천도해 드리지 못하셨습니까?

영가천도의 필요성과 기본자세, 염불천도, 독경 · 사경천도법, 사십구재, 낙태아 천도 등 영가천도에 관한 모든 궁금증을 우룡큰스님의 자세한 법문으로 풀어드립니다.

지장보살본원경

부록 / 지장보살예찬문



김현준 편역
신국판
값 5,000원

이 책은 지장기도를 하는 분들을 위해 특별히 만들었습니다. 지장경 독경 및 지장보살예참과 염불을 함께 할 수 있도록 엮은 이 책을 펼쳐들고, 각 장 앞에 제시된 기도법에 따라 기도를 하게 되면, 지장보살의 가피 속에서 틀림없이 영가천도 · 업장소멸 · 소원성취 · 향상된 삶을 이룩할 수 있게 됩니다.

감히 권하옵니다. 이 책에 의지하여 기도를 해보시기를!

지장신앙 · 지장기도법

Ⅰ. 지장보살, 어떠한 분인가?
- 대원의 본존
- 무한자비와 파지옥의 지장보살
- 현세의 행복과 지장보살

Ⅱ. 지장기도법
- 생활속의 지장기도
- 영가천도기도법
- 종합적인 지장기도



김현준 지음 / 4×6 판 / 값 3,500원

대원(大願)의 본존(本尊)인 지장보살의 여러 측면과 영가천도기도법, 생활속에서 할 수 있는 여러가지 지장기도법에 대해 자세히 설명한 이 책은, 지장신앙 및 지장기도의 훌륭한 지침서가 될 것입니다.

법보시를 원하시는 분은 출판사로 연락주십시오.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도서출판 효림 · 전화 : 587-6612 · 팩스 : 586-9078

시방세계

창업도량을 이루는 모든것 태영산업이 함께 하겠습니다.
TEL : 02)433-9544
FAX : 02)433-9543
H.P : 019)278-1119

♠ 사찰 이정표
전심교통부 지침 규격으로 제작
♠ 사찰 안내 게시판
■전주용 간판 ■게시판 ■옥간판
♠ 화재안정 모렉스
사찰화재 방지용 모렉스를 제작하여 본사 작업 사람은 무료로 드립니다.
(규격 4cm×8cm)



◇장애청소년들이 직접 작성한 원예활동 학습노트와 화분.



◇자신이 신던 신발을 활용해 만든 꼬마정원.



◇드넓게 펼쳐진 자연속에서 자신들이 직접 키운 콩을 수확하며, 생명의 신비와 삶에 대한 희망을 발견하는 장애청소년들.

자연의 품에서 '삶의 질' 쑥쑥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원예치료모임'

심고 가꾸고 김매고 열매따고
'생명체의 성장' 지켜보면서
집중력도 키우고 창의력도 향상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상호의존성의 그물망으로 형성되어 있다. 그 그물망에서 한 올이라도 흐트러지면 모두가 흐트러진다. 화엄에서는 이러한 세상, 우주를 법계(法界)라고 표현한다. 자연과 인간은 그 화엄 법계의 그물망에서 반짝이는 보석과 같은 존재다. 우리는 이 화엄의 세계관을 통해 우주의 존재방식이 눈에 보이는 것보다 훨씬 더 넓고 복잡한 상호의존성에 기초해 있음을 알 수 있다. '우주적 생태관'이라 할 수 있는 화엄의 가르침을, 자연과 인간의 교감을 통해 현실세계에서 실천하고 있는 곳을 찾았다.

13일 오후 2시 수원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앞마당. 교육이 가능한 정신지체장애와 다운증후군 장애청소년 20여명이 흥미로운 활동을 준비중이다. 오늘은 연구소에서 실시중인 원예치료 모임 1학기 마지막 수업시간. 저마다 직접 키운 식물들을 소개하며, 그동안 자신의 노력이 이룬 성과들로 푸듯해 한다.

"처음에 씨앗만 하던 것이 제가 물을 주고 햇빛도 받아서 이만큼 컸어요!" 경소 수줍어 말도 잘 하지 못하던 김보람 양(14세)은 오늘 모처럼 자신이 직접 키운 콩 열매를 들어 보이며 활짝 웃었다.

"네, 그래요. 식물과 인간, 우리 모두는 다 같은 생명을 가진 고귀한 존재예요. 우리는 그것을 깨닫기 위해 지난 4개월 간 열심히 식물에 사랑을 주고, 물도 주고, 거름도 준 거예요." 원예치료 모임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가 경기도 장애인협회와 함께 장애청소년의 지능과 행동발달 향상을 위해 지난 3월 처음 시도한 것이다. 매주 화요일과 금요일 오후 2시~4시까지 실시되는 이 프로그램은 원예연구소 김형득 연구사를 비롯, 최영애, 권혜진씨 등 8명이 이끌어 간다. 이 활동을 토대로 원예치료 모임은 장애아를 위한 원예치료 프로그램 표준 활동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애청소년들은 원예활동을 하며 학교라는 닫힌 공간에서 벗어나, 생명을 가진 모든 존재에 대한 특별한 의미를 배운다. 씨앗심기, 김매기, 비료주기, 열매따기 같은 활동을 통해서 식물성장에 필요한 환경조성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생명체를 키우는 과정을 통해 사랑을 주는 법을 익히고, 자신의 정체성을 찾게 된다. 또 식물채집, 꽃바구니 만들기, 화분포장하기 등을 통해서는 자기표현과 창의력, 집중력 인지력 향상을 도모하게 된다.

원예치료에 있어서의 원예는 모든 식물을 포괄한다. 일반적으로 원예치료란 '원예활동을 통해 사회적, 교육적, 심리적, 혹은 신체적 적응력을 기르고 이로 말미암아 육체적 재활과 정신적 회복을 추구하는 것이며, 넓게는 환경회복과 삶의 질을 높이기 위한 활동'이라고 설명된다.

삶의 질을 높이는 활동이란 어떤 것일까? 우선 식물을 돌보는 일은 스트레스로 꽉 찬 일상에서 땀은 휴식을 제공한다. 식물과 함께 있으면 안정감을 느끼고 위로를 받는 효과가 있기 때문이다. 식물은 자연적이고 예측 가능한 주기를 갖는데, 이는 가변적이고 돌발적인 일들로 가득한 우리들의 일상에 안정을 준다. 또 식물은 성장하고 꽃피는 변화를 통해 인간을 자극하고, 인간의 행위에 정직하게 반응할 뿐 아니라 조금의 해로움도 끼치지 않는다. 식물은 말대꾸하는 적이 없고, 떠들지도 않는다. 그러나 사람이 주는 관심에는 쉽게 반응한다. 식물은 판단을 내리지 않는다. 우리가 누구이건, 직업이 무엇이건, 무엇을 하든 상관하지 않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식물은 우리가 주변환경을 바꿀 수 있게 한다. 우리는 때때로 주변세계에 대한 결정권이 너무 적다고 느끼기도 하는데, 원예활동은 보다 작극적으로 자신의 주변세계를 바꿀수 있게 도와준다.

식물의 생육과정을 보고, 직접 키우고, 느끼고, 선물하고, 표현하고 하는 활동을 통해 사회로부터, 인간으로부터 소외되었던 장애청소년들이 사회와 인간과 자기 자신의 가치에 대해 눈뜨는 것이다. 그 과정에서 이루어지는 치료란 약물과 주사바늘로 이루어지는 병원의 그것과는 전혀 다른 차원의 것이다. 자연과 인간의 육체적 정신적 교감을 통해 만물은 한 뿌리의 형제라는 사실을 체득하고 자신을 포함한 모든 존재에 대한 대긍정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원예치료. 그것은 단순한 치료가 아니다. 원예치료사와 장애청소년, 장애청소년과 장애청소년, 그리고 이들과 자연과의 상호작용을 통해 이 드넓은 우주 법계의 충만한 생명력을 새삼 깨닫게 이끌어 주는 우주적 가르침이자, 그동안 우리가 얼마나 자연으로부터 주변으로부터 소외되어 왔는지, 우리의 삶이 얼마나 많은 존재들과의 상호관계속에 생멸(生滅)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불이(不二)의 가르침이다.

글=이은자 기자(ejlee@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ybgo@buddhapia.com)





원예치료연구사 김형득씨

"원예치료 활용 무궁무진"

원예치료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있는 김형득 연구사(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초본화훼과)의 원래 업무는 카네이션 육종, 품종개발이다. 오래 전부터 원예치료에 관심을 가져오다 지난해 개인적으로 원예치료 모임을 시작했고, 올해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로부터 인정을 받아 정식 프로그램으로 채택됐다.

"처음에는 막막했어요. 생각은 있는데 실제로 현장에서 실천하기가 쉽지만은 않았거든요." 김 연구사는 "현대사회가 필요로 하는 복합적인 치료법이 바로 원예치료"라고 확신한다.

치료는 의사만 하는 거라는 식의 사회적 편견이 아직 존재하지만 인간과 자연에 대한 이해와 애정 없이는 진정한 치료는 할 수 없다고 믿기 때문이다. 원예치료를 위해 김 연구사는 의학지식도 틈나는 대로 공부하고, 명상으로 매일 아침 자신을 가다듬으며 자신의 심신을 자연의 상태로 유지하기 위해 애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공식적인 원예치료사가 없다. 자격증 제도도 없을 뿐더러 원예치료라는 개념 자체가 아직은 생소하기 때문이다. 98년 한국원예치료연구회가 처음 결성됐고, 고려대와 건국대가 사회교육원에서, 단국대는 대학원에서 원예치료학을 강의하는 정도다. 최근 몇 년 사이 서구의 원예치료 이론을 배경으로 실제 활용하는 작업이 곳곳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가운데 하나가 농촌진흥청 원예연구소 원예치료 모임이다. "미국의 경우 초등 중등 고등 단계별 코스별 원예치료사가 따로 활동합니다. 원예치료의 활용분야도 정신 및 지체장애자, 뇌졸증 환자 회복, 치매노인 치료, 알콜중독 환자, 미혼모, 사회일탈자를 위한 치료 등 무궁무진하지요"라고 설명하는 김 연구사. 보다 많은 사람들이 원예치료를 통해 자연과 친해지고, 인간에 대한 이해와 사랑을 넓혀나가길 희망하고 있다.

이은자 기자

★ '시방세계'는 불자들의 관심과 시선이 가는 법계소식을 집중 조명합니다. 독자 여러분의 제보 · 문의를 기다립니다. 전화 (02)722-4162 팩스 (02)722-0698

새천년 - 우리 몸에 부족한 氣를 충전시켜주십시오!!

※ 氣가 좋으면 運도 좋아지고 건강도 좋아집니다. 가까운 분들께 선물해 주십시오 ※



단전 건강운동기
· 오래된 숙변이 힘차게 쏟아집니다.
· 장속에 독소가 빠져 피로가 없어집니다.
· 잠이 잘오고 단전에 힘이 솟아납니다.



氣의 신비감 피라미드
(KBS2-TV 체험사례)
· 피라미드내에서 명상효과(박병운박사)
· 식물성장과 병충해 방지효과(민병성씨)
· 처형암으로 수십년 고생하다 풀아짐(주부 장양심)
· 뇌막염아기 건강이 호전(이호준)



순금도금으로 효과가 더욱 좋아진 파워봉
(침전체 순금도금)

히란야는 우리 몸에 건강과 행운을 가져다 줍니다



· 전화를 주시면 氣를 Check 해 드립니다.
· 카다로그 氣측정기 무료우송
· 달마도 순금카드, 액자 주문 받습니다.
· 성인병에 대한 최신정보 (고혈압, 당뇨, 간, 장, 비만) 책자우송

韓國氣研究院 ☎ 02)455-6944 , 02)453-5851 /Fax 02)454-0646 우체국 014092-0035728 (예금주 : 김 건순)

다시 푸는 경서

달마 관심론(觀心論) ③

如是三毒 於一本體
여시삼독 어일본체
自爲三毒 若應現六根
자위삼독 약응현육근
亦名六賊 六賊者卽六識也
역명육적 육적자즉육식야
由此六識 出入諸根 貪着萬境
유차육적 출입제근 탐착만경
然成惡業 障眞如體
연성악업 장진여체
故名六賊 一切衆生
고명육적 일체중생
由此三毒 及以六賊
유차삼독 급이육적
惑亂身心 沈淪生死
혹란신심 침륜생사
輪廻六趣 受諸苦惱
윤회육적 수제고뇌

이러한 삼독은 하나의 본체에서 절로 삼독이 되어 만약 육근(六根)에 작용하면 육적(六賊)이 된다. 육적은 곧 육식(六識)이다. 이 육식이 육근을 드나들며 온갖 대상에 탐착심을 일으키므로 악한 업을 지어 진여를 가리게 된다. 그러므로 육적이라 일컫는다. 모

삼독이 육근에 작용하면 六賊

육적 돌이켜 육바라밀 이루어야

든 중생은 이 삼독과 육적으로 말미암아 몸과 마음이 어지러워지고 생사의 구렁에 빠져 육도(六途)에 윤회하면서 온갖 고통을 받는다.

猶如江河 因小泉源
유여강하 인소천원
涓流不絶 乃能瀰漫
연류부절 급능미만
波濤萬里 若復有人
파도만리 약부유인
斷其根源則衆流皆息
단기근원즉중류개식
求解脫者 能轉三毒
구해탈자 능전삼독
爲三聚淨戒 能轉六賊
위삼취정계 능전육적
爲六波羅密 自然永離一切諸苦
위육바라밀 자연영리일체제고

비유하자면 강물은 본래 조그마한 샘에서 발원하여 끊이지 않고 흘러서 마침내 물이 가득 넘실거리며 끝없는 파도를 이루게 되지만 만약 어떤 사람이 그 물줄기의 근원을 끊으면 모든 흐름이 다 쉬게 된다. 이처럼 해탈을 구하는 사람도 삼독을 전환하여 삼취정계(三聚淨戒:부처님이 정한 규칙을 지켜 악을 막는 세 가지 법. 착한 법은 행하라, 중생을 이롭게 하라, 계율을 잘 지켜라)를 이루고, 육적을 돌이켜서 육바라밀을 이루면 절로 모든 괴로움에서 벗어날 것이다."

又問曰 三毒六賊
우문왈 삼독육적
廣大無邊 若唯觀心
광대무변 약유관심
云何免彼無窮之苦
운하면피무궁지고

또 물었다. "삼독과 육적이 광대 무변한데 오직 마음만 관한다고 해서 어떻게 한없는 괴로움에서 벗어날 수 있겠습니까."

答曰 三界業報
답왈 삼계업보
唯心所生 若能了心
유심소생 약능요심
於三界中 則出三界
어삼계중 즉출삼계
其三界者 則三毒也
기삼계자 즉삼독야
貪爲欲界 嗔爲色界
탐위욕계 진위색계
癡爲無色界 由此三毒心
치위무색계 유차삼독심
結集諸惡 業報成就
결집제악 업보성취
輪廻六趣故 名爲三界
윤회육취고 명위삼계
又三毒造業輕重 受報不同
우삼독조업경중 수보부동
分歸六趣故 名六趣
분귀육취고 명육취

대답했다. "삼계의 업보는 마음에서 생긴 것이니, 마음만 깨치면 삼계 안에 있으면서 삼계를 벗어난다. 삼계가 바로 삼독이다. 탐심이 욕계가 되고, 성내는 마음이 색계가 되고, 어리석은 마음이 무색계가 된다. 이 삼독심이 갖가지 악을 결집하여 업보를 이루어 육도를 윤회하게 되므로 이를 삼계라 한다. 또 삼독이 짓는 업의 경중에 따라 받는 과보도 달라서 여섯 곳으로 나누어지게 되므로 육도라 하는 것이다."

김원각〈시인 · 역경위원〉

'큰 스님'과의 대화

서암 스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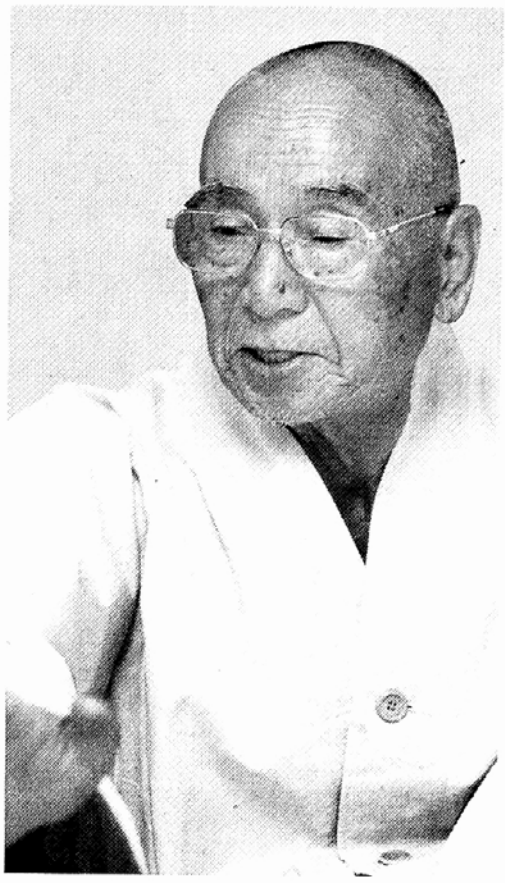
前 조계종 종정

사회와 유리된, 당대 민중들의 삶에 따뜻한 시선을 보내지 않는 종교는 생명력을 유지할 수 없다. 한국 불교계가 '깨달음의 사회화' 혹은 '생활 불교'라는 화두로 고심하고 있는 것도 그러한 이유 때문일 것이고, 어느 정도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하지만 아직도 한국 불교는, 세상의 병증(病症)을 가장 먼저 감지하고 이를 치유하는 사회적 영향력을 발휘하는 일에는 미온적이다. 오히려 조계종단의 잦은 분규로 인한 불교계 전체의 이미지 실추는, 세상으로 하여금 불교를 더 걱정하게 만들지 않았는가 하는 의구심마저 들게 한다. 지난해 말 '불교 바로 세우기 범불교 재가연대'가 결성된 것도 그러한 의구심에 대한 불교계 내부의 반성적 자기 점검이라 할 수 있겠다.

'불교 바로 세우기'란 결코 불교계 내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니다. '세상을 바로 세우는 일'이기도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제9대 조계종 종정을 지내셨던 서암 큰스님을 뵙고 한국 불교의 혁신을 위한 경책의 말씀을 들었다.

"천하에 쉬운게 불교예요"

"자기마음 자기가 찾아 쓰라는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밖에서 찾아요"



- 1914년 경북 영주 生
- 1935년 화산 스님을 은사로 출가
- 심원사 강원 강사
- 조계종 총무원장
- 조계종 원로회의 의장
- 봉암사 조실
- 조계종 제9대 종정
- 현재 봉화 무위정사 주석

—세상이 갈수록 혼탁해지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불교적 처방부터 한 말씀 일러 주십시오.

▲불교는 마음 밝히는 종교예요. 그런데 모두들 바깥으로 손을 내저으며 어떤 위대한 힘이나 신비로운 능력을 구해요. 여기에서 모든 착란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기 노력을 하지 않고 밖으로 기적이나 어떤 힘을 갈구한다는 자체가 근본적인 잘못이에요.

물질 추구도 마찬가지예요. 바깥으로만 돌다보니까 믿을 거라곤 재물밖에 없어 보이고, 그러다 보니 물질에 예속된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러면 당연히 다툼이 생기고 혼란이 오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내부 즉 마음을 살피라는 겁니다.

천하에 쉬운 게 불교예요. 세상에 불교보다 쉬운 게 없어요. 자기 마음을 자기가 찾아 쓰라는 게 부처님의 가르침인데, 스스로 자기 마음을 속이고 엉뚱하게 바깥으로 헤매니까 세상이 어지러운 겁니다.

자기 마음을 밝히면 세상은 저절로 밝아집니다.

—불교의 사회적 책무가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이유도 거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늘의 한국 불교는 안타깝게도 사회적 지도력을 충분히 발휘하고 있는 것 같지 않습니다.

▲불교 자체가 지금 병들어 있어요. 그러니 어찌 제 구실을 할 수 있겠습니까. 지난해 말 조계종단 분규 때도 일반 언론으로부터 아수라 조계종이라는 야유를 듣지 않았어요? 이 정도로 사회적 신용을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불교 고유의 사회적 책무를 수행할 수 있습니까. 그래서 불교가 바로 서면 나라가 바로 서고, 불교가 병들면 모든 게 병든다고 하는 겁니다. 부처님 가르침이라는 바른 이치가 통하지 않으니 세상이 어지러울 수밖에요.

지금 이 말이 새삼스럽게 상처를 건드리자는 게 아니예요. 좀더 솔직히, 냉철하게 자신의 모습을 살피자는 뜻이지요. 지금 서 있는 지점을 명확히 알아야 가야 할 목표도 세울 수 있는 것 아닙니까.

남을 가르치기 이전에 항상 자신을 돌아보면서 부처님 가르침 한 마디라도 제대로 실천하면 되는 건데, 건성으로, 말로만 불법을 들먹이니까 병이 생기는 겁니다.

한국 불교의 현실을 직시해 보세요. 거기에 문제점도 있고 해결책도 다 들어 있어요. 나 같이 산중에 사는 사람한테 물을 것도 없어요.

—불교계의 자기 혁신이 필요하다는 말씀이신데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어떻게 해야 할지요.

▲먼저 승려 자신들이 각성해야 합니다. 과연 '인천사(人天師)'의 자격이 있는가 하는 자기 반성부터 철저히 해야 합니다. '인천사'라는 게 뭡니까. 인간뿐 아니라 천상 세계에서도 스승이라는 말이예요. 그만큼 고귀한 존재가 바로 승려예요. 따라서 승려는 남을 제도하기에 앞서 자신부터 밝게 알아야 합니다. 그러면 중생 제도는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한암 스님 같은 분 보세요. 오대산에 가만 앉아서 설법 한 마디 안해도 수많은 사람들이 감화를 받았어요. 한암 스님 얼굴 한 번 못 보고, 음성 한 번 듣지 않았던 사람들도, 입만 벌리면 욕지거리를 해대는 사람들도 한암 스님이라는 말만 들어도 머리를 숙이곤 했어요.

참된 수행자의 덕화는 그런 겁니다. 향기와 같은 것이지요. 향기가 벌을 불러 모으듯이, 여법한 행동만으로도 중생들을 감화시킬 수 있는 겁니다.

우리 나라에 최초로 불교를 전한 아도화상이 법당을 짊어지고 왔습니까, 머슴살이를 하면서 이 땅에 불심의 씨앗을 뿌렸어요. 그러면서도 이 민족의 정신 세계를 이끌었다는 사실을 분명히 기억할 필요가 있어요. 이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오늘날 승려들은 옛 조사들의 그림자에만 안주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예요. 하루빨리 인천사로서의 자기 본분을 자각하고, 일거수일투족이 부처님의 제자다워질 때 그 향기가 시방에 두루퍼져 뭇중생을 제도할 수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보니 대형 불사 위주의 외형적 성장이나 행사 위주의 포교도 썩 바람직한 것만은 아니라는 말씀으로도 들리는데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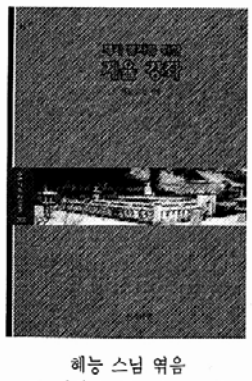
▲불교라는 종교의 바탕은 정신입니다. 물질이 아니예요. 근본적으로 물질적 성장추구는 비불교적인 거예요. 석가모니 부처님을 보세요. 맨손으로 설산 고행을 했고 맨손으로 나왔어요. 물질로 세상을 구한 게 아니라는 거지요. 이것만 봐도 알 수 있듯이, 불교는 최소한의 물질로 가장 인간다운 삶을 사는 세상의 모범이 되어야 합니다.

비구를 일컬어 걸사(乞士)라고도 합니다. 얻어 먹는 선비라는 말이지요. 얻어 먹음으로써 일체중생을 다 가르치는 위대한 스승이 되는 것입니다. 일체중생의 스승이기 위해서 얻어먹는 것이고요. 이것만 봐도 불교는 돈 가지고 하는 종교가 아니라는 걸 알 수가 있지요.

부처님을 보세요. 부처님도 얻어지셨어요. 탁발의 정신 즉 걸사의 정신이란, 오욕락을 초월해서 사는 출가 수행자의 청빈한 삶을 상징하기도 하지만, 그것 자체가 아만과 아집을 굴복시키는 하심의 수

주머니 속 대장경 시리즈 — 생활불교 202
여시아문 여시아문은 '들은 바,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전하겠다'는 정신으로 시대의 벗이 될 책들을 만들겠습니다 주소 종로구 견지동 110-33 전화 (02)737-0695 팩스 (02)737-0696

'계율'의 참된 의미와 가르침을 제대로 배우고 지키며,
참된 불자로서의 삶이 어떠해야 할지를 일깨워 준다.



혜능 스님 엮음
B6 변형 330쪽/ 값 6,500원

일반적으로 계율이라고 하면 '계'보다도 '율'의 의미로 이해하고,
우리의 일상과는 요원한 가르침이라고 생각하기 쉽다.
그러나 계율에 있어서는 오히려 율보다 계가 더 중요하다 할 수 있다.
'계'는 외부에 우리를 속박하려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우리의 마음 속에 있는,
선한 일을 하려고 하는 '자발적인 정신'이다.
'율'은 국가의 법률과 같은 것이다.
불교 교단뿐만 아니라 어떤 교단이라도 반드시 규칙이 있기 마련인데, 이 교단 규칙이 바로 율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계의 입장에서 율을 지키려고 하는 데 '지계'의 진정한 의미가 생겨난다.
불교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지계의 정신을 잃어버렸기 때문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이 아니다.
불자로서의 자각은 '믿음'에서부터 일어난다고 해도 좋지만, 불자로서의 행동은 '계'를 근본으로 하지 않으면 안된다.

- 삼귀의계(三歸依戒) — 사불괴정경, 염삼보경, 일체사경
- 오계(五戒) — 우바새경
- 팔관재계(八關齋戒) — 지재경, 불설우바이타사가경, 불설팔관재경
- 십선계(十善戒) — 십선경, 순타경, 사경, 가람경, 가미니경
- 재가 불자의 윤리 — 자비, 담미까경, 더없는 행복, 파멸, 천한 사람, 대부호, 마낫탓다, 효자, 사랑스런 이, 교계싱갈라경, 옥야경
- 대승불교의 계율 — 범망경 보살계, 재가보살계본, 대방광불화엄경 정행품, 대방광불화엄경 십지품, 불유교경
- 맑고 향기로운 삶을 위한 수행의 지침 — 보살의 서른일곱 가지 수행법, 보살의 보석 염주, '마음의 훈련'을 위한 열여덟 가지 공약, 더불어 살기 위한 열네 가지 계율, 서른여덟 가지 행복의 길, 발심수행장, 대승육정참회

재가 불자를 위한 계율 강좌



◇서암 스님께서 주석하시는 무위정사. 가건물처럼 대충 지은 집이지만, 어느 곳에 머물든 그곳이 곧 수행 도량이요, 부처님의 땅으로 여기는 수행자의 면모를 느끼게 한다.



◇모든 세간사를 벗어난 삶을 상징하듯 건물 앞에 내걸린 무위정사 편액. 서암스님께서 직접 쓴 글씨로 만들었다.

행이자 보시한 사람에게는 베풂의 공덕을 주는 보살행이기도 한 것입니다. 이렇듯 수행자는 얻어먹는 것만으로도 능히 중생을 제도하는 겁니다. 떳떳이 얻어먹고 얻어먹음으로써 오히려 존경을 받는 것이지요.

부처님 제자는 부처님 흉내라도 내야 해요. 부처님의 행과 동떨어진 것은 불교와는 상관이 없는 겁니다. 이 절 저 절 파당을 짓거나 절집에서 재산을 쌓는 일 같은 건 해서는 안됩니다.

지금 이름만 걸어놓은 종단까지 치면 100개가 넘어요. 이건 무얼 의미하느냐. 그 옛날 구산 선문과 같은 사상적 갈래가 아니라 분란이에요.

이제 불교는 새출발을 해야 합니다. 출세간법에 의지해 사는 사람들이 스스로의 문제 해결도 못해서 세간법에 의지해 재관을 하는 추태는 다시 없어야 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일체중생을 구제한다고 아무리 떠들어봐야 누구 하나 듣지 않습니다. 인천사라는 사람들이 관청 사람한테 찾아가 이 중이 잘했소 저 중이 잘했소 한다면 누가 그를 스승으로 여기겠습니까.

부디 부처님의 정신으로 돌아가 1600여년에 걸친 아름다운 불교의 전통을 오늘에 되살리는데 모두가 일심으로 노력을 기울입시다. 그러기 위해서 지금의 한국불교는 자기 구제부터 확실히 하는 각오로 새로이 시작해야 합니다. 썩은 살은 도려내어야 새 살이 나오는 이치와 같습니다. 좋은 차 타고 다니면서 온갖 호강은 다 하는 자세로는 중생 구제는 커녕 자기 구제도 못해요.

—그렇지만 아직도 여법하게 수행하는 스님들도 많지 않습니까.

▲물론 그렇지요. 과거도 지금도 대부분의 승려들은 공부 잘해요. 항상 일부가 문제지요. 하지만 대부분의 승려들은 그런 꼴이 보기 싫어서도 공부를 합니다. 그런 사람 많아요. 그런 이들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불교는 발전합니다. 진짜 공부하는 스님들은 그러한 행위만으로도 중생들을 이롭게 합니다.

—큰스님께서 오랫동안 조실로 계셨던 봉암사는 일반인의 출입이 금지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것에 얽힌 특별한 사연이라도 있을 법한데요.

▲사연이 많았지요. 봉암사마저 관광지가 되는 걸 막기 위해 평생 안 가 본 청와대도 가 보고 건설부도 가 보고 국회도 가 보고 그랬어요. 가서 그랬어요. 천년 고찰을 관광지 만들어서 도인 못 살게 하면 나라가 어떻게 되겠느냐 했지요. 그래서 도립공원인가 뭔가로 지정되기로 결정된 걸 뒤집었어요. 옳은 소리는 총칼로도 누를 수 없는 것이거든요.

물론 사찰은 수행의 공간이기도 하지만 부처님에 대한 예경의 공간이기도 하고 중생 교화의 공간이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모든 고찰을 봉암사처럼 할 수는 없지만 상징적인 의미로라도 그러한 공간이 있다는 사실은 한국불교를 넘어서 한국 사회의 정신 건강을 위해서도 꼭 필요한 일입니다.

> **출가 수행자는 떳떳이 얻어먹고 재물 쌓는일 말아야**

그러나 요즘처럼 절에 들어가는 데도 극장 가듯이 돈 내고 들어가게 해서는 안되요. 사찰 재정도 꼭 필요한 것이긴 하지만, 돈 없는 사람은 부처님 세상에도 못 찾아 가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게 해서는 안 되요.

—큰스님 말씀대로 조계종단의 잦은 내홍으로 인한 불교의 이미지 실추는 심각한 지경에 이르렀던 것도 사실입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는 안정을 회복하고 있고 대 사회적 책무에 대해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사찰이 환경 보호에 적극 나서는 한 예이고 말입니다. 이러한 활동이 보다 바람직한 방향으로 지속되기 위해서는 그 어느 때보다 사부대중이 힘을 모아야 할 것 같습니다. 이를 위한 당부 말씀 한 마디 일러 주십시오.

▲거듭 말하지만 불교 만큼 간명한 진리는 없습니다. 바로 자기 자신의 마음이 우주 만물을 창출해 낸 근본자리라는 사실을 명심하고 사세요. 그래야만 똑바로 살 수 있습니다. 조물주니 신이니 하는 넋빠진 소리 하지 말고, 이 마음이 곧 부처임을 밝게 다셔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이 우주의 주인공이에요. 만물만생이 절대 평등한 존재인 것입니다. '천상천하 유아독존'이라는 말은 부처님 한분에 국한된 의미가 아니라 일체 중생이 절대 평등해서 다 본래 부처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마음과 부처와 중생이 본래 차별이 없다고 한 것입니다.

이 도리를 제대로 알아야 자신이 자신의 주인으로 살 수 있습니다. 누구도 자신의 인생을 대신 살아 줄 수 없어요. 천하의 사람이 다 칭찬을 한다고 해서 자신의 인생에 터럭 하나 보탤 게 없고, 천하의 사람이 다 자신을 욕한다고 해도 터럭 하나 뽑혀 나가는 게 아니예요. 하늘 위나 하늘 아래에도 자신의 인생을 간섭할 제3자는 없어요. 이걸 모르고 정신 없이 살면 중생이고 똑똑히 알면 부처예요. 결코 저 금물 칠한 불상이 부처가 아니예요.

그런데 바깥으로 헤매고 찾고 하면 어지러워집니다. 자기 마음 찾으면 성불이라는 사실을 잊지 마세요. 뭘 구제하겠다는 둥, 광고 문구 같은 도인 흉내 같은 건 내지 마시고,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는 겁니다.

오늘의 인류 문명 자체가 부처님의 가르침으로 돌아오고 있어요. 입자니 원자니 소립자니 하는 현대 물리학이 찾아낸 물질의 근본 또한, 만유의 존재 방식으로서의 공의 의미를 확인시켜 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어찌 부처님의 근본 사상으로 돌아가지 않고 분밖에서 얼찐거릴 겁니까. 부처님 법대로 사세요. 부처님 법대로 포교도 하고 불사도 하면 다 잘 될 겁니다.

> **부처님 법대로 살면 불교도 발전하고 세상도 바로 서요**

—잘 새겨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곧 물러 나려고 하니까 큰스님의 근황이나 일과가 궁금해지는데요.

▲늙은 사람이 무슨 일과가 있겠어요. 먹고 싶으면 먹고 졸리면 자지요. 그야말로 천하태평이요.

—가끔씩 찾아오는 사람은 없습니까.

▲조금 모자라는 사람들이나 가끔 찾아와요.

—교통이 불편해서 거동하시기가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조금만 걸어 나가면 버스가 다녀요. 손만 들면 세워 주는데 얼마나 편해요. 불편할 거 하나도 없어요.

—무위정사(無爲精舍)라는 당호처럼 그렇게 걸림없이 사시는 것 같습니다.

▲세간 법을 떠나서 사니까 무위는 무위인 셈이지. 하지만 몸을 가지고 사는 한 걸리지 않을 수야 없지요. 소변 마려우면 눠 줘야 하고, 갈증이 난다면 물도 먹어 줘야지요. 몸 벗기 전에는 이놈 말을 들어 주지 않을 수 없어요. 버릴 땐 미련 없이 버려야 할 몸뚱이지만.

자 그럼 이런 너절한 얘기는 치우고 죽이든 밥이든 먹을 것은 있으니까 하루 푹 쉬었다 가세요.

하룻밤 묵어 가라는 스님의 말씀을 뒤로 하고 마당으로 내려 서니, 바람 한 점 없는 한낮은 물 속처럼 가라 앉아 있는데, 간간이 새 울음 소리는 오히려 산중의 고요를 더하고 있었다. 서암 큰스님 또한 그러한 고요의 일부가 되어 산처럼 살고 계셨다.

대담=윤제학 부장
(yunjh@buddhapia.com)
사진=고영배 기자
(ybgo@buddhapia.com)

지묵스님의 스님이야기

■법정스님 ⑤

낮에는 앞산 산색(山色)에 눈을 씻는다.
꽃이 피고 녹음이 짙어지고 있다. 아, 시원해라.
밤에는 불일암 대밭을 뒤흔들고 지나가는 바람소리에 귀를 씻는다. 때로는 우우우 처녀 귀신 울음소리, 흐흐흐 총각귀신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하다. 비를 몰고 오는 바람은 파도가 되어 밤새 철썩철썩 소리를 내기도 한다.
고요한 달밤에는 내소사 해안(海眼) 스님의 시를 읽는다.

고요한 달밤에 거문고를 안고 오는 벗이나
단소를 쥐고 오는 벗이 있다면
굳이 줄을 골라 곡조를 아니 들어도 좋다.

이른 새벽에 홀로 앉아 향(香)을 사르고
산창(山窓)에 스며드는 달빛을 볼 줄 아는 이라면
굳이 불경(佛經)을 아니 배워도 좋다.

저문 봄날 지는 꽃잎을 보고

낮엔 앞산 산색에 눈 씻고

밤엔 대밭 바람에 귀 씻고

귀촉도 울음소리를 들을 줄 아는 이라면
굳이 시인이 아니라도 좋다.

구름을 찾아가다가 바람을 베고
바위에 기대어 잠든 스님을 보거든
굳이 도(道)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도 좋다.

해 저문 산야에서 나그네를 만나거든
어디서 온 누구인지 물을 것이 없이
굳이 오고가는 세상사를 들추지 않아도 좋다.

이 시는 절 객실에서 하룻밤을 보내면서 스님이 윤문을 하시고 내가 이를 받아 썼다. 원문을 쓴 분은 물론 금강경 해설의 삼대 법사의 한 분이신 해안 스님이시다. 금강경 해설의 삼대 법사가 어느 분이냐 하면 해안 스님, 백성욱 박사, 석해탈 스님.

처음 이 시의 원문을 접한 곳은 선운사 객실. 낯선 산사의 객실에 들면 시간이 꽉 한가해진다. 읽을거리도 없고 일거리도 없다. 그냥 밥 때 밥 먹고 잘 때면 자는 것이다. 세상 편하고 걸림이 없다.

법정스님이 이 시를 보고,

"너무 한문투야. 시를 좀 손질하는 게 어때?"

하시기에 내가 우선 소리내어 읽었다. 스님은 한 구절이 떨어질 때마다 수정을 하셨다. 윤문을 이런 식으로 하고 나서 다른 이에게 보여주니 감짝 놀란다.

"이 시를 신문에 실어요."

불일회보에는 당시 편집 일을 맡고 있던 현장 스님의 눈에 띄어서 실었는데 크게 호평을 받았다. 여기저기서 수 천장씩 찍어 나눠 가지며 출격(出格)장부의 풍류시를 함께 음미하였다고나 할까.

지금은 수도를 놓고 있지만, 그때는 우물물을 썼다. 국수를 삶아서 구시통에서 씻다가 몇 가래를 입안에 넣고 쭉 빨아먹으면서,

"국수 맛은 막 씻어서 이렇게 먹는 맛이 제일이야!"

하고 스님이 시범을 보이시면 나도 따라서 국수 몇 가닥을 입안에 넣고 쭉쭉 빨아먹었다.

돗자리를 깔고 둥근 상을 펴놓고 국수를 먹는다. 저녁 식단은 대개 분식 종류. 그리고 나서 따끈한 홍차를 마신다. 커피도 마신다. 녹차는 대개 오전과 점심 때에 마신다.



그림 · 문병성

공양주 초대는 노보살님. 비가 오는 밤 '대밭 귀신소리'에 무서워서 밤중에 스님에게 하소연을 하였다가 꾸중만 듣고 울며 떠났고, 다음이 영명 스님. 역시 비가 오는 밤에 불일암 주위에서 음독자살을 기도한 젊은이 한 쌍 때문에 고생고생 하였고, 그 이후 공양주가 현장 스님에 이어 산매화 보살로 내려왔다. 나는 그 다음 공양주였는데 1980년 광주 민주 항쟁이 있던 그 해 여름이었다. 사복형사가 간혹 불일암 주위를 배회하고 몸을 사리는 젊은이들도 외부의 눈길을 피해 오고 갔다. 스님은 당시 여름 이야기를 '한줌의 재' 란 글에서 이렇게 쓰셨다.

"어제도 나는 부엌 바닥에 앉아 손 칼로 대를 깎아 차 수저를 만들며 하루를 보냈다."

"어저께는 땅거미가 짙게 내릴 때까지 개울가에 흩어져 있는 돌을 주워다가 우리 불일(佛日)로 오는 가파른 길목에 층계를 놓기도 했었다. 요즘 아래 절에서 올라와 있는 지묵 수좌와 함께였다. 단순한 노동은 육신의 건강보다도 쾌적한 정신상태를 위해서 필요한 동작이다. 이 여름은 줄곧 이런 일로 고통스러운 내출혈을 다스릴 것이다." 〈끝〉

건 · 강 · 보 · 조 · 식 · 품 · 허 · 가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솔선식(松仙食)·익수영진고 시판개시!

선(仙:神仙)자를 파자(破字)하면 '山人', 즉 산에 사는 사람이다. 예로부터 산에 사는 사람인 장생불사(長生不死)하는 신선의 주식(主食)이 시계절에 푸르름(葦綠)을 자랑하는 소나무이니 소나무의 효능을 어찌 말로 다할 수 있으랴. 그러므로 소나무는 나무중의 나무이다.

오행상생(五行相生)은 오행이 서로 생(生)한다는 말인데, 생한다는 것은 도와준다는 뜻이다. 동양의학은 오행상생 원리로 도와주도록 하여 병을 다스려 고친다. 오행중의 물(水)·불(火)·흙(土)·쇠(金), 네가지는 상생하면서 자기 몸을 희생·소멸하지 않지만 나무(木)는 자기 몸을 완전히 불태움으로써 희생·소멸하여 자식격인 불을 생하기 때문에 나무가 거룩한 어머니 사랑의 어진 마음을 가지고 있다.

일찍이 한민족은 오행으로 38목(木)인 동방(東方)에 살았던 덕분에 나무처럼 원래 마음이 어질고 자질(資質)이 뛰어나 동방의 예의를 숭상하는 나라(東方禮義之國)로 세상의 우러름을 받았기 때문에 나무 중의 나무인 소나무가 우리나라를 대표하고 상징하는 나무이다.

우리나라 4대명산(四大名山)의 하나이고 신선들이 사는 삼신산(三神山) 중 방장산(方丈山)인 지리산(智異山)은 우리민족과 인류의 거룩한 어머니가 사시는 사람의 성모산(聖母山)이다. 어머니의 거룩한 사랑이 살기 좋은 세상을 만든다.

사찰과 민간의 비전(秘傳)된 처방을 많이 아는 여래(如來)한방진료병원장 시연스님과 성모 지리산에서 공해(公害)가 하나도 없는 6백미터 이상 고지(高地)의 소나무 자생군락(自生群落) 청정지역에서 30년간 소나무연구의 오직 한 길을 걸어온 토송자 소나무농장주가 이번에 힘을 합해서 거룩한 어머니 마음으로 소나무 종합영양강정(強精) 식품인 「솔효소정액(松酵素精液)」과 「솔선식(松仙食)」을 만들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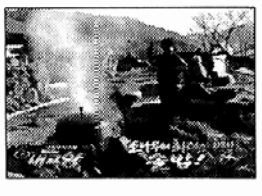
「솔효소정액」은 솔잎·솔순·솔씨방·솔마디·송화가루·송진·송근백피·송목피·송이버섯·백복령·적복령·백복신 등 지리산의 정기(精氣) 덩어리인 조선소나무의 열두가지 원료에다 당귀·감초·표고버섯·흙설탕 기타 여러가지 첨가식품을 배합하고 밀봉한 상태에서 발효·숙성시켜 수천 종류의 식물성 효소와 미생물 효소 뿐만 아니라 비타민, 미네랄, 기타 고단위의 영양소가 함유되어 있어 원활한 신진대사를 촉진하고 자연치유의 힘을 길러줌으로써 성인병을 비롯하여 난치병도 낫게 하며 병의 예방도 하여 정(精)·기(氣)·신(神)이 왕성하게 하는 기적의 솔종합영양 강장식품이다.

「솔선식」은 곡식종류는 한 톨도 들어감이 없이 「솔효소정액」과 똑같은 솔의 열두가지 영양물질을 배합하여 만들었으므로 속세의 사람들이 하루 세끼 먹는 음식 대신에 신선이 먹는 작은 알갱이로 된 음식이다. 그래서 일체의 다른 음식을 먹지 않고 「솔선식」만 먹고도 살 수 있는 기적의 솔음식으로 3개월만 복용하여도 비만의 몸은 체중이 10Kg 이상이 빠지고 당뇨에 특효가 있고 성인병과 난치병도 치료되며 몸이 날아갈듯이 가벼워지는 기적의 어떤 휴유증도 없는 다이어트 솔음식이다.

「동의보감」과 「본초강목」에서 솔은 심장, 혈관계통의 질환 뿐 아니라 신경통, 관절염, 간염, 기관지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기술하고 있다. 「솔효소정액」과 「솔선식」은 한국식품연구소의 품질검사에서 적합판정을 받았으며, 특허출원번호 (솔효소정액 96-57796호), (솔선식 96-5587호)이며, 건강보조식품허가(98.3.31)를 받았다. 앞으로 기적의 우리 지리산 소나무 종합강정 건강식품을 세계 각국에 수출하여 많은 외화획득을 할 작정이다.











※ 본사제품
솔선식, 효소정액,
익수영진고
(KBS 6시내고향
99.1.28 방영)

솔효소정액	솔선식	익수영진고
원액 2,800㎖ (700㎖ 4병분량, 2개월분) **정가 ₩500,000원** 특허출원 96-57796	환약 2개월분 **정가 ₩500,000원** 특허출원 96-5587	옛날 방법으로 1개월간 은은하게 달이며 600g(한근정도) **최고급 보약중의 보약** **₩1,000,000원** (약 2개월 분)

■ 구입문의 : 053)655-2227 011)808-8880
■ 입금구좌 : 대구은행 161-07-412768-001 예금주 : 대구여래한방

의료법인 **효성 양방 · 한방병원**
(이사장 비서실) ☎ (052)254-2600

6·25 50주년 특집

죽음도 무릅쓰고 성보 구해

전화속 사찰지킨 호법신장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관람료 사찰을 찾은 관광객 수는 2천1백만명이라고 한다. 해마다 2천만명 이상이 전국의 고찰을 찾아 마음의 안식을 얻는다. 그러나 고찰이라고 말은 해도 최근 중창한 곳이 많아 수백년 세월의 고풍스런 역사미를 제대로 느낄 수 있는 곳은 드물다. 왜일까. 6·25 탓이다.

6·25는 상당수 사찰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다. 특히 38선 일대와 지리산 일대 사찰들의 피해가 엄청났다. 공비 소탕 등의 이유로 수많은 전각과 성보들이 한줌 잿더미로 변했다. 하지만 전란 속에서도 본 모습을 힘들게 지킨 고찰들이 있다. 그것은 사찰을 자신의 목숨보다 더 소중히 여긴 사람들이 있었기에 가능했다.

최고의 수행도량 상원사, 팔만대장경을 봉안한 해인사, 선운사, 화엄사를 지켜냈던 네 사람. 한국불교를, 우리 민족문화를 대표할만한 이들 네 사찰은 그들 호법신장이 아니었다면 지금쯤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을지도 모른다.

6·25 50주년을 맞아 이들의 죽음을 무릅쓴 불심과 용기 앞에 머리숙여 경의를 표하며, 당시의 긴박했던 상황과 이들의 발자취를 재조명해 본다.

■상원사와 한암스님

"법당과 함께 나도 화장" 기개에 놀라 군 소각철회

"나는 부처님의 제자야. 중이란 원래 죽으면 화장을 하는 법. 나는 여기서 힘 안들이고 저절로 화장될 터이니 당신들은 장군의 명령대로 어서 불을 지르게. 상관의 명령을 잘 지키는 결과도 될테고. 다시 말해서 양쪽 모두 잘되는 일이란 거야. 나로서도 중의 본분을 마지막까지 제대로 지킨다 할 것이니 더욱 이를 말인가. 나를 억지로 끌어내려 하지 말고 불을 지르게."

1951년 1·4 후퇴 직전 야밤에 대원들을 이끌고 상원사로 와서 절을 불태울 것을 알리는 국군장교에게 한암스님은 이렇게 말했다.

당시 북한 공산군들이 사찰을 근거지로 하여 국군에게 많은 타격을 준다는 관단 아래, 오대산 안의 모든 사찰을 소각시키도록 명령받은 군인들이 산내 민가까지 모두 불태울 때였다.

한암스님은 군인들에게 잠깐 기다리도록 이르고는 가사와 장삼을 갈아입은 뒤 법당으로 들어가 좌정하고 불을 지르라며 눈을 감았다. 결국 한암스님의 기개에 놀린 장교는 부하들에게 법당의 문짝만을 떼어 불사르게 한 뒤 돌아갔다. 전쟁 중 오대산 100리 안쪽은 국군 작전지역으로 월정사와 상원사를 포함한 모든 사암과 민가들이 텅텅 비어 있었고, 한암스님과 2명의 사미만이 남아 있을 뿐이었다. 그렇게 상원사를 지켜낸 스님은 1951년 봄 유엔군의 서울수복으로 38선 이남이 다시 국군에게 장악되자마자 가사와 장삼을 입은 후 선상에 올라 정좌한 채 좌탈입망했다.



◇기개로 상원사를 지켰던 한암스님.

현재 스님의 선풍이 서려있는 청량선원에는 30여명의 스님이 참선수행을 하며 한암스님의 기개를 이어가고 있다.

이와 함께 탄허, 만화스님 등 한암스님 문도들은 1959년 3월 상원사에 한암스님 부도와 비를 세웠으며, 스님의 높은 뜻을 기리기 위해 올 4월 또다시 비를 세워 스님의 공덕을 기리고 있다.

강지연 기자(jygang@buddhapia.com)

■해인사와 장지량 장군

민족혼 깃든 성보 살리자 미 비행단 폭격명령 거부



◇팔만대장경을 지켜낸 장지량 장군.

전 공군참모총장 장지량 장군(76)은 해마다 6·25를 앞둔 이맘때쯤이면 깊은 감회에 잠긴다. '명령에 따라 해인사를 폭격했더라면 팔만대장경은 어떻게 됐을까….' 장지량 장군은 지금도 그 순간을 생각하면 전율이 느껴진다.

51년 8월 경남 사천에서 제1전투비행단 작전참모를 맡고 있었던 장중령(당시 계급)에게 미국비행고문단으로부터 해인사 폭격명령이 하달됐다. 장중령은 즉시 전투비행단에 폭탄과 로켓을 장착한 F-51전투기 4대의 출격대기명령을 내렸다. 그런데 순간적으로 인민군 몇 명 잡자고 팔만대장경이 있는 해인사를 폭격할 수는 없다는 생각이 스쳤다. 고민끝에 명령을 거부하기로 결심을 굳혔다. 출격이 지연되자 상부에서는 전투기를 출격시키라는 독촉명령이 계속 하달됐다. 그러나 장중령은 시간을 끌었고 결국엔 날이 어두워져 출격이 중단됐다. 팔만대장경은 그렇게 지켜졌다.

"상부로부터 사살명령이 내려졌을 정도로 목숨이 위태로웠지만 팔만대장경을 지켜야 한다는 제 뜻이 받아들여져 죽음을 면했습니다. 명령을 거부한 것은 내 자신이 불교신자여서가 아니라 우리의 뛰어난 문화유산을 지켜야 한다는 소신에서였습니다."

장장군은 전쟁이 끝난 뒤에 팔만대장경을 직접 보고는 당시의 결정이 현명한 판단이었음을 새삼 느꼈다고 회고했다. 만약 군인정신만을 고집하며 상부의 명령대로 해인사를 폭격했더라면 이렇게 위대한 문화재가 흔적없이 사라졌을테고, 후손들에게는 씻을 수 없는 죄로 남아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하다고 말했다.

장장군은 66년 제9대 공군 참모총장에 임명됐으며 68년 8월에 예편했다. 69년부터 79년까지 이디오피아, 필리핀, 덴마크 대사를 역임했으며, 현재 6·25 기념사업회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선운사와 김재환 옹

공비소탕 이유 소각 작전 "천년명찰" 간곡하게 만류



◇6·25를 며칠 앞두고 선운사를 찾은 김재환 옹.

1950년 12월 15일. 천년고찰의 그윽한 향기와 산중의 고적함이 멋스러운 고창 선운사. 육군 화랑부대로부터 공비 소탕을 이유로 선운사 소각명령이 내려졌다.

"전북 전 지역을 수복한 상태에서 빨치산 토벌은 시간문제입니다. 한 순간을 참지 못해 조상의 얼이 서려 있는 고찰을 불태울 수는 없었습니다." 6·25 50주년을 며칠 앞두고 선운사를 다시 찾은 김재환옹(74세)의 감회는 남다르다.

선암사 일대는 3면이 높은 산으로 둘러싸인 험준한 지형으로 당시 빨치산들의 활동 본거지였다. 당시 고창경찰서 반암출장소장으로 이 지역 치안책임자였던 김옹은 잦은 공비출몰 때문에 작전상 선운사를 소각하려는 군부대의 작전명령을 간곡하게 설득하고 막아내 전소위기에 처한 선운사를 지켜냈다. 천년 고찰과 수많은 문화재를 불태우면 그 복구는 과연 누가 하겠는가라는 생각에 순순히 명령을 따를 수는 없었다. 김 옹은 당시를 회고하듯 선운사 이곳저곳을 살피면서 "사중 스님들을 모두 피신 시키고 홀로 선운사를 지키던 당시 주지 호명스님이 경찰에 정보를 제공해 줬다는 이유로 공비들에게 산골짜기에 끌려가 돌에 맞아 운명했다"고 술회하며 스님의 극락왕생을 빌듯 잠시 눈을 감았다.

김 옹은 61년 이리역전 파출소장을 끝으로 퇴임한 후 현재 고향 부안에서 살고 있다. 6·25 당시 지니고 있던 호신불을 50년이 지난 지금도 간직하고 있다는 김 옹은 5월4일 선운사로부터 선운사를 지켜낸 공로를 인정받아 감사패를 받았다.

도필선 기자(psdo@buddhapia.com)

■화엄사와 차일혁 총경

빨치산 토벌때 소실위기 문짝만 태우고 징계 감수

"화엄사를 소각하라." 6·25 전쟁 중 빨치산 토벌대장인 차일혁 총경(1920~58)은 상부로부터 이 같은 명령을 받았다. 그러나 그는 명령을 따를 수가 없었다. 아무리 전쟁 중이지만 화엄사는 우리민족의 자랑스런 문화유산이었다. 또 개인적으로 화엄사 각황전은 어머니의 기도처였다. 어렸을 때부터 어머니의 영향으로 깊은 불심을 키워왔던 그에게 화엄사 소각명령은 죽기보다 싫은 일이었다.

내장사가 불탈 때 눈물을 흘리며 며칠 동안 밥잠을 못 이뤘던 차 총경은 1백여명의 대원을 이끌고 화엄사에 도착했다. 차 총경은 부하들에게 각황전 문짝을 모두 떼어와 대웅전 앞에 쌓아 놓게했다. 그리곤 불을 지르며 이렇게 말했다.

"태우라는 상부의 명령을 받았으니 이를 어길 순 없다. 그러나 문짝을 태운 것도 태운 것이니 명령은 이행한 것이다."

그 후 그는 작전명령 불이행으로 감봉처분을 받았다. 화엄사뿐 아니라 이후 차 총경은 천은사 백양사 쌍계사 금산사 선운사 등 전라도의 명찰들을 전화로부터 구해내는데 많은 기여를 했다.

이에 대해 1958년 조계종 초대 종정이었던 효봉스님은 감사장을 수여하고 고마움을 표시했고, 조계종은 98년 6월 화엄사 경내, 연화당 바로 밑 넓은 공터에 그를 기리는 '차일혁 총경 공적비'를 건립해 그의 높은 뜻과 공적을 기리고 있다.

젊을때 금강산 신계사에서 6개월동안 행자생활을 하기도 한 차일혁 총경은 화엄사를 구한후 곧잘 "불법에 의지해 살아왔기에 그렇게 할 수 밖에 없었다"고 되뇌곤 했다고 아들 차길진 법사는 전한다. 김두식 기자(doobi@buddhapia.com)



◇교계는 차일혁 총경의, 화엄사를 비롯 전라도의 많은 고찰들을 전화로부터 구한 공적을 기려 98년 화엄사에 공적비를 세웠다.

天然 토종 오가피의 신비



국내최대 오가피 재배자
성 광 수 氏



◐事得一把五加 不用金玉滿車
(영득일파오가 불용금옥만차)
하중의 오가피를 얻으니 한마차의 금옥보다 낫구나…
(本草綱目)

◐延年 不老 仙經藥也(연년 불로 선경약야)
(오가피를 먹어) 수를 더하고 늙지 않으니 실로 신선의 약이로구나…
(東醫寶鑑)

◐Acanthopanax (오가피의 학명)
'아칸토'는 가시나무를 뜻하며 '파낙스'는 만병을 치유한다는 뜻으로 만병을 다스리는 가시나무란 이름을 가지고 있다…
(공주교대 조선행박사)

— 재배자가 직접 만들어 화제 —

舊소련에서는 국가대표선수들에게 오가피를 복용시켜 올림픽 및 각종 국제대회에서 놀라운 성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복용했던 소련산 가시오가피는 그 유효성분이 **우리나라 토종오가피의 25%**에 불과했습니다. (노벨수상자인 독일 와그너박사의 논문에서…) 왜냐하면 오가피의 원산지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입니다.

■융내낼수 없는 것이 있다!
수신 토종오가피는 TV건강문화(i-TV 2000년 1월15일) KBS "6시 내고향", "나의 영농체험"에 출현한 17년간 오가피를 키워온 재배자 성광수씨가 직접 재배한 100% 국내산 토종오가피로 만듭니다. 가오가피나 수입 오가피로 만든 제품과 비교하지 마십시요.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지금 전화주시면 오가피에 대한 보다 자세한 자료를 무료로 보내드립니다.

오가피 건강상담 : 02)447-5300

스님께서 직접 만든 명가의 명향
釋氏香方 五分香 · 生氣香
석씨향방은 순수한 향약재료로만 만듭니다.
부처님께 올리는 최고의 공양인 오분향과
어떠한 장소와 행사에도 쓰이며, 특히 건강을 지켜주는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五分香 …
●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 효능이 있습니다.
●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할 때(향공양을 올려놓고 오분향계를 한다)
- 제사 지낼 때(천신 · 지신 · 조상)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하고 싶을 때(악취가 나는 곳)
- 공포를 느낄 때(사기 · 요마 · 귀신 · 도깨비 등)
- 조상의 명복을 빌때(상갓집, 영안실)



生氣香 …
● 효능
- 머리가 맑아지고 정신집중이 잘 되며, - 마음이 안정되고
- 수면이 순조롭고 피로하지 않습니다. - 건강에 도움이 됩니다.
※ 당뇨 · 중풍 · 폐 · 간 · 심장을 다스리는 대표적인 한약재를 첨가하여 더욱 향의 질을 높이고 향의 품질을 획기적으로 개선하여 생기향을 만들었습니다.
● 용도 - 공부할 때, 집안에 악취가 날 때, 건강을 원할 때
※ 관불의식, 관욕의식 (목욕 재개향) 있습니다.

인터넷 홈페이지 : http://hyeangbang.hihome.com

계좌번호 : 국민은행 059-24-0341-970
농 협 071-02-257470 예 금 주: 김정순

▶ 전화주문도 가능
▶ 대리점 및 주부 판매사원 모집

☎ 02)3446-8148, (02)3446-5889 공급자: 석씨향방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법공양 페이지

'1초살이 인생' 착두지 말고 놓고 사세요

사계절이 간다 하더라도 모두 초월해서 돌아가는 걸 본다면 그날이 그날이고 우리네 마음들도 항상 그대로 마음일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새해를 맞이하면서 마음도 새록새록이 달라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가 지났다는 생각을 하고 새로이 해가 온다는 것을 생각하게 되죠. 마음은 그렇게 변화무상하게 조절되고 화하기 때문에 어떤 걸 했을 때의 마음이 진짜 마음이라고 말로 형용할 수가 없는 거죠. 여러분께서 이 공부를 하시면서 어떠한 거를 느끼고 어떻게 생활을 하고 실천을 하면서 가야 하는지 그걸 잘 아시리라고 믿습니다.

자부처다 주인공이다 하는 것은 이름은 다르지만 뜻은 다 똑같습니다. 우리는 우주하고도 직결이 돼있고 이 만물만생하고도 가설이 돼있기 때문에 일체제불이 한꺼번에 여러분의 근본, 주인공에 포함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제불의 마음과 우리의 마음이 한도량에 들었다는 뜻입니다. 영은 만 명이 이 허공에 전부 모여도 하나일 뿐이예요. 일불(一佛)일 뿐이죠. 그런데 그걸 확대해서 쓰려면 만불(萬佛)도 될 수 있고 허공에 꽉차게 할 수도 있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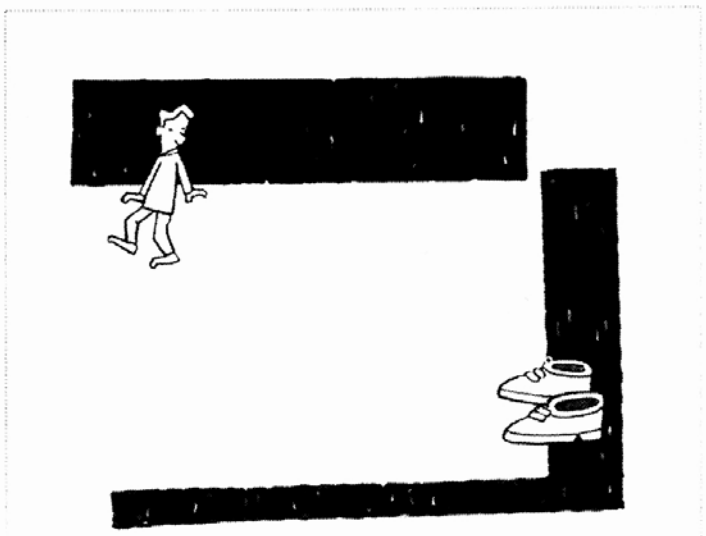


그림 · 최주현

백지장 하나 사이에 놓고 이것을 걷어치느냐 안 걷어치느냐에 따라서 부처다, 중생이다 하죠. 그러나 99% 부처될 가능성을 천연적으로 갖추어 있다는 거를 우리 마음들이 알아두어야 될 거예요. 그래서 고가 없다고 하는 뜻이에요. 내가 잘못했건 잘했건, 안 되는 게 돌아오건 되는 게 돌아오건 그걸, 양면에 다 놓으라는 뜻이죠. 보세요. 내가 항상 말을 하지만 걸어오며 발자취를 볼 때 이 자취가 그냥 있는 게 아니라 떼어놓으면 없어지고 떼어놓으면 없어집니다. 앞으로 떼어놓는 거는 오지 않았기 때문에 없고 뒤에 것은 이미 지나 있기 때문에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양면을 다 없애고 그냥 여여하게 발을 떼어놓을 뿐이란 얘깁니다. 우리는 따지고 보면 일초살이 인지도 모르죠. 하루살이도 아니고 일초살이 말이에요. 항상 마음이 변해서 이 생각 저 생각하게 되니까요. 고정됨이 없이 말이에요. '아버지!' 하고 부르면 아버지로 화해서 행을 하시고 또 '여보!' 하고 부르면 남편으로 화해서 행하시고 이렇게 찰나찰나 나투면서 행하는 것이 바로 '일초살이' 라고 해도 되죠.

발자취 떼어 놓으면 없어지듯
미래는 오지 않았기에 없고
과거는 이미 지났기에 없으니
양면 놓고 여여하게 걸으세요

중생 부처 백지장 차이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걱정할 게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이 안되는 거, 아프고 지루한 거, 이런 것도 지나가면 그뿐입니다. 그것도 이 마음에 따라서 또 오지 않는다는 거를 알아야 지나가요. 지나간 거를 붙잡고 생각하고 또 붙잡고 생각한다면 그거는 진짜로 지나가지 못하고 지루하게 살아야만 되겠죠. 그게 바로 팔자 운명이고 고(苦)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 앞에 있는 거, 아직 오지도 않는 거 미리 끌어다가 고통받을 필요가 없죠. 그러니까 모든 거를 뚜벅뚜벅 그냥, 현실에 여여하게 그냥 가면 되죠. 한마음을 물질적으로만 생각한다면 이해가 가지 않겠지만 마음은 체가 없기 때문에 생각을 그렇게 해서 일초살이로 산다면, 삼천년 전 고개도 넘을 수 있고 삼천년 후 미래로 넘을 수도 있어요. 그러기 때문에 여러분이 자유자재권을 갖추어 가지고 있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나쁜 일이 생기거나 그런다면 물론 고통스러워서 그러겠지만 한생각을 좋게 돌리지를 못하고서 그냥 빠져나갈 수가 없다는 결론을 내려 버리거든요. 그게 팔자 운명이에요, 그게 업이고요. 그 마음이 말입니다. 내가 한 발자국 떼어놨으면 한 발자국이 없어진 걸로 알아야 되는데 그걸 그렇게 알지 않거든요. 천 번을 걸었든지 만 번을 걸었든지 그거를 지루하게 붙들고 늘어지죠. 그리고 앞에 오지도 않은 걸 미리 생각하고 잡아끌려고 하구요. 그러니 내한테 빚이 될 수 있고 자유자재권을 잃는 거죠. 내면에 나의 주장자를 잡고 간다는 뜻은 집주인이 집을 비우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내가 내 주장자를 모르면 빈 집과 같애요. 그래서 영계성이니 세균성이니 업보성이니 인과성이니 유전성이니 하는 문제가 생기죠. 집이 비어서 누가 어놨다 할 것도 없죠. 여러분이 아무리 고생을 하고 억눌려서 산다 하더라도 함이 없이 하는 걸 알아야 진짜 함이 없이 하는 도리의 공덕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나는 잘되는 것만 생각하라 이것도 아니예요. 잘되는 거든 잘 안되는 거든 잘했든 잘못했든 양면을 다 놔라 이겁니다. 자기가 공해서 없는데 간 거는 어딨으며 온 거는 어딨겠습니까? 공한 이치를 얘기할까요? 여러분 몸 속에 천차만별의 모습과 생명, 의식이 들어 있습니다. 만약 누가 장이 아프다고 그랬을 때 어떤 놈이 장을 아프게 했습니까? 또 위가 아프다고 그랬을 때 어떤 놈이 위를 아프게 했겠습니까? 더불어 같이 사는 한 도반들인데 누가 그랬겠습니까? 예를 들어 우리는 지금 지구라는 공기주머니 안에서만 살지 그 공기주머니를 벗어나면 죽습니다. 그러듯이 우리 몸안의 생명들도 몸 바깥으로 나오면 죽어요. 그러나 그 의식들하고 나의 마음 모두가 하나로 동일하게 된다면 그대로 그 속의 의식들이 다 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떠한 거든지 화해서 응신으로 나툴 때 여러분은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다 해결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려운 경전을 보고 불법은 어렵다 이러지 마시고 내 모습을 보고서 공이 색이요 색이 공인 뜻을 아셔야 합니다. 한발짝 떼어놓으면 없어지는데 앞에 것은 어딨으며 뒤에 것은 어딨겠느냐. 그런데 내가 발을 떼어놓지 않는다면 모르지만, 자꾸 떼어놓는데 어떤 발자국을 떼어놨을 때 내가 했다고 하리까? 몸뚱이 속에서 여럿이 더불어 같이 사는데 말입니다. 보는 것도 혼자 봤다고 말 못하죠. 이 생명들이 다 작용을 해주기 때문에 보는 거 아닙니까?

내가 꽁해 오갈 것 없어

한 군데서만 작용을 안해줘도 병이 나죠. 콩팥 하나만 봐도 그래요. 여기에서 피를 걸러 주지 않으면 사람 노릇을 못해요. 각자 소임 맡은 대로 작용을 하죠. 수분이 필요하면 물을 달라고 해서 물을 채워주고 배가 고프다면 밥을 달라고 해서 서로 이쪽 저쪽 심부름을 해줘서 건강하게 다니게끔 되는 거죠. 그렇게 갖추어 가지고 있어 고정됨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믿지를 않으니 걱정이죠. 보는 것도 듣는 것도 말하는 것도, 가고 오는 것도 만나는 것도, 먹는 것도 하다 못해 자는 것까지도 고정된 게 없이 움죽거리고 산다는 얘기죠. 그렇게 움죽거리고 사니까 이거는 공했다는 거죠. 어떤 걸 먹었을 때 내가 먹었다고 할 수 있으랴. 어떤 걸 했을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있으랴. 그래서 부처라고 한 겁니다. 더불어 그냥 여여하게 걸림 없이 그냥 하고 가지 않습니까? 그거와 같은 거예요. 생활이 전부.

그러니까 이 세상이 초월해서 과거도 없고 미래도 없고 현실도 공해서 그렇게 여여하다 이런 거죠. 여러분께서 그것만 딱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말이예요. 하하하. 수억겁을 살아오면서 그거를 모르기 때문에 자기 마음을 가지고도 자기 마음대로 못쓰는 거예요. 아무리 써도 쓰는 사이없이 쓰는 건데 말입니다. 얼마나 편안하고 걸림없고 좋겠습니까? 능력이 있으니까 오늘 죽어도 그만 내일 죽어도 그만 이렇게 생각이 되는 거지 능력이 없다면 아마 죽을까봐 겁날 겁니다. 이것은 능력이에요. 지혜로운 능력!

이거 하나만 알면은 천차만별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자기가 자유자재로이 할 수 있는데, 집안에 무슨 일만 생기면 '스님, 이거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관해도 안됩니다.' 이러거든요. 진짜로 자기를, 자기 뿌리를 자기 싹이 모르기 때문입니다. 자기 뿌리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그래서 너를 모르걸랑은 저 일체 만물을 다 보라. 뿌리없이 사는 거 봤냐고, 종자없이 심어 먹는 거 봤냐고 그럽니다.

질문자1: 스님, 안녕하십니까? 부산지원 청년회 2부 대학생법회 이은정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이 자리에 서서 스님에게 질문을 드리게 돼서 주인공에게 너무나 감사하고요, 더욱 더 건강하십시오.

이생의 가족 인연은 자기가 지어놓은 대로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하지만 가족이 가족이 아닌 원수처럼 싸우고, 미워하고 고달프게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꼭 함께 괴롭게 살면서 이러한 인연을 녹여야만 하는 것만이 최선인가요, 아니면 너무도 고달프니까 헤어져 살면서도 서로의 인연을 녹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요?

고정됨 없는 도리 알라

스님: 그거는 자기 상황에 따라서 자기가 이럭하는게 좋다, 저럭하는 게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들 때에 그대로 행하는 거지, 그리고 가족 인연이라면 그건 피치 못할 일들이지, 우리가 전자의 인연이 있으니까 만난 인연들이거든, 그건 뭐냐하면 인연이 있고 없고 간에 차원대로 만나는 인연이니까. 만약에 예를 들어서 금 차원이라면 금끼리 모이게 돼 있거든? 그리고 무쇠 차원이라면 무쇠들끼리 모여서 살게 마련이거든, 한가족이 다 그래. 우연이라는 게 없어.

그러니까 각자, 그 가족에 대해서 상대방의 탓을 하는 게 아니고 제각기 자기 탓을 해야지, 자기가 그 자리에 같은 차원에서 태어났으니깐, 내가 있으니까 잘했든 못했든 상대가 있는 거지, 내가 없다면 무슨 상대가 있어?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을 내 탓으로 돌리고 거기에다 관하라, 그러면 그것까지도 없어질 수 있다, 회개를 할 수 있게끔 된다. 그렇게 해서 녹이는 거지, 끊는 게 아냐, 끊는 거는 다시 이어질 수 있지만 녹이는 것은 들이 아니게 녹이는 까닭에 아주 해 말갛게 무너지는 거지.

어떠한 거든지 꼬집어서 잘못된다 잘된다 이러지 말고 평등공법으로서 그냥 편안하게 모든 거를 거기다가 그저 오는 대로 집어넣어, 그 소리를 옛날에는 선지식들이 '부처가 오면 그냥 죽이겠다' 이랬거든? 그 말이 무지막지해서 그렇지 그냥 물 아니게 집어먹는다는 뜻이야.

질문자2: 이 공부를 하게 허준 내 주인공과 길을 밝혀주신 큰스님께 정말 감사드립니다. '나와 세상이 더불어 좋은 것이 불법이다' 라고 하셨는데요. 저는 이 공부를 하기 전까지는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 특히 분단으로 인해서 생기는 여러 가지 사회적 구조를 해결하는 방법은 다수가 단결된 힘에 의

☞ 16면으로 계속

법공양페이지는 동참을 원하는 종단·사찰 스스로 제작의 주체가 되어 각기 재량하에 소재를 선택하고 본 편집진과 함께 지면의 틀을 짜는 방식으로 제작됩니다.
법공양페이지는 약간의 실비부담만으로 종단 또는 전국 어느 사찰이라도 이용 가능하며 개인 불자의 경우는 특정 종단 또는 사찰을 지정하여 제작을 의뢰할 수 있습니다.

禪

선 방 안 내

365일 24시간 선방 개방 중 입니다.
■ 매일 철야 가능 ■
강남지역 불자는 강남선방을 이용바랍니다.
※약도 : 본회 조계사 후문 원당빌딩 2층
강남 선방, 봉은사 버스정류장 5층 건물 3층
■문의 : (02)732-5960

대한불교 조계종 修 禪 會

선 방 :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19
강남선방 : 강남구 삼성동 77-23 301호
양평선방 :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갈운 3리
카나다修禪會禪房 460 ENGIN MILLS RD. E. #10 Richmond Hill. ONT. L 4C 1G2 CANADA

참선교육 51기는 9월 5일 개강
— 참선교육 교제 필요한 분 연락바람! —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高養山 야생참인진쑥 엑기스

고양산 야생참인진쑥 엑기스는?



야생참 인진쑥(茵蔯蒿)는 깊은 산속에서 수년~수십년간 자라면서 한겨울 눈덤이 속에서도 파란잎과 꽃기를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는 사철쑥을 말합니다. 구생복지원 암쟁스님은 아리랑의 고장 강원도 정선 고양산속에서 자라는 야생 참인진쑥(茵蔯蒿)을 3년동안 채취하고 고양산 자락에서 5년이상 자란 황기, 당귀, 자연산 복분자(산딸기)등 8종의 약초를 가미해 보사부에서 정식 허가(정선 제1-3호)를 받아서 현대식시설을 이용 위생적으로 추출 가공한 건강식품이므로 승려로서 자신있게 권해드리오니 건강한 몸과 마음으로 다함께성불하십시다.

지금까지 시중에 유통된 일반적인 인진쑥과는 다릅니다.



구생복지원 강암행스님

공급가격 - 2개월분 ₩175,000
우체국 010108-0179782 강종무
은행신용카드 18개월 분할 가능

각종 암과 불치병 예방이나 치료에 특효라는 자연산 상황버섯, 기간지전식·홍역기침에 특효라는 가래엿, 관절·골다공증·골절에 쓰이는 토종홍화씨 등이 필요하신 분은 연락주십시요.

순수익이금은 (전액) 복지사업에 쓰여집니다.

체질에 관계없이 남자, 여자, 노인분들, 임산부, 노약자, 입원환자 등 모두에게 좋습니다.

1. 간이 나쁜사람.
2. 항상 피로한 사람.
3. 위장이 나쁜사람.
4. 변비가 있는 사람.
5. 고혈압, 저혈압.
6. 정력 회춘에 좋습니다.
7. 생리통, 생리불순.
8. 냉대하, 신경통.
9. 당뇨, 황달.
10. 불멸증 입원환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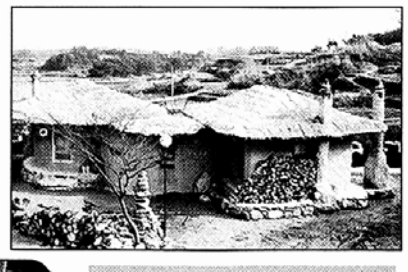
※ 남은 여생을 산과 물좋은 곳에서 황토방 생활을 하고 싶은 분은 연락주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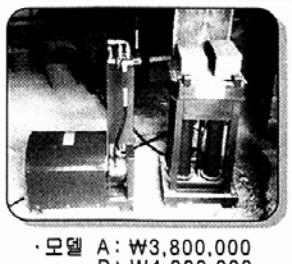
☎주 문 처 080-988-4774 ☎소비자상담실 0398-563-4778
인터넷 http: //www.yasenginjinssook.co.kr

황토 흙벽돌 기계 실용신안 의장등록

■ 건강, 장수주택 황토흙집에 희소식!!

황토를 물에 반죽 하지 않고 생흙을 벽돌로 찍어 바로 건축이 가능한 흙벽돌 기계를 생산 판매합니다.





▣ 황토 흙벽돌 기계장점
■ 생산량 1일 600~1,000장
■ 누구나 사용가능
■ 벽돌기본규격 : 30×14×14
■ 가정용 전기사용 및 엔진사용

·모델 A: ₩3,800,000
B: ₩4,300,000

▶ 온라인구좌 (우체국)
400077-0037300 봉송황토마을

황토관련 전문회사 황토마을에서는
◐ 황토 주택 토굴시공
◐ 토굴 현장 출장감독
◐ 황토흙집 동호인 모임운영

봉송황토마을
전북 남원시 운봉읍 장교리 929번지
전화 : 0671)634-0223
팩스 : 0671)34-1237

길을 묻는 이에게



대행스님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PC통신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쭈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 보낼곳: 우 110-170 서울시 종로구 견지동 110-33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 인터넷:www.hanmaum.org ● FAX: (0343)470-3116

자기뿌리 믿으면 자유자재 할 수 있어

☞ 15면에서 계속

해서만이 된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공부를 하면서는 '잘됐으면 좋겠다' 라는 마음만을 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 사회가 안고 있는 이런 여러 가지 사회적 고(苦)를 해결하는데 있어서 이 마음공부를 어떻게 해야만이 정말 잘 할 수 있는 것이고 또 될 수 있는 것인지 큰스님께 여쭈고 싶습니다.

나 아닌 나가 있어 해결

스님: 예를 들어서 잘못된 일이 있어서 해결을 할 시에는 주인공한테 '해주시오' 가 아니고 '이거 이렇게 잘 해야지. 잘 해야잖아. 이걸 해결해야잖아' 이렇게만 해도 그것이 진짜 그거야. 그렇게 하는 거야. 둘이 아닌 까닭에 그런 거야. '주인공, 해주시오' 하면은 벌써 둘이 되지. 그지? 그런데 '이거를 해결을 해야잖아!' 할 때는 하나가 되는 거야.

그거를 세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그것이 그렇게 되는 것을 잘 모르고, 두번째도 '그렇게 되는 이치는 아는데 내가 하면 안 된다' 또 세번째는 '그렇게 하기만 하면 다 된다. 안되는 게 어딨으랴' 이런 사람이 있죠. 가만히 생각을 해봐요. 우리가 벌써 그렇게 '이거 해결해야지' 할 때는 내 아닌 나가, 내 아닌 나가 가고 옴이 없이 가고 오면서 함이 없이 해결을 하거든. 그 마음이 보살로 화해서 어떠한 사람이든지 모두가 결부돼 있지. 그러니까 사람의 가슴에 투입이 돼서 전부 어떻게든 돌려지게끔 해요. 그렇게 말을 해도 그거를 믿지를 않아요. 체가 없으니깐 하는 거지



그림 · 최주현

내탓으로 돌려 관할때 쌓인 업식 무너집니다

체가 있다면 할 수가 없지. 체가 있는 몸뚱이는 부지런히 뛰고 체가 없는 참자기는 부지런히 해결하는 데에, 즉 용무로서 공법으로서 즉, 그 해결을 한다 이거야.

그러니까 나같으면 모두를 걱정할 게 하나도 없다고 봐. 지금 불사를 하는데 '왜 이렇게 더디고 안되나?' 이러지? 어떤 경우가 닥쳤어도 그것은 내가 하는 것도 아니고 남이 하는 것도 아니야. 오로지 한도량에서 일체제불의 마음이 그대로 일체 중생들의 마음이야, 즉 말하자면 부처님들의 집이지. 부처님들의 집을 부처님들이 하는데 뭐 왜 이렇게 되느냐 저렇게 되느냐 할 필요가 없거든. 그러니까 걱정이 없단 말이야. 그러니 모두 편안하게 살 수 있다면 그렇게 해야지 할 때 벌써 그걸 믿으니까 '이거 해결해야잖아' 하는 거 아냐? 믿으니까. 믿지 않는다면 거기다가 그렇게 할 수가 없지. 자기 뿌리니까, 얼른 쉽게 말해서 이 몸뚱이가 자동차라면 그 자동차 안에 운전수니까.

지금 전 세계가 정신계로 발전을 할려고 무진 노력을 하고 연구들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냥 저절로 주어졌으니 얼마나 좋겠소? 하하하하. 그렇게 해서 어떠한 문제라도 싱긋이 웃고 남이 이렇게 이렇게 한다 이래도 여기선 싱긋이 웃고, 그거를 전부 알고 있으니까 싱긋이 웃죠.

질문자3(남): 큰스님 안녕하세요. 안양본원 청년회 김정덕이라고 합니다 항상 어떡하면 저희들에게 주인공 도리를 좀 더 잘 먹게 할 수 있을까 하시고 항상 마음을 내주시는 것에 대해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 자리에 큰스님과 여러 청년법우님들과 함께 자리를 할 수 있게 된 데 대해서 깊이 감사드립니다.

지난 8월에 일간신문에 나온 얘기입니다. 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손가락 하나 움직이지 않고 뇌에서 나오는 파장을 가지고 텔레비전과 같은 가전제품을 동작시킬 수 있는 시대가 곧 올 것이라는 기사였습니다. 실제로 호주의 시드니 공과대학의 한 연구팀이 사람의 뇌파를 이용해서 전자제품을 동작시키는 기술을 개발했다고 합니다. 이 기술을 이용해서 형광등과 같은 전등, 텔레비전, 장난감, 전기자동차를 작동하는 실험을 성공적으로 마쳤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텔레비전이 켜진다' 라고 하면은 텔레비젼이 켜지는 식인 것입니다. 이 연구팀이 개발한 장치, 뇌파통력 장치라고 하는데요. 이 장치는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 마음속에 투사되는 뇌에서 발생되는 독특한 신호를 포착해서 전선을 통해 동력장치로 전달되고 여기서 신호를 다시 키운 다음, 다시 유선이나 무선으로 전자제품을 동작시킨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연구팀의 말에 의하면 사람이 눈을 감고 있을 때 가장 믿을만 하고 관득이 가능한 뇌파가 발생한다고 합니다. 결국 그런 뇌파라는 것이 한생각에서 비롯된 전자의 덩어리라는 것과 생각에 따라 뇌파의 형태가 다르다는 것을 보면 정말 생각에 따라 천차만별로 입자들이 들고 나는 것이겠구나 라는 생각도 해봅니다.

아무튼 그 기사의 내용만 봐서는 더 자세한 것을 알 수 없었지마는 한생각이 눈에 보이게끔 발현되는 마음법에 대한 하나의 과학적 증거가 아닐까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직까지 마음과 마음이 보이지 않게 통신이 되는 도리를 완전히 보여주지 못하는 것이겠지만 그 일면을 볼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큰스님께서 항상 말씀하시는 한생각이 법이 되어 굴러가는 도리, 물질과 마음이 둘 아닌 도리가 세간에 드러난 것이 아닌가 합니다. 지금까지의 내용에 대해서 큰스님께서 한 말씀 해주시면 공부하는데 더욱 심지를 굳히고 열심히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스님: 허허허허. 그런데 그 목적은 역시 정신계의 눈이라고도 할 수 있지. 내가 항상 얘기하잖아. 사람의 마음이 관하는 거, 진짜 믿고 관한다면은, 모든 일거수 일투족 그놈이 한다고 생각을 할 때 거기서 대뇌로 통신이 된다고. 대뇌로 통신이 될 때 오신통이라는 거 내가 얘기하지? 오신통 그것이 정수에까지 입력이 되게끔 보조를 해요. 그것이 다 보조원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러면 정수에까지 입력이 돼서 현실에 나오거든요. 그렇게 생각을 해서 입력이 돼서 나오는 거는 정신계에서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그 마음 하나가 천 개로 화할 수도 있고 만 개로 화할 수도 있어요. 또 어떤 물건을 연구하는데 어떤 자리에 놓여있어야 된다, 어떤 자리에 이것이 들어가야 된다, 어떤 부속이 들어가야 된다, 이것까지도 다 거기서 설계가 나오거든.

지금 내가 이렇게 말은 하지만 여러분이 보지 못하고 알지 못하니깐 '어휴, 그거 정말 그럴까?'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웁지. 그렇지만 인간이라는 건 전체 능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첨단을 넘을 수도 있고, 즉 말하자면 대 차원의 능력도 가져올 수 있단 말이야. 그렇게 한 가지를 가지고 몰두한 사람은 한 가지만 할 수 있겠지. 그러나 한 가지를 연구했는데 그 한 가지를 연구해내면 또 그 식으로 해내서 또 딴 거를 연구할 수도 있거든. 자꾸 거기서 풀려나오니까. 그래서 '이 공부를 해라, 이 공부를 해라' 하는 거라구.

내가 말하기를 땅에서 에너지가 없어서 못살게 되면 허공에서 에너지를 꺼내 쓸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 정신계의 모두를 다 알지는 못해도 그래도 웬만큼 꺼내서 연구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된다면 꺼내 쓸 수 있다. 차원이 높아지면 꺼내 쓸 수 있다. 그러니 우리 몇 사람으로 인해서도 이 지구의 생명들을 다 살릴 수가 있다. 이런 말도 하죠. 그러니까 그 연구해 내는 사람도 그거를 하나 연구했기 때문에 자기는 물론이거니와 그 외의 사람들도 다 살잖아요. 그리고 또 한국의 국민으로서 나라도 무척 발전이 되고 세계적으로 겨눠 볼 수도 있는 거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기 소임을 가지고 나가는 거를 적든지 크든지 연구를 한번들 잘해봐요. 그럼 어떻게 해야만 그 진짜 연구를 할 수 있나? 문 없는 문부터 알아야 되지 않겠소? 그러니까 모두가 자기가 맡아서 현재 해나가는 일이 전부 연구 대상이 돼란 얘기지.

문없는 문부터 알아야

질문자4(여): 본원 청년회 합창단의 한정희입니다. 우선 제 뿌리가 있다는 걸 가르쳐주신 큰스님께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어느날 제가 선원에 오면서 항상 그렇듯이 합장을 하고 법당에 올라가서 삼배를 올리는데 어떤 날은 큰스님이 계신 곳을 이렇게 보게 돼요. 그러면 정원의 나무가 바람에 흔들리는 모습을 보면서 '큰스님 저 왔어요' 라든지 아니면 '안녕하세요' 라고 인사를 하거든요. 그렇게 인사를 하고 법당에 올라가서 삼배를 올리고 앉아있으면 제가 어떤 날은 부처님께 떼쓰는 모습도 있고 또 부처님께 제 스스로 인사를 드릴 때가 있어요. '부처님 저 왔어요' 이런 제 모습을 보면서 제가 깜짝깜짝 놀래요. '아니, 둘이 아닌데, 하나인데…' 그러면서 제가 생각하기에, '아 큰스님께서 가르쳐주신 것을 머리로만 알아들었는가' 하면서 한생각 다시 놓고 돌리고 말기고 하는데 이럴 때 어떻게 관해야 하는지 큰스님, 가르침을 구합니다.

스님: 우리가 둘이 아니라고 하지만 하나에서 몇 천 몇 만이 될 수도 있고 몇 만이 하나로 될 수도 있고, 셋으로 될 수도 있고 다섯으로 될 수도 있고, 그건 자유자재야.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만났으면 내가 인사를 한다 해서 둘인 게 아냐. 이 거죽의 모습은 둘이었지마는 마음은 항상 '주인공' 하면은 벌써 한데 합쳐지는 찰나거든. 그런데 그것이 합쳐져서 그냥 알게 되면 주인공 이름을 부르지 않아도 저절로 그냥…, 텔레비전 보면서도 일할 거 일할 수 있지. 그런데 그렇게 죽도록 일을 한다 하더라도 남이 보지 못하는 거니까 함이 없이 한다. 그러니까 보는 사이없이 봤다, 이 소리야. 그래서 보는 것도 부처님께선 도가 아니라고 그랬으니 그건 무엇에다 쓸 거냐. 우선에 봐야 먹지, 하하하. 그러니깐 먹기 위해서 보는 것 뿐이야. 하기 위해서 듣는 것 뿐이고, 또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어디서 온 거를 알아야 하고… 안 그래?

그러니까 상대방의 마음을 아주 뚫어지게 알아야만 되겠으니깐 그 다섯 가지를 다 알아야 된다는 얘기지. 내가 이 물 한 컵을 여기다 두고도 보지 못하고 듣지도 못한다면 목마를 때 어떻게 갖다 먹나?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육으로 살면서도 눈이 안보이면 죽겠는데, 속눈이 안뜨여서 보이지 않는 세계를 못본다면 참, 그것처럼 답답한 게 없을 거야. 그러니깐 그저, 둘이 아니기 때문에 둘이 될 수도 있고 여러 개가 될 수도 있다. 그걸 알아서 그것이 자유스럽다. 오신통이 즉 보조원이지, 보조원, 목적을 달성하는 데 보조원이라구.

질문자5(여): 대구에서 온 조명희입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부처님전에 바치더라도 그것이 기복이라면 공덕이 없다고 큰스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대입합격을 위해서 부처님전에 돈을 바치고 기원하는 것은 그런 기복과 무슨 차이가 있는지 큰스님의 가르침을 청합니다.

스님: 우리가 공부가 다 된 사람같으면 그것도 저것도 다 없어도 돼. 그러나 자식은 관할 줄도 모르고 고집이 세어서 어머니만 애타서 관하고 다니시는데 가설이 돼야 불이 들어오지, 가설이 되지 않는다면 불이 안 들어온다는 얘기야. 그러면 과거의 차원이 어떻게 살던 차원이 이 세상에 나와서 그렇게 부모의 속을 썩이느냐? 이 뜻을 한번 생각해 볼 때 그것은 부모도 자기 탓이고 자식도 자기 탓이거든. 그러니까 그것은 그 사람들의 마음에 따라서 정성들이는 거지. 예를 들어서 간편하게 그냥 생략해서 말하지, 만약 이 영령으로서 갇혀있는 몸이라면 아무리 내가 할 양으로 고심을 해도 그게 능률이 오르질 않아. 남보다 더 잠을 안자고 뛴다 하더라도 그게 능률이 오르질 않는 거야. 도무지.

그럼 부모가 정성을 들이면, 얼른 쉽게 말해서 갇혀있는 사람을 보석금을 내고서 빼내오는 거와 같은 거야. 보이는 데에 몸이 아닌 바로 영령을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부모들은 관하고 그렇게 가면서 조그마한 일, 이렇게 경험을 하다 보니까 '아하, 내 아들을 내가 빼내야지 안 되겠구나! 스님네들이 아무리 계셔도 갇혀있는 걸 빼내는 건 내가 해야 되는 거구나, 누가 뺏어갈 것도 없고 누가 갖다 주는 것도 아니구나!' 이걸 알게 되는 거야. 어머니들이…. 그래서 자기 아들들을 빼내오는 거나 같애.

그런데 지금 이런 말이 나왔으니까 얘긴데 어떤 부모들은 말이야, 그 집이 부자는 아니더라도 그래도 다스리고 살 만한 집안에서도 돈이 아까워서 말이야, 그렇다고 해서 내가 얘기할 수는 없잖아. '이렇게 이렇게 돼있는 사람이니깐 이거를 얼른 쉽게 말해서 보석금을 내고 아들 빼라. 그러니까 이렇게 이렇게 해라'

'나'나 '남'이 하는게 아닌 일체제불 마음이 합니다

이렇게 할 수는 없잖어? 자기네를 위해서 자기네가 알아서 해야지.

그러니까 돈이 있는데도 어떤 때는 조그만치 넣어가지고 와선 태산같은 짐을 빼내라 그러거든. '스님, 마음 좀 내셔서 이거를 다 해결을 해주십시오' 그러고는 듣고 있으면 또 '아이, 한마디 더 하고 가겠습니다.' 그러고는 또 한마디 하는 게 태산같은 거라. (대중들 웃음) 그것이 내가 그 사람 마음이 돼서 한데 합쳐 줄래도 무의 법에 의해서 그 마음이 아리따웁질 못하니까 그게 되질 않어. 버선목에 감춰가지고 있던 그 돈이라도 아들을 위해서 참, 절반이라도 이렇게 갖다가 정성을 들인다면 그 마음이 아리따워서 합쳐질텐데, 숨겨놓고 아까워서 안 내놓고 그 부스러기 돈, 쓰다 남은 거 그냥, 헌 돈이든 새 돈이든 아랑곳없이 그냥 갖다가 놓는 거는 그게 정성이 될 수가 없지.

그래서 언젠가 내가 가난하게 장사하는 집더러 한번은 그렇게 얘기한 적이 있어. '단 천원이라도 좋으니까 장사를 해서 조금 벌으면 그저 새 돈으로 모아라. 조금씩 모아서 올 때 가져오는 것도 그것도 너의 정성이니까, 그러니까 네가 천원을 했으면 2천원 3천원은 거기 이자로 붙어 돌아간다.' 그런 말한 예도 있어요. 거저는 없거든. 사람들이 만약에 5만원을 가져왔다 이런다면 15만원을 불려서 줄지언정 손해가 나겠어? 자기가 한 것만큼 받아가는 거지. 또 이런 경우가 있지. 그 가정에 딴 식구는 다 기독교를 믿고 맏자식이 제사도 안지내기 때문에 막내 며느리가, 예를 들어서 가난해서 단돈 3만원을 가져와도 그건 아리따워서, 딴 사람이 다 안지내는 제사를 그 어려운 처지에서도 제사를 지내겠다는 부모에 대한 마음이 너무 아리따워서 그거는, 그걸 가지고도 태산같은 거를 다 해결을 할 수 있어.

하지만 그 하나만 알고 둘은 모르는 사람들에 한해서는 해는 없지. 주되 이자가 조금 붙어 돌아가게 하지. 예를 들어서 그러한 경우가 많이 있다 이거야.

전진도 후퇴도 모두 법

원주에 이런 사람이 있었어. 계급이 대위인데 애들이 일곱이야. 그러니 합해서 아홉 식구지? 그런데 그 부인이 항상 그 치마를 덮어 쓰고선 벌벌 떨어. 애들 밥도 못해주고 항상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집 팔아서 다 넣고 그랬는데도 영 낫질 않는 거야. 언젠가 원주에 신도집엘 갔는데 손가락에 실반지 하나 낀 거하고 사탕 한 봉지하고 그렇게 가져와서 '우리 집사람 좀 어떻게 고쳐서 애들 밥이라도 해줄 수 있게끔 좀 선처를 베풀어 달라' 고 그 남자가 와서 그러는 거야. 그래서 보니까 그집 식구가 이북에서 치마를 덮어쓴 채 총살을 당했단 말이야. 그런데 그거 사탕 한 봉지 가져온 거 가지고 그 조상들을 다 천도 시켜서 빼내줄 수 있겠어? 빼내줄 수 없지. 그렇지만 그렇게 해줬어. 그건 왜냐하면 그 마음이 너무나 불쌍해서. 예를 들어서 '만약에 내 아들이었다면 어떡하겠니?' 이랬어. 내가 날더러. 누구나가 어머니든 아버지든 자기 자식이라면 사탕 한 봉지를 안 갖다줘도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바쳐서 할 거란 말이야. 안 그래? 자식이 물에 빠졌으면 자기가 빠져죽더라도 그냥 꺼낼려고 할 거란 말이야. 그런 심정으로서 그거를 해결을, 그러니깐 내가 해결을 했다기보다도 그대로 저절로 된 거지. 그래서 나았어. 나아서 다니니까 그 반지는 도로 줬지. 왜냐하면 내가 그 반지는 해서 뭘 해. (대중들 웃음)

그러니까 이게 사탕 한 봉지 주고 이렇게 했다고 그 입으로다가 할 수도 없이 기가 막힌 일이잖아. 그러니 그런 말을 함부로 할 수도 없는 거야, 그 남자가. 이상스러우니까. 그렇지만 그대로 그냥 잘 지내다가 이제 아프지 않으니까 돈이 모이고 그래서 집을 한 채 사고 잘 살았어요. 그랬는데 여기를 내가 인제 왔다구. 그랬더니 이리로 나를 찾아왔더라구. 그래 뭐라 그러냐면, 부인이 와서, 남편 진급이 되게 해달라고 정성을 들이는 거죠. 인제 살게 됐으니까, 그래 정성을 들이고 갔어요. 웬 사흘을 정 들이고 가더라고요. 그러더니 얼마 있다가 오더라구.

그랬더니 '아이구, 우리 남편 정성을 들였는데 승진도 안되고, 딴 사람이 승진돼서 월남 갔다' 고 그러더란 말이야. '우리 아빤 떨어지고, 아무것도 되지 않고…,' 그래서 '가는 것도 법, 떨어지는 것도 법이니까 그대로 알고 가라' 고 그랬더니 그걸 못 알아듣는 거지. 가더니만 근 일년간이나 있다가 왔어요. '아휴! 스님 고마워요. 우리 아빠가 갈 걸 갖다가 딴 사람이 가서는 죽었어요, 죽어서 왔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사람이라는 게 후퇴하는 것도 법, 전진하는 것도 법, 이러니깐 걸리지 말고, 전진을 해도 걸리지 말고 후퇴를 해도 걸리지 말라. 그러면 사는 도리가 생긴다. 참, 이거 묘법인데….

이 세상은 내가 하지 않고는 내 행복을 내가 찾지 못해. 그러니 잘 났든지 못났든지 권세가 있든지 없든지 행복하게 만드는 건 자기 자신이야. 꼭 그렇게 알고 울지 말고 밝게 열심히들 살아요.

※위 법문은 1997년 1월 5일 제6회 전국청년연합법회에서 설법한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가려운 언덕을 넘듯 고달픈 현실에 힘겨워하는 사람들 순간순간이 고통으로 느껴지는 현대인들에게 대행 스님이 띄우는 희망의 메시지 삶은 고(苦)가 아니다



A5신 288쪽
값 6,000원
여시아문

대행 스님과 신행 상담을 원하시는 분은 현대불교신문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팩스:0343-470-3116)앞이나 인터넷 부다피아(http://www.hanmaum.org)로 연락 바랍니다.



불자정보 광고는
불자 여러분이 필요한 모든 정보를 만날 수 있는 생활광고면입니다.

불교관련상품, 강좌안내, 구인 · 구직, 각종 소식,
홍보 등 생활 속의 모든 정보가 살아 있습니다.

불자정보 문의

홍보내용을 정하신 다음 전화나 FAX로 담당자와 상의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전화: (02)732-1522(直), (02)737-8881(代) FAX : (02)737-0697
※ 현대불교 전국 지사 · 지국에서도 접수 가능합니다.

최소규격 및 가격

세로 5cm × 가로 4cm (1회 4만원)
(세로는 고정, 가로 1cm 증가시 1만원 추가)
※ 4회이상 게재시 할인혜택을 드립니다.

건강

病 없는 세계로 가는 길
선관단식
안내책자 무료우송
⊙수련장: 경남 사천시 용현면
와룡산 **용님선원**
♣안내 : 0593)834-1115~6
016)849-3858
012)1166-3858

氣
(땅의 기운이 영험해야 인물이 난다)
※ 전국의 명당 기 측정기
강화도 마니산 → 65회전
해인사 독성각 → 46회전
팔공산 갓바위 → 16회전
P대통령 생가 → 50회전
K대통령 생가 → 50회전
세계 최초로 공개
특별 보급가 35만원
(수맥탐지기 1세트 증정)
전화주시면 팜플렛 우송
TEL:053)982-4976/011)813-3679
靈動神氣와 神明自感이라

강좌

역학 강의합니다
▶ 과 목 : 서주 · 관상 · 육효
▶ 교 재 : 千江月(봉인저) 복서정종
▶ 과 정: 4개월
▶ 장 소: 관음사 포교원
(서울 동대문구 제기동)
· 천년을 이어온 중국 정통역학
· 불교 도교도 공부하실 수 있습니다.
· 지방 출장도가능
02)396-6079/016)852-5255

전통불교의식 수강생 모집
▣불전의식
▶ 기본과정 : 도량식, 헛송, 예경, 불공시식 대령, 관욕 신중작법 지장청, 다비의식, 제반의식 등
▶ 중급과정 : 천도의식, 바라무, 작법무, 특별의식 등
▣무료강좌
▶ 생활불교의식과정 : 예경, 통과의례, 고사, 불공 가정의례, 법회의식, 기도의식등
▶ 교육기간 : 3개월 ▶ 지방수강생 상담 환영
전통불교의식 연구원
02)481-4482

사주명리학
책임개인지도 완성까지
숙식제공 가능
※공양주 하면서 역학공부
하실분 환영함
진주시내이면서 조용한 기도 도량
0591)755-6997/759-1514
016)612-9204

철 학 (개인지도)
▶ 주역 (周易)
1. 四柱로 손님을 감정하다.
(한제를 느끼고)벽에 부닥친분들
2. 아무리 공부를해도 말문이 열리지 않은 분들
3. 기초는 없으나, 늘 배워보고 싶은분들
4. 혼자서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는분들
5. 혼자 책을 봐서 지친분들
6. 처음 배워서 개업 하실분
※ 노력여하에 따라 3~5개월 에 개업확신
02)571-4773(578-0480)
018)419-4167 고 운 처사

구인구직

모십니다
불사중인 사찰입니다.
컴퓨터 가능한 종무일 보실분
연령 30~40미만 독신녀
기도스님 비구니스님 모십니다.
연령 30~40미만
기도도량 **문수사**
0545)973-8415
011)517-8415

노적사 행자 모집
입산 수행할 행자를
모집하고 있으니
뜻있는 분들의 많은 지원
바랍니다.
대한불교 조계종 노적사
02)353-5016(종무소)
353-4924(주지실)

상원사 종무원 모집
▶ 연 령 : 20 ~ 30세 ▶ 성 별 : 女 (불자)
▶ 자 격 : 고졸 이상, 정보통신 기능자
▶ 접수마감 : 2000년 6월
▶ 접수처 : 상원사 종무소
0374)332-6666
※ 이력서 지참, 직접 내사
대한불교 조계종 상원사
강원도 평창군 진부면 동산리 63번지

사무직 보살
공양주 보살
구합니다
0455)
673-2333

지리산 아름다운 계곡
작은 암자 공부하실
공양주 보살 모십니다.
0596)
973-9630

공양주보살님
모십니다.
(50대 여자분)
양구 **상운사**
0364)
482-3382~3

수양원

◆청학사 수양원◆
■ 수양 · 기도 · 공부 · 참선
■ 1인 1실-침구 일체 완비
■ 月 숙식비 : 30만원
■ 명퇴자, 실직자 환영
0595)883-2935
0595)883-2933
경남 하동군 악양면 노전마을
청 학 사
※단체 불교수련대회 접수 받습니다.

수양 휴양
▶ 산림욕, 약수, 참선, 기도 최적
▶ 오랜지병 즉각 효험
▶ 경관이 수려한 현대식 목조주택
▶ 강원도 홍천 건강샘터
성 림 사
0366)435-6166

출가수행 농장에서 수양생활 하실 분
▶ 절 일을 도와주실 보살님, 거사님, 절에서 살고자 하는 보살님, 거사님 노스님 수행원 건립에 화주 시주자 기다립니다.
▶ 어린이 법회 위기 선생님 급구 (일요일 오전 10시)
불교사회복지 **까치마을**
02)885-1558
수련원 농장 0433)542-2238

불교용품

강원 버섯 농장 (太白山)
1. 상황 버섯(자연산 및 봉나무 재배)
2. 동충하초 3. 아가리쿠스
4. 송이 버섯(자연산) 5. 장뇌 산삼 (太白山채취)
6. 지장수(황토에서 추출한 물)
※ 전화주시면 안내 책자 우송하여 드립니다.
강원버섯 농장 김 동 수
강원도 철원군 서면 자등6리 1814
0353)458-8077/017)355-8995

보 이 명 가
陣年 普 茶 전문 판매점
鄧時海교수의 감정하에 입하된
이 시대의 마지막 명차 **광운공병**
普 茶의 효능을 말로서 이루다
표현할 수 없습니다.
직접 음다해 보십시오. 방문 음다 환영합니다.
다기 · 생활자기 신현철 선생 작품 판매
02)3443-9612
544-9649(fax)

기타

지식정보화시대 **인터넷포교**
활성화를 위한 **홈페이지** 제작
웹호스팅 각종 프로그램개발
【CGI, PHP, ASP, JAVA】특별
서비스 상담전화 02)2242-2376
http : //www.mapsi.net
E-mail : webmaster@Mapsi.net
한국불교예술문화원 후원

현 대 자 동 차
불법성 삼보님께 귀의합니다.
"스님 · 불자님의 자동차 구입에서 폐차까지 믿음으로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대 구 진 천 점
원응 곽영순 합장
011)509-9456/053)639-1100
(부재시 메모주시면 즉시 연락드리겠습니다.)

기적을 일으키는 놀라운 마늘의 약효
마 늘 커 피
100% 토종 구운마늘
◆심한 피로 · 정력강화
◆간기능 획기적 개선
◆혈압, 혈당치 낮추고 장 · 변비개선
◆손발냉증 · 피부 고와져
◆감기에 강한 체질로
▶가격: 분말(230g) : ₩39,000
환 (250g) : ₩45,000
동양물산(주) 02)832-0742

운명을 바꾸는 神秘의 벽조목
600년된 벼락 맞은 대추나무로
만든 행운의 벽조목길인
▶ 사업성공, 건강 ▶ 부부화합, 승진
▶ 취직 시험합격 〈 고등고시, 행정고시
▶ 결혼성공, 득남득녀 ▶ 매매, 증권투자
· 용도장특별보급가 7만원
· 행운의 벽조목 도장 5만원
전화주시면 캄플렛 안내서 보내드림.

053)982-4976/011)813-3679
(선착순 50명한하여 길인 새겨드립니다.)

사찰안내

포교원(급) 안내
◆위치 : 경기도 안양시 박달동 4거리
◆평수 : 3층 45평(법당), 4층 45평
즉시 법회 가능, 시설완비
◆가격 : 보증금1천만원
시설비 3천 5백만원
0343)469-1562
011)9807-6745

사찰 안내
◆ 위치 : 경기/강원 경계지역 서울에서 1시간 40분 거리
◆ 부지 : 2만 7천평
◆ 건물 : 대웅전, 무량수전 지장전, 산신각, 용왕각, 선방 요사3동(전체 단청완료)
◆ 산세가 수려하며 맑은 계곡물이 흐름
◆ 가격 : 답사후 절충
(중간소개배재/직접당사자임)
017)373-5998

사찰 안내
◆ 위 치 : 경북 김천
◆ 대지 600평 (사용부지 1000평이상)
법당28평(사무실포함), 산신각, 창고
주차장, 요사채 55평, 방 7개
◆ 특 징 : 경관이 좋으며 산속 맑은 계곡을 끼고 있으며 별장이나 기도처로 적합, 대형차량 진입
◆ 가 액 : 1억 7천 (절충가능)
0547)436-5036

사찰 안내
◆ 위치 : 수원시내
◆ 대지 : 부지 250평
(법당, 요사채, 산신각)
◆ 특징 : 주차장 완비
사찰 25여년 동안 운영
◆ 가격 : 답사후 절충
011)785-5670

사찰 안내
◆위치 : 충남 청양
◆시설 : 법당23평, 요사채1동
화장실 완비
◆ 특징 : 암자로 사용가능
◆가액 : 5천 만 원
임 대 보 증 금 1천 5백 만 원
016)355-1259

사찰 안내
◆ 위치 : 대전 보문사 내
◆ 건물 : 임법당15평, 방6개
산신각, 벽돌
◆ 부지 : 국유지 사용허가필
◆ 가격 : 답사후 절충
042)255-5063
011)9766-5563

사찰(급) 안내
◆위치 : 경남 남해 소재
◆평수 : 약1,250평
◆건물 : 법당10평, 요사채2동
◆특징 : 산새수려, 청정수 나옴
◆가액 : 9,500만원
0525)324-7346
011)831-4712

사찰(급) 안내
◆ 위치 : 충남 서천군 마산면
210번지 영주암
서천에서 차로 5분거리
◆ 대지 : 100평
◆ 건물 : 5평짜리 방2개, 목욕실
주방, 태양열, 법당, 산신각4평,
요사채10평, 홍탱화
◆ 가격 : 4천 5백만원
0459)953-3478/951-3308
011)9805-5315

포교당 안내
◆ 위 치 : 상계동 당고개
아주 조촐한 포교당
(산이깊은절)을 인수할 인연깊은
스님을 기다립니다.
◆ 근린상가 5층에 3층
약 32평 법당, 방2개, 세면장
옥상소재
02)939-7121011)9972-7121

포교원 안내
◆ 위치 : 충남 천안시 성정동
천보사 포교원
◆ 건물 : 1층 요사채 28평
주방10평, 2층법당 28평
◆ 특징 : 지장보살 칠불
모든 시설이 완벽함
◆ 가격 : 보증금 5천만원,
월10만원시설비 답사후 결정
0417)577-1469 / 017)741-1467

사찰운영하실 분
◇위치 : 전남
◇법당 : 20평
◇요사 : 30평
◇부지 : 5천평
◇가액 : 5천(장기임대)
※전국 사찰, 포교당 다량보유, 양도, 운영 하실 분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 부전스님 및 공양주 보살님 연결해 드립니다
(서울)0502) 713-5634
청송기획 02) 998-1994
011)713-5634

사찰(급) 안내
◆위치 : 충남 예산
◆부지 : 700평
◆건물 : 조립식45평
(법당15평 요사30평)
◆가액 : 6천 5백만원
0458)333-1163
018)407-1244

암자교환 원함
◆ 위치 : 익산시 신용동
원대뒤 700미터
◆ 부지 : 등기필130평, 국유지
40평, 총 180평
◆ 임법당 10평, 주방9평, 큰방1,
차량진입, 부지 넓은 산속
암자와 교환원합니다.
◆ 가격 : 전세3천, 양도7천
0653) 853-1666

사찰 안내
◆ 위치 : 울산 언양
◆ 평수 : 70평
◆ 건평 : 약 60평내
(임법당 20평+공방실 16평 + 방5개),
화장실2개, 욕실2개
◆ 가격 : 8천만원
(전세4천 5백)
052)254-1929/011-9315-1200

사찰 안내
◆ 위치 : 인천
◆ 평수 : 1500평이상(국유지)
◆ 건물 : 건평28평, 임법당
방1, 주방, 욕실
◆ 특징 : 인천시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전망 좋고, 산세
좋은 청정도량임.
◆ 가격 : 월세가능(답사후 결정)
※인연있는 스님이나 보살님을 찾습니다.
032)874-0194

사찰 안내
◆ 위치 : 강원도 영월군 하동면 내리
계곡 태백산 소백산 경계선 관광지
◆ 평수 : 6만평 도량내에 부지 1천 8백
평 현재 천탑, 천불 조성중이며 기와, 단층
40평 창고 등등 (자금관계로 급매)
◆ 특징 : 산세와 계곡풍경이 아주
좋으며, 좌우백호가 뚜렷하고 봉황이
알을 품고 있는 형국, 대사찰 부지임
◆ 가격 : 답사후 절충
0373)378-1618/011)512-7155

사찰 및 포교원 안내
◆ 위치 : 군포시 당동
◆ 대지 : 120평
(25×10×8m) 코너
건평 120평(법당, 주택, 상가)
◆ 가격 : 5억 2천만원
전세 2천만원/ 월 40만원
(지하층) 융자 6천만원 포함
0343)454-1133
011)386-6467

포교당 운영하실분
◆ 위치 : 서울 송파구
◆ 평수 : 약40평, 법당20평이상
큰방2개, 주방
◆ 특징 : 불사시설 완비, 위치최적
◆ 가격 : 전세1300만원/월103만원
(월관리비 포함)
시설비700~1,500만원, 답사후 절충
011)9928-594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온양시
◆ 부지 : 300평(년 28만원)
◆ 건물 : 법당 목조단청12평,
산신각 4평, 요사 13평(욕실2개)
◆ 가격 : 6000만원
017)705-6531

사찰 안내
◆ 위치 : 경북 경주시 성도산
무열왕릉옆
◆ 대지 : 105평, 골기와33평
아래채10평
◆ 가격 : 9,500만원
3층석탑 800만원구입 200만원 양도
0561)743-5730

포교원과 철학관 안 내
◆위치 : 대전 역전
◆법당 20평, 철학관 15평
◆가액 : 보증금 1천만원, 월세70만원
시설물, 가재도구 일체 1천만원
042)253-3545

토굴터 안내
◆ 선착순 1명 (찬스!)
◆ 양산 통도사 옆 계곡물 졸졸
◆ 부동산 거래사절(직접)
◆ 총 500평 등기 350평
◆ 가격 : 4500만원
011)508-1781
053)767-6705

포교당 안내
◆ 위 치 : 대구시 달서구 두류1동
◆ 평 수 : 약 60평, 법당30평
큰방2개, 주방
◆ 특 징 : 불사시설 완비
3층건물의 3층
◆ 가격 : 보증금2천만원
(월30만원) 시설비절충가능
019)473-7613

사찰 안내
◆ 위치 : 전북 군산시 월명동
산19-17 (월명공원 근처) 미륵사
◆ 수익허가 면적 893m
대지300평, 건물 48평
미륵부처3분 모셔져 있음.
◆ 가액 : 5천만원 (가격절충)
011)9646-3220

토굴(암자) 안내
◆ 위치 : 지리산 백운산등으로
둘러싸이고 앞으로 섬진강이
굽어 들어오며 흘러감
◆ 대지 : 130평, 법당1개
요사채1개, 방4개, 보일러식
◆ 가격 : 4천 5백만원
0664)781-4898

포교당 운영하실 분
◆ 위치 : 대구시 북구 노원 3가
◆ 건물 : 3층 임대건물 약50평,
법당30평, 거실 및 방20평
◆ 특징 : 법당 시설 완비
협의 가능
◆ 가격 : 전세 보증금 3천만원
운영중
018)576-6552

사찰운영 안내
◆ 위치 : 서울, 등산로
약수터 입구
◆ 대지 : 65평, 법당25평(2층)
요사 50평(1층), 지하실 20평
◆ 특징 : 산밑, 시내 아파트 인접
마을버스 절 안내 간판
◆ 조건 : 정법포교하는 스님
011) 241-0408

사찰 안내
◆ 위치 : 의성군 단촌면 소재
◆ 부지 : 600평, 법당20평
요사채20평
◆ 가격 : 6천만원
※ 전국의 사찰, 절터, 포교당 양도 양수하실 분 연락바랍니다.
02)326-1060
053)964-2060
018-334-9021
동진불사

사찰 안내
◆ 위치 : 충북 진천 이월면 소재
◆ 대지 : 397평
◆ 법당 : 20평
◆ 요사채 : 24평
◆ 건물 조립식, 등기 완료
◆ 가격 : 6,500만원
0434)537-4070
※스님 직접 면담

사찰 안내
◆ 위치 : 구리시 교문동 664번지
불광사
◆ 대지 : 151평
◆ 건평 : 약 30평, 방2개 및
법당 약 15평, 거실, 목욕탕
◆ 가격 : 3억 7천만원
0346)562-6904
016)464-6905

사찰 안내
◆ 위치 : 충남 예산군 덕산면
◆ 대지 : 430평 (등기필)
◆ 건물 : 1층 70평(법당20평)
2층 20평
◆ 특징 : 교통 편리하고, 포교
최적지, 덕산온천옆
◆ 가격 : 2억 3천만원(절충가능)
0458)337-6348

경기 북부·강원 수해예방공사 지지부진

장마철 물난리 재발 우려

기상청 "장마 이달 하순 시작"

수년째 물난리를 되풀이해온 경기 북부와 강원 일부 지방의 수해예방 공사가 예산확보 지연 등으로 곳곳에서 차질을 빚고 있다. 이 때문에 주민들은 장마철을 앞두고 올해도 대형 물난리가 발생하지 않을까 불안해하고 있다.

지난해 큰 피해를 입었던 동두천시의 경우 12곳의 배수펌프장 중 7곳만 우기 전까지 공사완료가 가능할 정도다. 그나마 이 공사도 올 3월에야 시작돼 졸속공사에 따른 피해마저 우려되고 있는 상황이다.

1996년 이후 3차례나 침수를 겪은 파주시 일대도 9곳 중 4곳만 우기 전에 침수방지공사를 끝낼 수 있다고 하고, 이밖에 남양주시와 연천군 등도 예산이 확보되지 않아 공사에 차질을 빚고 있는 상태다.

이같은 상황은 철원 화천 등 강원 북부 지방도 마찬가지다. 강원도에 따르면 지난해 발생한 수해 4318건 중 5월말 현재 3203건만 복구가 완료됐을 뿐 나머지 1115건은 아직도 진행상태인 것으로 나타났다.

기상청에 따르면 올 장마는 예년보다 빠른 6월 하순에 시작된다고 하니 답답한 노릇이다. 매년 수해를 겪으면서도 이제 와서 예산 타령이나 하고 있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 '가뭄에 도랑 친다'는 말이 있듯이 사전대비만큼 안전한 것이 없다는 것을 우리는 경험으로 알고 있다. 그런데도 우리는 어느덧 소를 잃고도 외양간도 고치지 않는 간 큰(?) 국민이 돼 버렸다.

이런 불교 우화가 있다. 어느날 한 스님이 제자를 데리고 뜰을 산책하는데 때마침 일진광풍이 일어 낙엽이 우수수 떨어졌다. 스님이 그 낙엽을 한 장 주워 소매 속에 넣자 이를 본 제자가 "스님, 비로 쓸어낼 터이니 그만 두세요"라고 말했다. 그러자 스님은 "이 멍청한 놈아, 곧 쓸겠다고 하지만 그런 말을 한다고 해서 뜰이 깨끗해지느냐? 한 장 주으면 한 장 만큼 깨끗해질 것이 아니겠느냐"고 호통을 쳤다.

그렇다. 늘 수해대책에 만전을 기한다고 하면서도 해마다 수해를 당하는 것은 말로만 뜰을 치우겠다는 제자의 행위와 같은 어리석음이 반복됐기 때문이다. 얼마나 더 큰 인명과 재산피해를 입어야 정신을 차리겠다는 것인지 알 수가 없다.

부처님께서는 네 종류의 사람을 말씀하셨다. 첫째는 딴 마음의 사람이 병들어 죽게 되었다는 소문만 듣고서도 세속의 애착과 악행을 버리고 도를 닦는 사람, 둘째는 자기가 살고 있는 마을에서 어떤 사람이 중병을 얻어 죽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사람, 셋째는 자기 친족이 병들어 죽는 것을 보고 도를 닦는 사람, 넷째는 자기를 가까이서 보좌하던 사람이 죽는 것을 보고서 비로소 도를 닦으려는 사람이다.

〈숫타니파타〉에 나오는 소치는 다니야는 이렇게 말했다. "나는 이미 밥도 짓고 우유도 짜놓았습니다. 마히강 기슭에서 나는 처자와 함께 살고 있습니다. 내 움막은 지붕이 덮여 있고 불이 켜져 있습니다. 그러니 하늘이여, 만일 비를 내리시려거든 비를 내리시옵소서."

똑같은 어리석음을 되풀이해서는 안된다. 이번만큼은 다니야처럼 철저하고 신속한 사전대비가 있어야 겠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네 번째 종류의 사람이 되어서는 안된다.

한명우 기자(mwhan@buddhapia.com)

전문성 무시 국회 상임위원장

나눠먹기식 감투

최근 여야가 내놓은 국회 상임위원장 내정자 명단을 보면 정치개혁은 둘째치고 국민을 우습게 여기고 있다는 생각을 하지 않을 수 없다.

국회 상임위원장 및 상임위원 배치는 정당의 당직과는 달리 무엇보다 전문성이 고려돼야 한다. 그럼에도 몇명의 내정자를 제외하곤 전문성을 고려한 흔적은 찾아보기 힘들다. 여야 가릴 것 없이 측근 우선이나, 영입과 배려, 비주류 포용이니 하는 당리당략만 따져 그야말로 '나눠먹기'식 인선으로 일관했다.

약사출신으로 보건복지위에서 3선을 지낸 의원이 정보위위원장에, 건설교통위에 있던 의원이 행정자치위원장에 내정되고, 통일문제에 관한 의정경험이 없는 인물이 통일외교통상위원장에 내정된 것을 도대체 어떻게 봐야 하는가.

〈사십이장경〉에 "악이 있어도 잘못임을 알아서 과실을 고쳐 선을 행한다면, 죄가 절로 스러져, 후일에 가서는 꼭 깨달음을 얻게 될 것이다"는 말이 있다.

지금이라도 전문성을 살린 재배치가 이뤄져야 한다. 그것이 국회의 도리이자 국민에 대한 의무다.

교육감 선거 혼탁

첫 직접선거…시민단체 '감시'

얼굴이 단정하고 기품이 있어 보이는 한 신사가 부처님을 찾아와 여쭈었다.

"어떻게 해야 명예를 얻을 수 있으며, 어떻게 해야 덕망이 높아질 수 있습니까?"

이에 부처님께서는 "명예를 얻고자 한다면 계율을 지키고 덕망이 높아지고자 한다면 진실한 삶을 사시오"라고 답했다. 〈잡아함경〉

최근 충남과 전북 등 각 자치단체에서 처음 직접선거로 치르는 교육감 선거를 앞두고 출마자들이 학교운영위원들에게 향응을 제공하다 적발되는가 하면 상호 비방과 관권개입 등 갖가지 타락 양상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자 이를 보다 못한 시민단체들이 불법선거 운동을 적극 감시하겠다고 팔을 걷고 나서기까지 했다.

교육감은 해당 지역의 교육행정을 책임지는 자리다. 덕망이 높고 모든 언행이 진실한 사람이라야만 앉을 수 있는 자리다. 그 자리를 얻기 위해서는 부처님 말씀대로 선거 질서(계율)를 지키는 것이 우선이다. 그리고 옳고 곧은 행동으로 덕망을 쌓아 나가야 한다.



"통일"…간절한 소망

'통일이여 어서 오라' 역사상 첫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13일 임진각을 찾은 한 할머니가 통행제한구역 철조망 앞에서 통일을 기원하고 있다.

집세 대신 내준 어느 판사의 판결

지난 9일 미국 버지니아주 괘어팩스 카운티 법정. 귀머거리 부부가 월세 630달러 중 250달러를 못내니 이들을 쫓아내달라는 아파트 회사측 변호사의 고소를 들던 도널드 맥도너 판사가 벌떡 일어났다. 그는 자기 사무실에 가서 100달러짜리 지폐 2장과 50달러짜리 지폐를 들고 와서는 "집세가 지불된 걸로 생각하세요"라고 말했다.

이에 아파트 회사측 변호사는 "250달러는 한 달치 밀린 집세에 불과하다"며 이들을 내쫓아야 한다고 판사의 '중재안'을 거부했다.

한동안 아무말 없던 판사는 "나머지 집세도 내가 내겠다"고 말하고는 사무실에서 현금을 가져와 다시 변호사에게 전달했다. 변호사는 정회를 요청했지만 판사는 사건이 끝났다고 관결했다.

맥도너 판사의 관결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보살의 지혜'를 생각케 한다. 보살의 지혜는 온갖 사물이 돌아가 의지할 곳이다. 〈유일마니보경〉은 보살의 지혜를 일러 "큰 산의 여러 약초는 그 산마루에 나되 주인이 없고, 환자를 따라 여러 병을 다 고친다. 보살도 이같아서 '지혜의 약'을 가지고 시방천하 사람의 생로병사를 고쳐준다"고 말하고 있다. 맥도너 판사와 같은 보살이 우리 사회에서도 아쉽기만 하다.

시론

남과 북 '하나로'

이번에 김대중 대통령이 평양을 향해 출발할 때까지도 많은 사람들은 남북정상이 55년만에 만나는 사실만 해도 역사적인 일이라 생각하였다. 구체적인 성과를 기대하기는 이르다고 보았다. 그러나 2박 3일간의 회담 성과는 예상과 기대를 크게 뛰어넘는 것이었다.

세부사항 구체적 합의노력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파격적인 환대와 두 정상의 화기애애한 만남의 모습은 남북간의 이해와 신뢰의 분위기를 성숙시켰다.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두 지도자는 전세계가 지켜보는 가운데 남북관계의 획기적 변화를 가져올 다섯개 항목의 중요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다.



정천구
〈정치학 박사·영산대 총장〉

물론 남북간에는 7.4 공동선언, 남북기본합의서, 비핵화합의 등 여러 차례의 공동선언과 합의가 있었다. 그러나 그런 약속들은 문서로만 남고 남북관계의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룩하는데 별다른 역할을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이번에는 정상간의 직접합의라는 비중과 함께 과거에 비해 크게 개선된 국내외적 조건이 뒷받침되었다. 과거로 되돌아가기는 어려울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번 회담은 한반도 역사에 있어서 화해와 협력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 통일의 물꼬를 튼 역사적 사건으로 기록될 것이다.

이러한 성과가 두 정상의 만남으로 갑자기 이루어진 것은 아니다. 지난 3년 이상 김대중 대통령이 추구해 온 포용정책의 성과와 이를 바탕으로 한 신뢰가 쌓여온 결과라 할 수 있다. 처음에 북측은 포용정책을 북한을 변화시켜 흡수하려는 음모라고 의심하고 비난했다. 그러나 성심과 인내로 일관성을 유지했기 때문이 북한의 신뢰를 얻을 수 있었던 것이다. 또한 금강산 관광 사업 등을 통하여 경제난에 허덕이고 있는 북한에게 실질적 도움을 주었다.

공동선언으로 밝힌 5개항의 합의사항은 하나 하나가 남북한 관계를 새로운 국면으로 전환시킬 수 있는 내용이다. 통일문제를 우리 민족끼리 자주적으로 해결한다는 원칙에 합의하고 통일방안에 대해 접근을 본 것은 그 동안 자주의 원칙에 대한 해석과 통일방안을 둘러싼 남북간 견해 차이를 크게 극복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8.15에 즈음하여 이산가족 방문단 교환과 비 전향 장기수 문제 해결에 합의하고(3항) 경제협력 및 제반분야의 교류, 협력을 활성화하기로 한것(제4항)은 두 정상이 원칙의 합의만이 아니라 이를 가시화 하는 구체적 사업을 전개할 것이라는 의지를 표현한 것이라 할 수 있다. 합의사항 실천을 위한 당국자 대화의 재개와 김정일 위원장의 서울 방문 합의는 이번 정상회담과 합의가 일회성이 아니고 지속적이고 제도적으로 추진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앞으로 남북양측 모두에게 남겨진 과제는 곧 이어질 당국자 회담과 분야별로 전개될 남북회담을 통하여 정상간에 합의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실천할 세부사항에 합의하고 실천하는 일이다. 당국자 회담, 연락사무소 재개, 핫라인 설치,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8.15를 즈음한 이산가족 상봉 등 남북관계 화해 분위기를 더 한층 고조시킬 일들은 큰 문제없이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아직 미지수로 남는 것은 그러한 사항을 실천하기 위해 우리가 지불할 대가는 얼마인지 그리고 우리 국민들이 정상회담을 환호한 그러한 정도로 그 대가를 기꺼이 지불할 의사도 가지고 있는가 하는 점이다. 또한 김정일 위원장과 북한이 우리 국민들에게 다가온 정도로 북한주민들에게 김대중 대통령과 한국이 이미지를 구축했는가는 의문이다. 그들의 TV에는 김 위원장의 발언조차도 보도되지 않도록 철저히 언론통제가 되어 있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남북정상회담이후에 우리가 취해야 할 자세는 김대통령이 출발전 성명에서 밝힌 바 있는 '뜨거운 가슴과 냉철한 머리' 그것이다. 뜨거운 민족애와 통일의 염원을 간직하면서도 남북한에서 다시 나타날 수도 있는 역작용을 염두에 두고 절제된 목표와 차분한 심정으로 상대방의 입장도 고려하고 자신의 처지도 생각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합의된 내용이 실천에 옮겨질 수 있도록 지혜와 역량을 모아야 할 것이다.

순수한 경면주사로 쓴
운장법사의 생필(眞本)
'五色광채'의 氣를 발하는 신비한 '용린佛字체'
"오복을 가져오는 새천년시대 용의 꿈을 꾸세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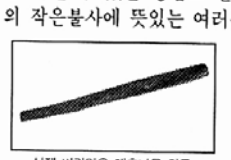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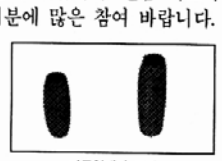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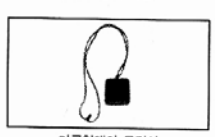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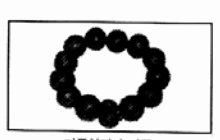


꼭 소장하여 할 가장 고귀한 진품 명품
⊙신기·영기 발하는 佛자 달마(달마대사)그림, 龍자 그림(수맥파 차단) 특별보시!
정통으로 배우는 서예 사군자 달마 佛字, 龍字그림 전수자 수시모집!!
한국 수맥파 방지 총연합회 인증 100% 효과
특허품 및 유사품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대한민국 미술작품 화랑방 (korea art gallery)
http://www.korea-art-gallery.org
http://www.mahamall.co.kr
사업실패, 가정불화, 자녀문제, 부부갈등 등 답답하고 고민 하시는 분 서슴없이 전화하세요!
▪ 생명의 전화 : (02)2242-0331, FAX (02)2242-0255
E-mail :unjang21@ kornet21. net
●주문 신청방법
서울은행 28707-0452510 조정순
※ 전화로 주문하시면 곧 보내 드립니다.
韓國佛教藝術文化院
韓國佛教禪墨家協會

불교음악을 선도하는 - 한국불교음악협회
불교음악캠프
전국 불교음악인의 모임인 한국불교음악협회에서는 불교음악의 저변 확대와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불기 2544년 여름 불교음악캠프를 마련합니다. 천년 고찰에서 전문 음악인의 알찬 강좌로 마련된 음악캠프는 불교음악의 새로운 비전을 제시할 것입니다.
• 기 간 : 2000년 7월 8일~10일(2박 3일)
• 장 소 : 전북 완주군 송광사
• 대 상 : 불교음악인, 불교음악에 관심 있는 일반인
• 내 용 : 찬불가 편곡-김동환(중앙대 음대 교수)
찬불가 분석과 역사-정부기(중앙대 음대 교수)
外 찬불가 지휘법, 발성법 등
불교 신앙과 교리-황학현(불교교육연구원장)
外 불교 의식, 불교의 발전과 전파 등
• 등참비 : 1인 45,000원(차비 15,000원 별도)
• 접 수 : 6월 30일까지 팩스나 전화로 접수
• 접수처 : 전화 723-0440/1, 725-7527 팩스 723-0442
한국불교음악협회
총재 정 운 문
서울시 종로구 관훈동 177번지 대형빌딩 303호
전화 (02)723-0440/1, 팩스(02) 723-0442

남여 불교 수강생 모집
▣ 기본과정 (3개월)
불교학교리(반야심경, 불교성전)
사물(목탁, 요령, 태징, 법고)다루는 법, 도량석
쇳송, 상단예불, 각단예불, 천수경, 행선축원
불공시식 등
· 불교예절(교양 상식 계행 언행) 사미율리 초발심자경의 해설
· 신도5계 득도수계 입실건당 보살계 비구비구니계 해설 및 수계
· 법당 불상 탱화 연단 및 불기구 배치법
· 불공 기도 축원법 (삼보통청 관음지장신중 산신칠성 독성 발원)
· 불교교리 및 불교 역사 중요골자 발취 강의 납골개설 사업 운영등
◆모집인원 : 27명(선착순) ①교리반 9명 ②사물반 9명 ③포교반 9명
◆원서접수 : 현재 접수중
◆개강일시 : 매월 1일 11일 21일 개강
◆제출서류 : 입학원서 1통, 주민등록등본 1통, 반명함판 사진 3매
※ 서방정토극락세계 교육도량으로 수료후 수료증을 수여하며, 승려 후보생의 수계득도, 포교원사찰창건의 지도와 편의 제공
※ 초심자, 승니, 재가, 불교전통의식을 봉행할 수 있도록 지도함
◆월 회 비 : 백미한가마(숙식제공)
인천광역시 계양구 계산동 926-27(나드리프라자 4층)
한국불교 정토종 불교대학
전화 032) 543-2693~5

인재(印材) 벽조목
▶벽조목의 본래의 의미는
벼락 맞은 대추나무를 의미합니다. 민속에서는 이 벽조목을 가지면 악귀를 쫓는 다고 전해집니다. 그러나 현대적 의미에서 인재(印材) 벽조목은 가공 압축된 대추나무를 가르킵니다

이번 「능혜사」에서는 「진품」인 벼락맞은 대추나무를 가공 염주와 벽조목 부적 등 소량을 제작하게 되었습니다. 악귀를 쫓고 가정에 평화를 이루며 자신에 건강을 지켜주는 벽조목을 인연있는 몇분께 인연을 지을까 합니다. 능혜사로 연락주시면 진품 벽조목과 가짜 벽조목을 직접 확인 작업과 아울러 진품 벽조목을 가릴 수 있는 방법도 알려 드립니다. 진품 벽조목의 작은불사에 뜻있는 여러분에 많은 참여 바랍니다.

실제 벼락맞은 대추나무 원목 (전기가공이 아님)

가공형태의 도장

가공형태의 목걸이

가공형태의 단주
▶문의처 : 경기도 연천군 전곡읍 고능리 63-1
0355)832-4122 019)377-3788
능혜사 주지 이 법조 합장

참나 찾는 흥미로운 '산사체험'

사찰·단체 여름방학 수련회

108배·참선·들꽃기행 등 프로 다채

부다피아·선재마을 캠프 '눈길'

여름 방학이 한달 앞으로 성큼 다가왔다.

전국 사찰과 어린이·청소년 단체들도 다채로운 여름방학 수련 프로그램을 마련하며 이들을 맞이할 준비를 하고 있다. (표 참조)

사찰 수련회에 참가하면 아침 예불에서부터 108배, 참선, 불교레크리에이션, 들꽃기행, 태교명상 수련 등 일상 생활에서는 쉽게 접할 수 없었던 프로그램들을 마음껏 즐기면서 부처님께로 좀더 가까이 다가가는 일석이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다.

이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선재마을'의 '들꽃기행' 여름수련캠프. 대전 광수사에서 7월27일부터 29일까지 열리는 이번 행사에서는 광수사의 사찰체험을 비롯해, 계룡산 일대의 들꽃 관찰학습이 펼쳐진다. 또 컴컴한 밤에는 사찰마당에 누워 눈에 보이는 별자리들의 전설을 알아보는 흥미있는 시간도 마련된다.

8월2일부터 4일까지는 공주 마곡사에서 '선재 어린이 여름 절살이' 캠프도 열린다.

지난해에 이어 현대불교신문사도 '제3회 부다피아 캠프'를 7월20일~22일까지 용인 에버랜드에서 연다. 에버랜드 통나무 집에서 생활하며 108배 정진은 물론 재미있는 불교레크레이션을 배울 수 있으며, 캐리비안베이 풀장에서는 수영도 즐길 수 있다. 참가비는 6만원이며, 선착순으로 250명만 접수받는다.

진주불교회관도 7월28일~30일까지 지리산 대원사 근처 폐교에서, 파라미타 충북·대전지회가 청소년 불교캠프를 7월24일~27일까지 속리산 법주사에서, 무진법장사는 7월20일~23일 어린이 여름 불교학교를 마련한다. 또 우리는선우도 7월28일부터 31일까지 모악 유스호스텔에서 '자연, 생명, 문화'를 주제로 여름캠프를 개최한다.

이외에도 대둔사, 통도사, 쌍계사, 신흥사, 화엄사 등 전국주요 사찰에서 어린이와 청소년을 위한 여름 수련회를 잇따라 연다.

하지만 매년 반복되는 단조로운 일정에서 벗어나 불교의 신행 교육 외에 서바이벌 게임, 네이쳐 게임 등 어린이·청소년들이 선호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의 개발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높다.

김주일 기자 (jikim@buddhapia.com)

◇사찰·단체 여름방학 수련회

사 찰	일 정	대 상	전화번호
대둔사	7월25일~8월4일	초중고생	(0634)534-5502
백련암	7월27일~8월3일	초중생	(051)253-0277
범주사	7월21일~7월27일	초중고생	(0433)543-3615
까치마을	7월20일~8월6일	초중고생	(02)885-1558
쌍계사	8월 2일~8월3일	초등학생	(0595)883-1901
통도사	8월 2일~8월8일	초중고생	(0523)384-8380
파계사	8월 5일~8월6일	중학생	(053)984-4550
해인사	7월22일~7월29일	초중고생	(0559)931-1003
신흥사	7월23일~7월30일	초중고	(0339)357-2695
화엄사	7월24일~7월31일	초중고생	(0664)782-7600
천진암	7월28일~7월30일	초등학생	(0685)392-0533
무진법장사	7월20일~7월23일	초등학생	(02)971-0303
청소년단체			
부다피아캠프	7월20일~7월22일	초등학생	(080)717-0114
진주불교회관	7월28일~7월30일	초중생	(0591)747-0108
신라문화원	7월2일	초등학생	(0561)774-1950
선재마을	7월27일~8월4일	초중고생	(02)433-1507
우리는선우	7월28일~7월31일	중고생	(02)2278-8672
목동청소년회관	7월20일~7월22일	중고생	(02)2646-0181
맑고향기롭게 광주모임	7월21일~7월23일	초등학생	(062)267-0048
청교련 인천지부	8월 5일~8월13일	중고생	(032)577-0266
파라미타			
부산지부	7월24일~7월27일	중고생	(051)853-2445
대구지부	7월22일~7월23일	중고생	(053)783-4478
충북·대전지회	7월24일~7월27일	중고생	(042)672-2461
진주·마산지회	8월 2일~8월4일	중고생	(0591)747-1288
전북지부	7월25일~7월27일	중고생	(0652)251-4942

사찰 편액을 찾아서

⑨ 성당의 청암사·파계사 편액



◇청암사 일주문 편액



◇파계사 진동루 편액

성당 김돈희(惺堂 金敦熙/1871~1937)는 법부 주사와 검사를 거쳐 중추원 촉탁의 벼슬을 지낸 근대 서예가이다. 성당은 1919년 서화협회 창립 때 13인의 발기인으로 참여했으며, 뒤에 제4대 서화협회 회장과 조선미술전람회 서부(書部) 심사위원을 지내기도 했다. 그는 1910년 '한일병탄조약문'을 썼으며, 일제에 의해 작위를 받기도 했지만 서법 연구기관인 상서회(尙書會)를 만들어 후진을 양성하는 등 근대 한국 서단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다. 또 근대 직업 서예가의 길을 연 장본인이기도 하다.

성당은 어려서 안진경(顔眞卿)의 해서와 황정견(黃庭堅)의 행서를 배워 각체의 글씨에 두루 능했는데 그 중에서도 특히 신선한 미감의 팔분예(八分隸)를 잘 썼다. 그가 사찰에 남긴 편액으로는 양양 낙산사 〈의상대〉, 해남 대둔사 〈용화당〉, 순천 선암사 〈강선루〉, 구례 천은사 〈방장선원〉, 곡성 태안사 〈동리산태안사〉, 김제 금산사 〈용화지회〉, 밀양 표충사 〈대광전〉, 〈약산초제〉, 상주 남장사 〈불이문〉, 김천 청암사 〈불영산청암사〉, 〈대웅전〉, 대구 파계사 〈팔공산파계사〉 등이 대표적이다.

김전 청암사 입구의 일주문에 걸린 〈불영산청암사〉 편액은 포와 포 사이의 공간에 맞추어 액관을 만들고 글씨를 두줄에 나누어 새긴 것으로 근대 이후의 산문사액에 더러 보이는 형태이다. 청암사에 남아있는 대부분의 편액이 성당의 글씨인데 대부분 대운(大雲)스님이 절을 중창하던 1912년경에 쓴 것이다. 이 편액의 글씨는 북위(北魏) 해서의 필의와 행기(行氣)를 섞은 횡일(橫逸)한 예서로 성당의 글씨 가운데 수작에 속한다.

대구 파계사 진동루 앞쪽에 걸린 〈팔공산파계사〉 편액에는 '성당(惺堂)'이라는 관지와 두인을 비롯한 3과의 도서가 찍혀 있다. 이 편액은 유래 없이 행초(行草)로 쓰여졌는데, 일반적으로 사찰의 당우에 거는 편액을 반듯한 해서나 예서로 쓰는 것은 불보살이 상주하시는 근엄한 장소이기 때문이다. 편액의 글씨는 황정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수경(秀勁)한 서미를 지녔다.

안병인〈대한불교진흥원〉

불영산 청암사 아름다움 돋보인 1912년 작품

팔공산 파계사 근엄한 장소에 흘려쓴 파격미

건강백과

치아관리

건강한 치아는 튼튼할 때 잘 지켜야 한다. 일단 충치가 생기면 치료 후에도 계속 손상될 가능성이 크므로 평상시 올바른 치아관리를 통해서만 충치를 예방할 수 있다. 특히 더운 여름철에는 청량음료, 빙과류 등 당분 함류량이 높은 것을 많이 먹기 때문에 충치 예방에 더욱 신경써야 한다.

◇단 음식은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음식을 섭취한 후 우리 몸의 혈액은 알칼리화 된다. 즉 충치발생의 원인이 되는 산성도가 낮아지게 된다는 의미다. 따라서 초콜릿 등 단 음식은 되도록이면 공복보다는 식사 후에 먹는 것이 치아건강에는 유리하다.

◇식후 3분내 칫솔질=음식을 먹은 뒤 3분이 지나면 치아 표면에 충치발생의 주범이 되는 플라그란 세균막이 형성된다. 이는 시간이 흐를수록 딱딱한 치석으로 변하므로 되도록 빨리 제거해 주는 것이 좋다. 이때 치약은 불소를 함유한 제품이 좋으며, 칫솔은 솔이 뻣뻣한 것이 좋다. 솔이 부드러우면 당장 느낌은 좋으나 치아 사이의 음식물 찌꺼기를 제대로 제거할 수 없다.

당분류 공복피해 식사후 섭취

6개월~1년에 한번 스케일링

◇올바른 칫솔질=칫솔질은 치아 표면을 좌우로 세게 문지르기보다 아래·위 방향으로 잇몸 사이를 후벼 음식물 찌꺼기를 파내는 방식으로 해야 한다. 칫솔면적이 닿는 부위당 20회 정도가 적당하며 3분가량은 칫솔질을 해야 플라그를 효과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식후 칫솔질이 어려우면 물로라도 충분히 입안을 행궈라=음식이 당으로 분해되면 충치발생을 촉진하는 산성을 띠게 된다. 따라서 음식물 섭취후 칫솔질을 할 형편이 못되면 물을 이용해 충분하게 입속을 헹궈내는 것이 좋다.

◇스케일링은 6개월~1년에 한번은 하는 것이 좋다=스케일링을 자주 하면 치아표면이 얇아지고 치아 사이가 벌어진다고 여기는 경우가 있지만 이는 잘못된 상식이다. 또 스케일링을 할때 아프고 시려 꺼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그만큼 제거할 치석이 많기 때문이므로 정기적으로 할 경우 고통도 적다.



◇전국 종교 교육 시민단체연대는 7일 세종문화회관 회의실에서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 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정부 독립청소년기구 신설 필요"

청교련등 17개단체 촉구

교계를 비롯한 청소년 시민 단체들이 독립된 청소년기구의 신설을 촉구하고 나섰다.

대한불교청소년연합회(이하 청교련)를 비롯 흥사단, 전국교직원노동조합 등 17개 청소년 유관단체들은 7일 세종문화회관 4층 회의실에 모여 '청소년 관련 정부조직기구 단일화'를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들은 성명서에서 △청소년보호와 육성정책 단일화 △청소년 전담기구 신설 △새로운 패러다임의 청소년 정책 제시 △대통령 취임시 발표한 청소년 정책 공약 이행 등을 정부에 촉구했다.

이 자리에서 선일스님(청교련 인천 지부장)은 "현행 청소년 관련 기구는 국무총리실산하 청소년위원회와 문화관광부 청소년국으로 이원화돼 있다"며 "정부의 이원화 정책으로 청소년문제가 부처 이기주의에 떠밀려 방치된 만큼 독립기구를 신설치 않으면 단체행동도 불사하겠다"고 강력하게 촉구했다.

김주일 기자

청소년 단신

불교 청소년문학상 공모

한국불교 청소년 문화진흥회는 10월20일까지 '제5회 불교청소년문학상'을 현상 공모한다. 공모부문은 시와 시조를 비롯해 단편소설, 희곡, 시나리오 등이며, 주제는 '자비실천'과 '건전한 청소년 문화육성'이다. 또 자매단체인 한국불교 아동문학회도 '제19회 전국 불교어린이 글짓기' 작품을 함께 공모한다. 운문과 산문으로 나눠 10월10일에 심사할 계획이다. (02)425-3002

심인중 소년체전 동메달

진각종 심인중학교 탁구부가 '제29회 소년체육대회'에 참가해 동메달을 차지했다. 대한체육회 주최로 5월27일부터 3일간 인천 문일여고 체육관에서 개최된 이번 대회에서 심인중학교 최원석, 김경민군은 준결승에서 만난 충남팀에 아깝게 패해 동메달 획득에 그쳤다.

심인중학교 탁구부는 지난 4월7일 개최된 '제16회 대통령기 전국시도대항 대회'에서도 3위로 입상했다.

디지털상담실 사이트개설

디지털 청소년 상담실은 최근 홈페이지를 열었다. 청소년들의 쉼터 역할을 현실공간에서 사이버 공간으로 영역을 확대하고자 마련된 이번 홈페이지(http://help1318.gazio.com)에는 상담실소개방을 비롯해 행사 활동 사진 모음방, 신행상담실, 뮤직캠프 등이 개설돼 있다.

천진불 무용단 정기공연

천진불어린이무용단은 5월28일 제주 관광민속관 공연장에서 '제7회 정기공연'을 가졌다. 이날 공연에는 수암 제주불교 총연합회장 스님을 비롯해 천진불 어린이 무용단 총재 지문스님 등이 참석해 불국토를 기원하는 새싹불자들의 춤사위가 끝날때마다 박수 갈채를 보냈다.

여름주제 찬불동요 10집

풍경소리 창작음반 출시



어린이 불음포교에 앞장서고 있는 '풍경소리'가 찬불동요 창작곡 10집을 카세트 테이프로 발표했다.

이번에 출시된 10집에는 '썸머 드림캠프' '부처님바다' '여름 하늘로' 등 여름을 주제로 한 곡들이 대부분이다. 또 작사자도 운문스님을 비롯한 원성스님, 박동원, 정유탁 등 다양하다. 매년 봄·가을에 걸쳐 출시되고 있는 '풍경소리'의 창작 앨범들은 어린이법회나 캠프를 이끌고 있는 지도자들 사이에서 유용한 포교수단으로 이용될 만큼 인기가 높다.

氣발생의 신비 전자파 수맥파 차단 행운의 달마도 순금카드!

氣 인증서 획득

나쁜 氣를 막아주고
행운과 건강을 선물합니다.
이제 당신의 지갑속에
간직하시고 행운을 느껴보세요.

정통 달마조사도의 대가(大家)이신 오인(悟印)법사님의 달마도 원본 작품


앞면 : 오인법사달마도


뒷면 : ①반야심경



뒷면 : ②사업번창부

부처님 오신날 천만불자 보시용품

(주) 골드타운은 불사보금사업을 하는 업체로써 판매수익금의 일부분은 불사건립기금으로 쓰여집니다.



뒷면 : ③차량안전부



뒷면 : ④시험합격대길부

행운과 氣를 선물하세요



달마도 상반신

예로부터 달마도는 신비스런 기(氣)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판 액자
순금판크기 : 11×16㎝
표구액자크기 : 27×32㎝


달마도 전신상



앞면:달마도 뒷면:반야심경(外 3종)
〈순금판 열쇠고리〉

▶ 순금의 함량과 제품의 품질에서 최고임을 자신합니다.

달마도 신비의 기(氣)

달마도는 TV방영에서 증명된 바와 같이 신비스런 기를 발산하여 수맥을 차단하고 나쁜 파장과 병마를 소멸시켜 건강을 지켜주고 부와 명예를 불러주는 힘이 있다고 합니다.

달마도 순금카드

일반 지갑 소지용으로 얇게 편 순금카드 앞면에는 오인법사의 달마도를, 뒷면에는 반야심경, 사업번영부, 안전운전부, 시험합격 대길부(4종류 중 선택가능)를 새겨서 비닐압착코팅함으로써 찢어지거나 구겨짐 없이 영원히 간직할 수 있습니다. 대형(5×7.5㎝) 20,000원, 소형(3×5㎝)15,000원이며 대·소셋트 구매시 특별할인하여 30,000원

달마도 순금판 액자

국내 최초 순금판 최대크기로 오인법사의 전신 또는 상반신 달마도를 고급 표구액자로 제작하였습니다. 표구액자(27×32㎝), 달마도 순금판 크기(11×16㎝) 일반판매가격 150,000원.
한정판매

달마도 순금판 열쇠고리

달마도 순금카드(3×4㎝)를 아크릴판 열쇠고리에 삽입하여 제작하였으며 1개 10,000원, 3개셋트 25,000원

구입 문의상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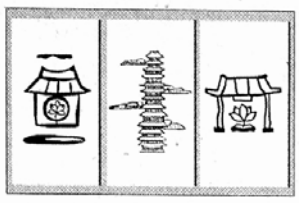
주문방법은 전화접수 후 전국내 빠른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드립니다. 사찰 및 불자회 보시용품 각 영업회사 판촉사은품으로 최적상품이며 다량구매시 가격할인 및 원하는 그림,사진,글씨,로고도 주문제작 가능합니다. 셋트 및 액자구매시 사은품증정!

제조판매원 : (주)골드타운

10만 불자님들의 성원에 힘입어 한국순금카드사가 (주)골드타운으로 법인화 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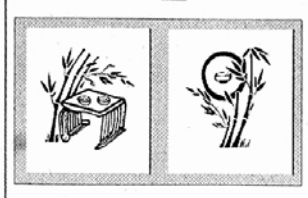
☎ 02)926-7377/7315
(24시간 공휴일 접수함) http://www.goldsale.co.kr

기도포



기장 84cm×폭 39cm/ 재질- 면 가격:₩1,600

다 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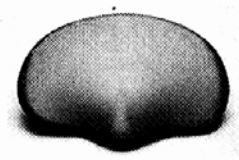
기장 50cm×폭 29cm/ 재질- 면
가격:₩800

관음분청자기



가격:₩495,000

참선명상방석



일 반 ₩30,000
숭기반 ₩35,000
황토반 ₩35,000

실용신안1998-025009
의장등록14087
인체공학적 설계로 척추보호

■규격: 39×43cm

산업자원부 추천 우수사이버몰

마 하 몰

(http://www.mahamall.co.kr)

현대불교신문 인터넷 불교백화점 마하몰은 불교인의 정서에 맞는 불교 관련 제품을 다양하게 준비하여 고객 제일주의를 지향하고 있습니다.

편리한 쇼핑, 저렴한 가격, 마음껏 즐기는 불교문화 공간을 마하몰에서 만나십시오.

인터넷 마하몰에 오시면 더욱 많은 불교상품과 작품들이 자세히 설명되어 있습니다.

☎ 주문전화 02-732-1522 (직통) 02-737-8881 (대표)



농장직판 – 신비의 버섯
동충하초

150g
1개월 복용분

가격 70,000원

백의 관음입상 도자기



감로수와 함께 하는 백의 관음 입상 도자기

가격 : 150,000원

정사각틀 에밀레종



신비한 걸작품, 사이버 사운드, 완벽한 종소리의 재현!

규격: 20×31cm
재질 - 청동

가격:₩210,000

수암 만다라 옥침



■가격 : 30,000원
■재질 : 천연옥, 무독성ABS수지, 황동, 24K순금도금테, 헤라이트 반영구자석 1200가우스 X 4개

걸 망



색상: 밤색 · 베이지 · 회색
가격:₩15,000

백화향 선물셋트

백화+신과단+천연목향+향꽃이



가격: ₩50,000

한방향 선물셋트

향등+한방향+향꽃이



가격: ₩25,000

보원향 선물셋트

보원+만복침향+한방향+향꽃이



가격: ₩60,000

옥베게



편안한 수면은 어떤 보약도 필요 없습니다.
가격: 1개 ₩30,000(셋트₩56,000)

석씨향방 오분향,생기향세트



규격 4개 1세트

효능 화엄경 보현행원품에 열가지효능이 있음

용도
- 불보살께 예불 기도 할 때
- 제사를 지낼 때
- 불결한 장소를 깨끗이 하고 싶을때
- 공포를 느낄 때
- 조상의 명복을 빌때

가격 : ₩60,000

황토로 만든 수행자의 그릇
와 발 우



가격: 4합 ₩60,000 / 무게 : 2.7kg
2합 ₩30,000 / 무게 : 1kg

눈안마기



눈의 피로 감소! 가격:₩49,000

황토 냉온 찜질팩



용도
- 냉온 찜질용
- 노인성 통증완화에 찜질
- 야간 근무자나 추운곳에서 근무시 보온용
- 건강과 미용에 좋다

가격 : ₩28,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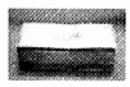
신세대 불자들의 신행수첩



- 지갑기능도 겸해 휴대가 간편
- 예불, 헌공, 법회, 의례, 참물가까지
- 신행생활과 성지참배기를 요약기록
- 개인이 원하는 내용만 임의로 구성

가격
고급형(천연가죽) ₩38,000
일반형(인조피혁) ₩25,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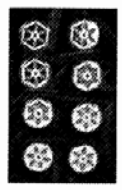
오동나무 목침



크기
가로 30cm
폭 13.5cm
높이 9.5cm

가격
개 체 형 ₩20,000원
무개체형 ₩15,000

조상묘지용 동 히란야



▸효능및효능
산소수맥차단 氣에너지장을 변화시켜 명당이 됨
▸형태
원형, 자수정 부착
히란야 8개 (1set)
▸크기
원형, 지름30mm

가격 :₩240,000

순금도금 온 히란야메달



▸효능및효능 남녀공용 브로치형 배당
▸재질 : 천연자수정,부착 은배달순금도금, 투비 세팅
▸효능 정화처용에너지가 발생, 가슴(척크라) 심장이 에너지를 공급

지름 : 4.5cm 가격 :₩400,0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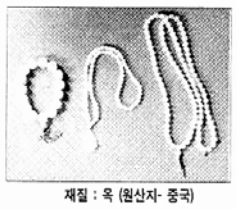
경 상



전통적 경상을 현실에 맞게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제작하였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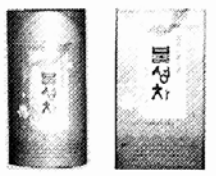
· 규격: 72×34×32cm · 재질: 느름원목
■가격:₩85,000

수암옥 염주세트



재질 : 옥 (원산지- 중국)
가격:₩98,000

불 성 차



가격 : 우전 ₩90,000 / 세작 ₩50,000
중작 ₩30,000 / 대작 ₩20,000

날개 CD



가격: ₩10,000

무비스님 특강테잎



금강경강의/ 지장경강의/ 진심직설강의
가격: 각 ₩45,000

삼보죽염순소금



천일염에 불순물을 최소화하기 위해 소금을 볶아 먹었던 조상의 슬기로 공해에 시달리는 현대인의 필요한 식생활 습관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500g 가격 :₩6,500

반야심경 향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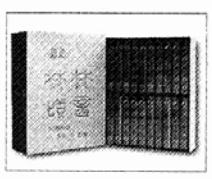
(기정용) 규격: 4(높이)×7cm(지름)
가격:₩25,000

영인스님 예불천수경 CD



가격:₩9,500

문구암스님 범음범패 테잎



■ 가격: 66,000

삼보미용죽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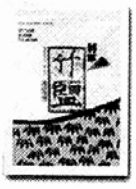


피부에 기생하는 진성균류나 방선균류의 세포표면을 감싸서 세균들이 번식하는 것을 억제해 줍니다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50g 가격 :₩6,5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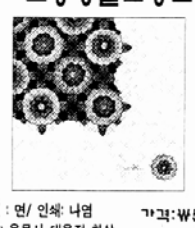
음식조미용 장군죽염



인공조미료를 전혀 사용하지 않고도 음식맛을 낼수 있는 제품

용량 : 300g
가격 :₩4,000

불교전통창살문양손수건



· 재질 : 면/ 인쇄: 나염 가격:₩5,000
· 문양: 용문사 대웅전 창살

쑥 환



₩55,000 (1달분 1통 1,500정)
₩80,000 (2달분 2통 3,000정)

삼보죽염 낱개 1통



황토가마에서 아홉번 구워낸 삼보죽염 !!

전통죽염 제조장이시며, 인간문화재이신 효산스님께서 기술고문으로 제조합니다.

용량 : 200g 가격 :₩36,000

장군죽염분말



다른 음식과 함께 섭취가 용이하도록 가루형태로 만든 제품

용량 : 200g
가격 :₩36,000

불자반지



재질 : 금 · 큐빅(1.5돈)
※ 싸이즈는 호수에 따라 제작해 드립니다.
가격:18k₩130,000/ 14k ₩120,000

마하몰 미니정보

마하몰에서는 불교상품의 선택폭을 넓히기 위해 「마하몰 미니 정보란」을 운영합니다..

죽 염

1. 죽염이란 ?

죽염은 쉽게 말해서 소금을 대나무에 넣어서 불에 태워 만든 것이다. 인간의 식생활에 있어서 가장 필수적 이라 할 수 있는 소금은 그가 가지고 있는 독소로 인하여 비만, 고혈압, 뇌졸증, 당뇨병등 모든 성인병을 유발시키고 모든 병에 해를 주는 강한 산성식품이다. 먼 옛날 부터 지혜로운 이들은 소금의 해를 줄이고자 소금을 굽거나 볶아서 섭취해왔고 심산 승가에서는 죽염을 제조하여 섭취해 옴으로 오늘에 이르렀으며 이 죽염의 신비한 효과는 이미 널리 알려져 있는 건강염이다.

2. 죽염의 제조과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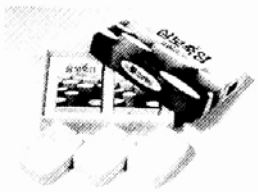
간민의 차가 크므로 그만큼 광식물질의 함유율이 높은 서해안의 천일염을 전남 담양, 장성에서 3년이상된 왕 대나무를 구입하여 1~2마디씩 절단하여 다져넣는다. 소금을 다져넣은 대나무 위에 부분을 조선 솔잎과 황토(나무뿌리가 침범하지 않고 잡토가 섞이지 않은 땅속 깊은 곳의 순수황토)를 이겨 막고 조선소나무 장작장작과 함께 가마(철판과 황토벽돌로 지음)에 재인다. 밑의 아궁이에 소나무 장작으로 48~72시간 불(훈찜)을 뺀 다음 소금넣은 대나무에 불을 붙여 800~1000도의 고온으로 태운다. 이와 같은 과정에서 소금의 독소는 제거되고 대나무, 황토, 소나무에서 유황성분과 칼슘, 각종 필수미네랄이 생성 응함되어 강 알카리성 식품으로탄생된다.

3. 죽염의 효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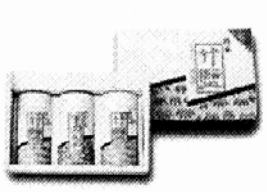
본초강목에 대나무를 활용한 처방(34종류)과 신농본초경에 해소와 상기 종양, 해열산충, 구토와 곽란, 거담, 종풍, 당뇨병, 고혈압, 신경쇠약, 간질, 임신빈혈, 소아전염병 질환, 불면증, 과다음주, 피로회복, 안구통증에 효능이 있다고 기술되어 있고 1965년 9월 미국 하버드 의과 대학 암연구센터 암약물학부 마리안나 스파다 박사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죽염은 매일 8g씩 섭취해도 USPDA(미국인 1일 소금 섭취량 기준)에서 벗어나지 않는다 하는 연구결과를 발표한바 있다. 죽염은 일종의 건강보조 식품으로 다른약과 병행해도 부작용이 없으며 과다복용해도 고갈이 생기지 않는다.



삼보죽염 세트
응량 : 600g
가격 :₩105,000



삼보죽염비누
응량 : 110g 2개
가격 :₩12,000



장군죽염선물세트
응량 : 600g(분말 알갱이 forma)
가격 :₩108,000

대나무 숯 염색천

신라시대 경주에서 숯불로 밥짓고 요리하고 염색한 옷을 해 입은 것은 사치가 아니라 숯의 원적외선, 음이온, 환원력 등을 활용한 기막힌 과학입니다. 이런 이론들을 근거로 하여 조금이나마 현대인들에게 대나무숯을 가까이 하심 착안한 것이 숯 염색천 입니다. 숯 염색 옷의 치료 예방효과가 특히 도시인에게 도움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특히 이 천은 지리산 청학동에서 직접 만든 100% 수제품입니다.

■크기 : 44인치 X 5.50야드 ■색상 : 진회색/회색
■가격 : 60,000원

여름용 연꽃 순면티셔츠

▶ 자비소리 ▶ 자비연꽃

자비 법음이 온누리에 울러퍼져
희망찬 미래를 영원합니다.

■ 재질 : 순면 100%(20수) ■ 색상 : 순백색
■ 칼라 : 9도칼라 나염인쇄 ■ 크기 : XXL, XL, L
■ 20장이상 구매시 10%로 할인
■ 100장이상 구매시 20%로 할인

■ 가격 : 6,000원

산촌유과 … 한국정통의 유과

한과는 곡물 가루에 꿀, 엿, 참기름, 설탕 등을 넣고 반죽하여 꽃 모양 물고기 모양 같은 판에 밖아 낸 다음 기름에 지지거나 조려서 만든 과자이다. 다른 말로 조과(造菓)라고도 하는데 그것은 천연물에 더하여서 만들었다는 뜻이다. 산촌한과는 사찰음식의 전문가인 김연식씨가 불교사원 요리에서 영감을 받아 만든 정통 한과이다.

산촌 들깨유과	90,000원	산촌 콩유과	30,000원
산촌 김유과	90,000원	산촌 쑥유과	30,000원
산촌 잣유과	100,000원	산촌 호박유과	30,000원
산촌 대추유과	100,000원	산촌 김치유과	90,000원
산촌 땅콩유과	100,000원	산촌 된장유과	90,000원
산촌 흑임자유과	100,000원	산촌 고추장유과	90,000원
산촌 파래유과	90,000원	산촌 감자튀김	54,000원
산촌 찹쌀유과	30,000원	산촌 감자유과	54,000원

※ 1BOX : 4kg 공통

향적원… 고향의 맛을 선물로

본 제품은 순창군 복흥면(해발300M) 지역에서 직접 농사지은 우리 농산물로만 제조하고 있습니다. 무농약,무방무제,무조미료 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는 15도 이하에서 보관하셔야 합니다.

판매가 (본 제품은 1kg 기준임)

· 고추장	12,000원
· 무우 장아찌	12,000원
· 된장	7,000원
· 마늘쫑 장아	12,000원
· 쌈장	7,000원
· 된장 콩잎	12,000원
· 더덕 장아찌	30,000원
· 된장 깻잎	12,000원
· 오이 장아찌	12,000원
· 산초 장아찌	30,000원
· 갑 장아찌	12,000원
· 울외 장아찌(마나스키)	12,000원
· 간장(1.8L)	8,000원

불자 반디라이트 펜

불자들을 위한 천진동자의 여러 모습이 새겨져 있는 반디라이트 펜입니다.텅스텐 볼펜 심이 LED램프의 중앙을 통과하도록 특수 설계되어 일반 산업체의 야간 근무현장, 영상 교육 중 메모, 경찰이나 군인의 야간 경계근무 혹은 작전시 등 일반 비즈니스맨이나 학생, 운전자 모두에게 필요한 제품으로 개인용도는 물론 판촉용, 선물용으로 탁월한 선택이 되실 것입니다.

■1세트 : 10개入
■가격 : 25,000원

이렇게 들었다 — 여성의 지위

5~10일 뉴욕 유엔본부에서 열린 제5회 세계여성대회에서 발표된 '2000년 세계여성진전'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교육 수준을 빼면 기본적인 여권 지수에서 '후진국'을 면치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UN여성개발기금 보고서에도 한국 여성의 의회 의석 점유율과 한국의 여성 유급 노동자 비율이 모두 최하위권이다. 여성의 정치·경제적 진출도와 사회적 권한을 따지는 '여성 지위 지수(GEM)'에서도 한국은 전세계에서 78위에 머물고 있는 실정. 여성의 권리향상을 위한 다각도의 노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불교계도 예외는 아니다. 한국불교가 '보살불교' '치마불교'로 폄하되고 있는 것은 여성불자의 위상을 대변한다. 여성불자들을 교육하고 권리향상을 위한 종단차원의 창구가 될 불교여성개발원의 조속한 출범과 불교여성단체의 적극적인 활동을 기대하며, 경전 속에서 부처님의 여성관을 살펴본다

불성 똑같듯 남녀도 평등

▨남녀는 일체 평등하다. 하늘은 아비이고 땅은 어미이므로 천지가 낳은 것이니 무슨 다를 것이 있으랴. 〈보문품경〉

▨아난아! 나에게 평등한 대비가 없다고 할지언정 우바이(재가 여신도)를 천하다고 말하지 말라. 〈대방광불보은경〉

▨바른 법을 알뜰히 닦아 익히고 착하지 않은 업을 멀리 떠나면 험악한 세상에서 평등하리라. 〈장아함경〉

▨일체의 국토가 허공과 같으므로… 나는 이렇게 일체의 세계가 같고, 일체의 중생이 같다고 말하는 것이다. 〈청정비니방광경〉

▨어떤 종족인가 그것을 묻지 말고 어떤 일을 행하느냐고 물어라. 〈잡아함 손타리경〉

▨모든 강물이 바다에 이르면 강으로서의 이름이 없어진다. 모든 사람은 불법이라는 바다에서 평등하다. 〈증일아함경〉

▨사리불아, 남을 경멸하는 자는 자기를 상하게 하는 것이다. 〈화수경〉

▨사람이 태어난 곳은 각각 다르나 다만 깨끗한 계를 가지게 하고, 무거운 짐의 번뇌를 떠나 순수하고 한결같이 범행을 닦으면 그는 번뇌가 다한 아라한이요, 잘 건너는 이이다. 〈잡아함 성문경〉

▨남편은 다섯 가지 일로 그 아내를 존경하여 부양해야 한다. 다섯 가지란 바른 마음으로 존경하며, 그 뜻에 대해 원한을 품지 않으며, 딴 여인에 대한 애정을 지니지 말며, 때에 맞추어 의식을 주며, 때로 보배의 장신구를 주는 일이다. 〈선생자경〉

▨마땅히 법과 같이 순서대로 앉아야 한다.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은 앞자리에 있고 뒤에 계를 받은 사람은 뒷자리에 있어야 하는 것이니, 노소의 비구·비구니거나 귀인·국왕·왕자거나 내지는 고자·노비거나간에, 먼저 계를 받은 사람은 앞자리에 앉고 뒤에 계를 받은 사람은 차례에 따라 앉아야 하느니라. 〈금강경〉

▨세상에는 남자가 우월하고 여자가 열등하다는 관습이 있지만 부처님은 남녀간의 차별을 두지 않으며 다만 불성을 아는 것을 가장 존귀하게 여긴다. 〈대살차니건자 소설경〉

▨부처님께서 사위성 기원정사에 계실때, 어느날 수행하고 있는 소마 비구니 앞에 마왕 '파순'이 나타나 말했다. "성인의 경지는 높고 아득해 오르기 어렵거늘 여자의 몸으로는 능히 그곳으로 가기가 어려울 것이다." 이에 소마 비구니는 게송으로 대답했다. "마음이 삼매에 들어가는데 여자의 몸이 무슨 관계가 있겠는가. 누구라도 지혜를 얻게되면 위없는 법을 얻을 수 있느니라." 〈소마경〉

▨온갖 존재는 실체가 없고 평등할 뿐이다. 만약 온갖 존재에서 안팎을 구분한다면, 이는 마음에 개장(蓋障)이 있기 때문이다. 마음을 떠나 별개의 실체가 있는 것은 아니다. 〈비밀상경〉

▨국토의 평등이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중생의 평등이 국토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온갖 중생의 평등이 온갖 존재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으며, 온갖 사물의 평등이 온갖 중생의 평등과 어긋나지 않는다. 〈화엄경〉

▨온갖 사물은 특질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실체가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생기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이루어지는 일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본래 청정한 까닭에 평등하다. 희론(戱論)이 없는 까닭에 평등하다.… 유와 무가 불이(不二)인 까닭에 평등하다. 〈화엄경〉

신행 캘린더

6월21일 (수)

■ 아셈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 워크숍=아셈 민간단체포럼 종교분과위원회는 오후 2시 서울 삼성동 봉은사에서 '영성과 세계화'를 주제로 워크숍을 개최한다. 이번 워크숍에서는 정토회 지도법사 법륜스님이 '세계화와 종교적 대안-종교·영성적 관점', 최재선 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사무국장이 '종교인들의 사회적 실천'을, 김용복 교수(예정)가 '세계화로 인한 삶의 변화-경제적 관점'을 주제로 각각 발제한다. 02)323-6871

■ 지리산살리기 범불교대책위 모임=지리산살리기 범불교대책위는 2시 조계사 2층 강의실에서 제2차 준비모임을 갖는다. 02)723-6231

■ 관광가이드 연수=조계종 포교원은 통도사 및 영축산 일대 암자에서 관광가이드 연수회를 개최한다. 02)720~7060

6월22일 (목)

■ 전국환경활동가 워크숍=환경사회단체회의와 환경민간단체진흥회는 24일까지 대전 동구 청소년자연수련관에서 제5차 전국 환경활동가 워크숍를 개최한다. 법륜스님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펼쳐지는 이번 워크숍은 3일간 14개 분과별 토론마당, 3개 주제별 집중마당, 문화마당으로 진행된다. (02)587-8997

6월23일 (금)

■ '21세기 포교현실' 학술세미나=진각종과 위덕대 밀교문화연구원은 제53주년 창교절을 맞아 오전10시 한국일보 12층 송현클럽에서 '21세기 포교현실과 새로운 방향모색'이라는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연다. 02)913-0753



◇오는 8월14일 우란분절을 앞두고 전국의 사찰과 불자들은 23일부터 조상천도 기도법회를 49일간 봉행한다. 사진은 봉은사 우란분절 법회장면.

■ 49일 조상천도법회=법장사는 오전10시30분 가족들의 행복 및 건강 그리고 조상들의 극락왕생과 평안을 위해 49일간의 특별 천도기도를 봉행한다. 오는 8월14일 회향. 02)971-0303

■ 보조사상硏 월례발표=보조사상연구원은 오후2시30분 서울 법련사에서 제30차 월례발표회를 갖는다. 이날 발표회에서는 '초기불교에 나타난 입출식념(入出息念)'이란 주제로 임승택씨(용인대 강사)가 발표한다. 02)733-5315

6월24일 (토)

■ 재가연대 발전기금 모금 1일찻집=불교바로세우기재가연대는 오전 10시~밤 10시 서울 조계사 후문 하나은행 앞 패미리스레스토랑에서 '재가연대 발전기금 마련을 위한 좋은 만남' 행사를 갖는다. (02)725-6231

■ 거조암 철야기도=진여회는 오백나한으로 유명한 영천 거조암에서 철야정진 기도법회를 봉행한다. 출발은 오후3시 조계사 앞. 02)821-3242

6월25일 (일)

■ 수덕사 천불천탑 봉안법회=수덕사는 오전10시 백중기도 입재식을 갖는다. 회향일은 8월14일 오전10시. 이날 회향식에서는 천불천탑 봉안 법회도 함께 봉행한다. 탑에는 부처님 진신사리를 모신다. 0458)337-6565

■ 터사랑 민통선 기행=답사여행의 길잡이 터사랑은 민간인 통제구역이 되어버린 구철원 일대를 순례한다. 승일교, 도피안사, 고석정, 철의 삼각 전적관, 철의 삼각 전망대, 제2땅굴, 월정역, 백마고지 전적지, 노동당사를 순례한다. 02)725-1284

■ 해인사 광주불교교육원 유적답사=광주불교교육원은 '법보사찰 해인사를 찾아서'라는 테마로 불교문화 유적을 답사한다. 안내는 전남도불교문화연구회 이순규 회장이 맡고, 오전 8시30분 교육원 앞에서 출발한다. 062)228-9098.

■ 조계사 문화답사=조계사는 제1회 문화답사반 행사를 속리산 법주사에서 갖는다. 출발은 오전7시 조계사 앞. 02)720-1390

6월26일 (월)

■ 설악산 봉정암 철야기도=용진신행회는 설악산 봉정암에 2박3일의 일정으로 철야기도를 하러 떠난다. 오전6시30분 출발한다. 02)2279-1191

■ 6대 종교청년 평화캠프=불교 기독교 가톨릭 원불교 등 6대 종교 대학생과 청년들이 참여하는 '2000 종교청년 평화캠프'가 원불교 봉도청소년수련원에서 열린다. 02)816-2252

법회안내

'어떻게 살것인가'



혜인 약천사 방장은 24일 오후4시 서울불광산사에서 '어떻게 살 것인가'를 주제로 법문한다. 02)2276-0993

조계사 가족법회



도법 실상사 주지는 25일 오전10시 조계사에서 가족 불자들에게 법문한다. 02)720-1390

'반야심경' 특강



법륜 정토회 지도법사 스님은 23일 오후7시 부산불교교육대학에서 법문한다. 051)867-9944

자비실천 법회



정연 나주불회사 주지는 25일 오전10시 자비실천법회에서 법문한다. 0613)332 -3440

'불교미래' 강의



김상현 동국대 교수는 24일 오후3시30분 서울 구도법당에서 '불교의 미래'에 대해 강의한다. 02)3411-6167

게시판

알림

▲북까페 운영=옥수종합사회복지관은 마을문고를 북까페 형식으로 새롭게 단장하고, 주민들의 휴식공간으로 개장했다. 운영시간은 오전9시~오후6시. 이용료는 무료. 02)2282-1100

▲시사토론과 논술지도=능인종합사회복지관은 초등학교 5·6학년을 대상으로 금요일 오후4시 신문을 활용해 독서, 토론, 논술을 지도한다. 02)571-2988

▲청소년 집단상담=목동청소년수련관은 매주 토요일 오후3시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청소년 집단상담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02)2646-8341

▲형사고소고발 문제 상담=서울시립은평노인복지관은 매주 수요일 오후 2시 형사고소고발 문제를 상담한다.

서부경찰서 현직 수사과장이 직접 상담, 민원해결을 돕는다. 02)385-1351

▲참선수행=조계사는 '자신을 바라보는 참선수행'이라는 주제로 매주 금요일 2시간씩 참선수행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오전반 10시30분, 오후반 7시. 개강 23일. 02)720-1390

▲스티커제작 공모=생명나눔실천회는 7월10일까지 본회 홍보스티커 디자인을 공모한다. 용도는 차량용. 접수는 이메일(E-mail) lisa@lisa.or.kr/yspg@chollian.net로만 가능하다. 02)734-8050

강좌

▲불화그리기=조계사는 매주 목요일 오후2시 '불화그리기' 강좌를 연다. '불화그리기'반은 3개월 과정으로 수시 모집한다. 02)732-2183

▲중국어회화=서울 불광산사는 여름방학을 기해 오는 7월11일부터 한달여간 중국어 회화 초급반과 아동반을 운영한다. 초급반은 매주 화·목요일 오후 4시~5시30분(7.11~8.10), 아동반은 매주 월·목요일 오후2~5시(기초반/초급반, 7.24~8.24)에 실시된다. 02)2276-0993

▲어린이 영어=공창종합사회복지관은 매주 목·금요일 오후 5~6시 어린이 영어 강좌를 연다. 051)363-2063

답사

▲구례, 하동 역사탐방=터사랑은 24~25일 아자방구들로 이름난 칠불암과 삼신봉 아래 삼성궁, 도인촌 청학동마을, 토지의 무대 평사리, 피아골 연곡사 등 지리산 빨치산과 한국전쟁의 아픔을 간직한 역사현장을 찾아 길을 떠난다. 안내는 역사탐방연구회 염상균씨가 맡는다. 02)725-1284

모집

▲후원품=송파재가노인복지센터는 독거노인들에게 무료로 방충망 서비스를 제공할 방충망, 쫄대, 기타 공구용품 등의 후원품을 모집한다. 02)2203-3677

▲자원봉사자=제천장애인종합복지관은 장애아동을 대상으로 개별학습(한글, 산수 등)과 독서, 음악 등을 지도하고, 식사, 운동, 놀이를 함께 해 줄 자원봉사자를 모집한다. 봉사시간은 주 1~5회. 1일 1~2시간. 02)652-0900

▲경전반=동화사 신도회는 경전반에서 함께 공부할 도반을 모집한다. 기간은 24일부터 8월12일까지 3개월 과정. 대상은 기초교리반 수료자 및 희망자에 한한다. 053)982-0101

▲불자간병인 전문과정=대구 송향사 부설 불교보건교육원은 호스피스 전문과정 수강생을 모집한다. 만18~60세 남녀 누구나 신청 가능하다. 0530311-8922

▲선단식 수련원생=경남 함안 한마음 선단식 수련원은 불면증 우울증 신경성질환 체질개선 비만 알콜중독 등에 시달리는 환자와 청소년을 대상으로 선단식 수련원생을 모집한다. 0552)587-8762

▲중·고등학교 과정 학생=상화불교대학은 중·고등학교 과정 학생을 모집한다. 접수기한 30일까지. 02)511-2026

구인

▲어린이부 지도간사=한국불교연구원은 서울구도회 어린이부를 이끌어 줄 지도간사를 모집한다. 02)3411-6167

이전

▲박민수 참선교육원은 최근 서울시 양천구 신정1동 1052-3 상운빌딩 301호로 이전했다. 02)2601-9486

사찰건축

스님! 이제 장엄불사 시멘트의 조각성형으로 전통사찰(포작) 그대로 제작해 드립니다

스님의 평수 주문에 따라 석가래에서 포작까지 일체 제작판매

성형제작과정



■ 포작 성형양생과정



■ 서가래 양생과정



■ 익공 성형 양생과정



■ 부연성형양생과정



설계에서 시공까지

책임은 확실히지고
약속은 꼭 지키는 기업입니다

법당시공과정



■ 배흘림 성형기둥



■ 외3포 조립



■ 서가래 조립



■ 지붕 방수 및 덮개

특징 저렴합니다 /간편합니다/섬세합니다 /우아합니다

사업안내 · 콘크리트 법당 · 목조사찰건축 · 요사채 · 콘크리트 성형조각판매

한국불교전통문예 (고건축사업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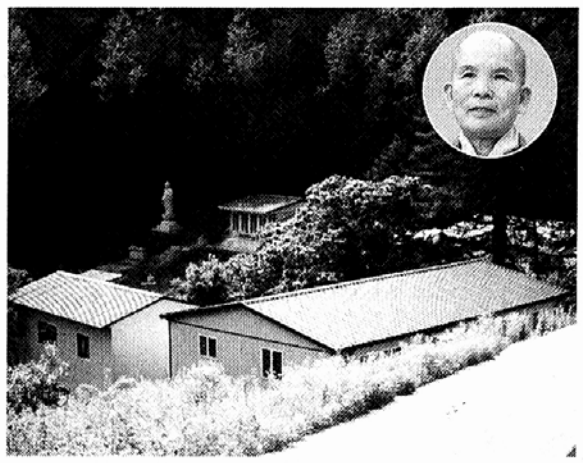
서울 · 중랑구 망우 2동 515-44(창원B/D 402호)
서울전화:(02)494-4890/1(代)
영남(울산):(052)258-2813
제1공장:경기도 남양주시 진건면 송능리237-9
제2공장:경기도 용인시 운학동 590

"동네주민 모두 불자예요"

현우스님 10년불사 경기 가평 '솟틀부락'

15가구 함께 기도·공양 '불교공동체'

노천법당·참선방·전통찻집 갖춰



◇불자마을 전경. 녹야원 아미타여래가 모셔진 노천법당을 중심으로 계곡을 따라 집들이 이어져 있다. 원내는 주지 현우스님.

경기도 가평군 외서면 하천1리 일명 '솟틀부락'이 불자마을로 탈바꿈해 화제가 되고 있다.

솟틀처럼 둘러 쌓인 산 자락에 위치한 이 마을은 5~6년전부터 현지 주민들이 하나 둘씩 떠나고, 불자들이 정착하기 시작해 벌써 15 가구를 형성했다.

솟틀부락에는 5m 높이의 석조 아미타여래입상을 모신 노천법당을 중심으로 법당인 녹야원(주지 현우스님)과 참선방(주지 대오법사), 청동불을 조성하는 혜성원(원장 김용섭), 불화를 그리는 불광미술원(원장 박갑용), 전통 찻집·불한증막·음식점이 들어서 있으며, 조계종 포교사 부부와, 서울 불광사·봉원사 신도, 현대미술가, 프로그래머 등이 생업과 수행을 겸한 전원생활을 하고 있다.

솟틀부락에 불자들이 모여들기 시작한 것은 10년전 이곳에 토굴을 마련하고 수행했던 녹야원 주지 현우스님(63)의 원력 때문.

마을을 둘러싼 불기산(佛岐山)이 "부처님이 가닥을 나누어 화현한다"는 의미를 지니고 있으며, 감천리(甘泉里)란 옛 지명이 말하듯 맑은 샘물이 나와 불연이 깊은 마을임을 알게 된 현우스님이 인연 있는 불자들을 한·두명씩 이곳으로 이끈 것이다.

실지로 이 불기산 자락의 마을은 현우스님의 원력대로 매일 많은 불상이 조성되고 있으며, 불자들의 방문도 나날이 늘고 있다.

13년전 서울 청담동 도심포교당에서 생활과 수행이 둘이 아닌 '생활 불교'를 활성화시키기로 서원을 세운 스님은 솟틀마을을 불자마을로 조성해 법당 또는 야외법당에서 함께 기도하고 식당에서 공양을 나누며, 개인적으로 생업문제도 해결하는 불교생활공동체를 실현하고 있다.

방문하는 불자 가족들에게는 수행프로그램도 마련해 참선, 철야정진 등도 지도하며 주말농장을 무료로 이용하고 삼림욕과 산책을 즐기도록 하고, 요사채를 겸한 한증막도 저렴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특히 수천여평의 뒷동산에 인도의 불교 4성지를 25만분의 1로 축소한 극락정원도 구상하고 있다.

혜성원 김용섭원장은 "아직은 정착단계이지만, 마음맞는 불자들끼리 수행과 생활, 휴식을 함께 하는 불자마을은 생활불교운동의 한 모델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말했다.

가평=김재경 기자 (jgkim@buddhapia.com)



태평양전쟁 희생자 천도 일제 식민시절 일본에 의해 강제로 끌려가 태평양전쟁에서 희생당한 영령들을 위로하기 위한 천도재가 11일 진안 탑사(주지 왕선) 특설도량에서 봉행됐다. 이날 추모재에서 왕선스님은 "오늘 법회를 계기로 이 지구상에 인명을 살상하는 전쟁이 없고 평화로운 불국정토가 구현되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추모재에 이어 천도재는 봉서사 영산작법 보존회 소속 어산스님들의 집전으로 봉행됐다. 이경숙 기자

한마음선원 문경지원 개원



한마음선원 문경지원(지원장 청해)은 5월 28일 7백여 사부대중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법회〈사진〉를 개최했다.

개원법회에서 대행스님(한마음선원 원장)은 혜솔스님이 대독한 법어를 통해 "부처님은 항상 바른 뜻과 바른법을 마음과 마음, 말과 말로 전달해서 만 중생들에게 큰 이득을 준다"며 "대중들은 자성부처님을 밝혀 고에서 벗어나 참자유인이 되길 바란다"고 설했다. 문경지원은 대지 212평에 법당 28평 요사채 20평으로 구성돼 있다. 김원우 기자

향기나는 상담전화 이용하세요

'맑고향기' 광주모임 062-266-6410

맑고 향기롭게 광주본부(본부장 박원재)는 13일 '맑고 향기로운 전화(062-266-6410)'를 개통하고, 본격적인 종합상담 전화서비스를 시작했다.

'맑고 향기로운 상담전화'는 7명의 상담원이 월~금요일 주 5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인생, 부부갈등, 자녀, 고부, 이성, 청소년상담에 응한다.

맑고 향기롭게 광주본부는 그 동안 상담전화 개통을 위해 회원들이 불교상담교육을 이수한 뒤 직접 광주 세종고교에서 학생상담을 실시해왔다.

박금지 상담실장은 "불법의 진리에 바탕한 전화상담을 통해 소외받는 이웃들을 사회의 진실한 벗이 되겠다"며 "특히 가치관의 혼란을 겪고 있는 청소년 상담에 역점을 둬 그들의 제반문제를 예방 및 해결에 주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맑고 향기롭게 광주본부는 매일 80여명의 광주지역 생활보호대상자 및 지체장애인들에게 자비의 도시락을 3년간 제공하는 등 자비의 실천행에 앞장서고 있다. 주용직 광주지사장

불교도서총판 삼장원 기획전시공간 상설화

불교도서총판 및 불교용품 전문점 삼장원(대표 정장권)이 시민을 위한 기획 전시공간을 상설화해 관심을 끌고 있다.

개원 10주년을 맞아 매장을 확장 이전한 삼장원은 45평 규모의 매장 내에 9평 규모의 공간을 마련, 각종 기획 전시를 상설화 하게 된다.

24일 개원 행사에 맞춰 열게 되는 첫 전시에서는 안동 하회탈과 하회탈 캐릭터 상품을 선보인다. 051)248-3582 천미회 기자

"장애인에 꿈 심어주려 걸어서 국토종단 도전"

신장병 앓는 도천스님



"4백 5십만 장애인들에게 꿈과 희망을 주고 싶고 제 자신에게는 수행의 한 방편이 될 것입니다."

도천스님(양산 대자비원 지도법사)이 정상인도 어려운 도보국토 종단에 도전하는 이유다. 도천스님은 15년째 신장병을 앓고 있으며 지금도 이틀에 한번 5시간의 투석을 계속하고 있는 실정.

대장암, 위장암 등의 합병증으로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다. 그러나 투병은 이제 오히려 수행의 방편일 뿐이다.

수행의 방편으로 삼고 있는 투병이기에 내년 4월 결제일에 맞추어 임진각을 출발한다. 스스로도 "목숨을 건 도전"이라고 표현하는 1백일의 대장정. 5백 80km를 한걸음 한걸음 걸어 해제일에 맞추어 회향할 계획이다.

도천스님은 "임진각에서 부산까지 걸어오는 동안 장애인을 위한 모금 운동과 신장병 예방 강연회 등으로 모아지는 모든 성금은 장애인 쉼터 설립, 결손 가정 돌보기, 맹인 불자 성지순례 등에 알뜰하게 회향할 것"이라고 밝혔다. 천미회 기자

종단소식

조계종

포교원 관광가이드 연수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20일부터 21일까지 통도사 및 영축산 일대 암자에서 관광가이드 연수회를 개최한다. 연수는 한국불교문화의 특색, 통도사 경내 및 산내암자 답사, 사찰문화이해, 성보박물관 설명, 불교세계관 이해를 위한 슬라이드 상영 등의 프로그램으로 진행된다.

태고종

충담스님 열반 2주기 추모



지난 98년 음력 5월 4일 스스로 몸을 살라 부처님께 공양하고 열반에 든 이충담 대종사의 2주기 추모법회 및 소신 등공사리탑비 제막식이 5일 감로사에서 엄숙히 봉행됐다〈사진〉.

이날 추모법회에서 총무원장 인곡스님은 추모사를 통해 "충담대종사가 생전에 실천하고 닦으신 상구보리 하화중생의 보살수행을 되새겨 열심히 정진하고 국가와 대중을 위해 기도하자"고 강조했다.

이날 추모재에는 우담 연수원장, 종연 종회의원, 규범 태고원 이사장, 지성 총무부장 등 종단 스님들과 신도 등 2백여명이 동참했다.

천태종

정상회담 성공기원 정진

총무원장 운덕스님, 부장 덕수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관문사 명락사 삼룡사 명화사 등 서울지회 신도 2천여명은 역사적인 남북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를 기원하는 철야정진법회를 10일 입재하여 12일 밤 11시에 회향했다. 입재법회에서 운덕스님은 "정상회담의 원만성취로 가족과 헤어졌던 이들이 상봉의 기쁨을 누리고, 반목과 질시로 얼룩진 7천만 국민의 가슴에 화합의 불심이 싹트게 해달라"고 기원했다.

황덕사 관음보전 낙성식

오산 황덕사(주지 마갈)는 26일 오전 10시 경기도 오산시 은계동 57번지 현지에서 관음보전 낙성 및 관세음보살 봉안식을 갖는다. 이번 낙성 및 봉안식에는 천태종 종정 도용스님, 총무원장 운덕스님 등 종단스님들과 신도 등 1천여명이 동참할 예정이다. (0339)373-2126

대한불화종

총무원 새 집행부 구성

13일 취임한 총무원장 법홍스님은 새 총무원 집행부를 구성했다. 각 부장은 다음과 같다.

△기획실장=정봉스님(김창교구원) △사서실장=보광스님(경기남부교구원장) △총무부장=법만스님(서울교구원장) △교무부장=경호스님(부산교구원장) △재무부장=무일스님(대구구화사 주지) △사회부장=혜광스님(충북교구원장) △감찰부장=법진스님(강원교구원장) △평화의 종 불사추진위원장=월호스님(서울 팔봉사 주지)

염불종

대승사 아미타불 점안

총무원(원장 청봉)은 18일 총본산 자옥산 대승사에서 보국불교 염불종 창건 3주년 개산대재와 아미타삼존불 점안식 및 국태민안 기원대법회를 봉행했다. 이번 대법회는 1부 삼천불전 아미타 삼존불 점안식, 2부 개산대재, 3부 불자연예인 초청 축하공연 등의 순으로 진행됐다. (0561)762-7830

아바타 코스는 자기 자신이 온전한 주인이 되어 뜻대로 사는 길입니다.
아바타 코스
당신이 원한다면, 당신이 선택하기만 한다면 당신의 삶 전반이 바뀔 수 있습니다.
당신의 소원을 이루십시오.
밝은길 아바타 센터
마스터/위저드 김희균
· 아바타 코스는 7~9일이 걸리며 비용은 210만원입니다.
· 전화주시는 분께는 안내 자료를 보내드립니다.
서울 종로구 평창동 45번지
http://www.avatarcenter.co.kr
E-mail : bukba@kornet.net
☎ 02) 396-2736 H·P 016)228-2358
FAX 02) 396-2735

元·氣·回·復 존경하는 분에게 가장 고급스럽고 길이 남을 선물이 될 것입니다.
최고의 신비스러운 영약 山蔘 長腦
존경하옵는 스님, 스승님, 부모님과 시험준비에 지친 수험생에게 평생 최고의 값진 선물 최저가격으로 불자님과 인연을 맺고자 합니다.
심마니로부터 산지에서 직접 공급받아 한정된 수량을 전국 어디라도 배달해 드리겠습니다.

산삼의 효능
◆ 산삼은 기사회생의 영초로서 옛부터 거의 만병통치의 효험이 있는 영초로 전해 내려왔다.
◆ 당뇨병, 심장병(동맥경화증, 협심증), 위장병, 혈압조절(고혈압, 저혈압), 아편중독, 나병, 암 등 불치병에 큰 효과가 있다.
◆ 신경쇠약, 폐병, 간염, 간경화, 악성빈혈, 신장병, 류마티스, 디스크, 신경통, 노화억제, 원기부족, 성인병, 예방과 치료에 큰 효과가 있다.
◆ 방사선병, 조혈작용, 산후건강회복, 출혈성, 질병, 신진대사 촉진, 비위허약 뇌기능 강화에 큰 효과가 있다.
◆ 정력강화(조루증, 정자결핍, 성욕감퇴, 성기능장애), 냉증, 부인병에도 큰 효과가 있다.
◆ 눈이 밝아지며 어린이는 산삼장뇌를 조금만 먹어도 추위를 타지않고 머리가 좋아지며 저항력이 높은 강력한 체질로 개선된다.
◆ 산삼은 특정 병에 대한 치료도 될 수 있지만 인체의 전반적인 저항력을 높여 건강을 유지시키는 만병통치적 효험이 있다.
身敬하옵는 스님
오늘도 衆生 求道와 佛功으로 苦行하시는 스님
지치신 몸과 氣力을 山蔘 長腦로 다스려 새롭게 精進하시옵기를 祈願드리오며 山蔘이 높은 가격 부담으로 미처 접할 기회를 못 가지셨던 스님께 報恩에 마음으로 제공해 드리고자 하오니 부담없이 別途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식물은 本草에는 上藥 120가지 中藥 120가지 下藥125가지로 모두 365가지의 약용식물이 구분 기록되어 있는데 山蔘은 上藥중의 첫째가는 君藥으로 이 세상의 어떤 약용실물도 모두 아래에 불과하다고 기록되어 있다.
산삼장뇌란?
산삼은 천종, 지종, 인종, 장뇌 4가지로 분류됩니다. 그 중 장뇌란 산삼의 씨를 채취한 후 깊은 산에 뿌려 자연상태로 재배한 것이며 자연산삼에 버금가는 효과를 지니고 있습니다. 격조있는 선물이 될 것입니다.
주문처 서울(02)713-7798, 701-4716
■ 별도상담(자연산삼 보유)
■ 자연산삼 문의상담(심마니 채취가격으로 공급)
■ 산삼이 꼭 필요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우신 분
한국생약보존(산삼) 연구협의회
서울「장뇌산삼」사업부

영원한 진리의 향기
다시 보는 법구경

악한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냄새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차츰 미혹하여 그 나쁜 것을 익혀서
지도 모르게 악을 이룬다.
어진 사람이 남을 물들이는 것은
마치 향기나는 물건을 가까이하는 것과 같다.
지혜로워지며 선을 익혀
마침내 맑고 꽃다움을 이룬다.
- 본문 중에서
엮은이 허 정 스님
법주사 승가대학을 졸업하고, 조계사 주지, 총무원 포교연수부장을 역임하였다.
현재 파주 심학산 약천사 주지의 소임을 맡고 있으며
불교 신자뿐만 아니라 일반인들에게도 널리 읽히는
가장 대중적인 경전으로 부처님의 주옥같은 말씀이 그대로 담긴
《법구경(法句經)》을 많은 사람들이 접하고
부처님의 진리를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길 기원하고 있다.
허정스님 엮음/본문 301면/값 8,000원
전화 (02)712-1938, 팩스 (02)706-9576
E-mail : geumsan@kornet.net
금산출판사

낙도포교 장학재단 생긴다

박산점-김명순 부부 허공장신행회에 1억 쾌척

교계에서 처음으로 낙도포교를 위한 청소년 불교장학재단이 생긴다.

경기도 군포에 거주하는 박산점(84)·김명순(77) 불자부부가 13일 낙도지역 포교단체인 허공장신행회(지도법사 지명, 법주사 주지)에 장학기금 1억원을 쾌척했다.

허공장신행회(회장 황남성화)는 이 기금을 토대로 장학재단 설립위원회를 구성, 9억원을 더 모아 올해 내 낙도청소년 불교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이 장학금은 내년부터 가정형편이 어려운 도서지역 청소년들에게 전달될 방침이어서 낙도포교의 새로운 전기가 마련될 것으로 보인다.

장학기금 전달식에서 김명순 보살은 "신문배달하며 고학으로 공부한 남편이 돈 없어 못배운 사람들을 돕는 장학재단을 설립하겠다고 평생 입버릇처럼 말했는데, 맨 먼저 낙도지역 불교포교를 위한 장학재단 설립에 힘을 보태게 돼 흐뭇하다"고 소감을 밝혔다.

이번에 허공장신행회에 기부한 1억원은 박산점거사가 전남도청을 정년 퇴직한 뒤 경기도 광명시 야산을 손수 개간하여 포도밭으로 만든, 노부부의 땀이 배여있는 6천평 농장의 일부를 처분해 마련한 것이다. 박산점 김명순 부부는 나머지 재산도 매각이 되는 대로 낙도지역, 도심포교를 위한 보시와 고향인 전남 나주에 청소년 장학재단을 설립할 계획이다.

김보살은 "원래 인간이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가는 만큼 소유하고 있는 부동산을 모두 처분, 장학재단을 만들어 사회에 환원할 생각이다"고 말했다.

김 보살은 "공무원 월급으로 7남매를 키우면서도 시간이 있을 때마다 고아원을 찾아다니며 오르간을 사주는 등 나눔을 실천하는 남편의 뜻을 이해 못하고 자식들을 지위 높게 키우고 부자되는 것이 전부인줄 알았었다"며 "부처님의 가르침을 배우고 보니 물질보다는 참된 재산을 쌓는 것이 진정한 부자임을 알았다"고 말했다.

박산점 김명순 부부가 나눔의 신행을 펼치게 된 밑바침에는 무언의 가르침을 준 둘째 시아주머니 박호철거사가 있다. 박호철 거사는 당시 나주 다보사 주지로 주석했던 고암 스님(前 조계종 종정)의 가르침을 받고 스님 못지않는 철저한 수행과 무소유의 삶을 일관되게 살아 와 지역주민들에게 감화를 주고 있다. 무엇이 생기면 어김없이 마을에서 가장 못사는 집에 갖다주는 박호철 거사의 무소유 삶을 항상 생각하며 마음을 다진다고 한다.

김 보살은 7남매를 키우느라 정신없이 지내다 30년 전 시골의 쓰러져 가는 농막에서 수행하는 스님을 만나는데서 불교와의 인연을 시작했다.

"혹시 필요한 것이 있느냐고 스님께 조심스럽게 물으니 '없다' 고 단숨에 잘라 말해요. 스님의 얼굴이 너무나 맑아서 스님들을 외호하겠다는 원력을 마음속으로 세웠어요"

자식들이 성장하여 다 제갈길을 가게된 20년 전부터 박산점 김명순부부는 가난한 사찰과 신도시 도심포교당, 포교신행단체를 찾아다니며 어렵게 수행하는 스님과 포교하는 불자, 불우한 이웃을 찾아 무주상보시를 해오다 이번에 낙도포교를 위해 큰마음을 낸것이다. 김보살은 현재 청계사 총신도회장과 허공장신행회 고문으로 활동하고 있다. 김원우 기자 (wwkim@buddhapia.com)



◇김명순보살(왼쪽 세번째)이 13일 1억원의 낙도포교를 위한 장학기금을 허공장신행회에 전달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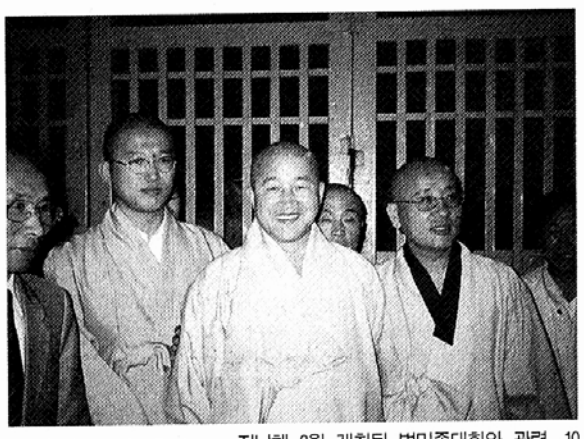
수행환경 보호 요구

법흥사, 영월군에 진정서

강원 영월군 수주면 법흥사(주지 도완)가 사찰 주변환경 보호와 수행환경 보존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13일 영월군에 제출했다.

법흥사는 진정서에서 "최근 중창불사 계획상 법흥사 일주문이 들어설 흥령선원복원지의 100m 인근에 도자기전시관 및 사업장이 생겨나고, 지방유형문화재 72호인 징효대사 부도탑 및 보물 612호인 징효대사 보인탑비와 불과 500m도 되지 않는 거리에 서양식 2층 콘크리트 건물의 민박집이 들어서는 등 불교성지 이미지를 크게 훼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행락철이 되면 사찰 입구까지 몰려드는 행락객들로 인해 수행에 큰 지장을 받고 있을뿐만 아니라 인근 요식업소에서는 사찰 환경을 오염시키는 행위들이 빈발하고 있다"며 법흥사 일주문 설립 예정지 내의 요식업소 허가와 신축건물 허가취소 등을 요구했다. 한명우 기자



진관스님 출소

지난해 8월 개최된 범민족대회와 관련, 10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았던 진관스님(불교인권위원장)이 14일 서울구치소에서 만기 출소했다.

이날 서울구치소에는 불교인권위 운영위원장 지원스님과 사무처장 도관스님, 나눔의 집 원장 혜진스님을 비롯한 100여명의 스님들과 노수회 전국연합 공동의장, 이종진 범민련 남측본부 의장 직무대행 등 500여명이 나와 진관스님의 석방을 축하했다. 김두식 기자

6·25 전몰장병 추모 위령제

군법당 사암련 등

6.25 50주년을 맞아 전국에서는 추모 위령제 준비가 한창이다.

육군 5군단 호국금강사(주지법사 이종인)에서는 25일 6.25 전몰장병 및 희생영령합동위령제를 봉행한다. 영가천도의식, 위령대제, 탑돌이 순으로 오전 행사가 끝나면 오후에는 도피안사 제2땅굴 월정리 전망대 노동당사 등으로 전적지 순례의 시간을 갖는다.

성남 약사사는 육군 15사단 천불사에서 25일 10시 여래종 종정 인왕스님을 증명법사로 제10회 호국영령 천도재 및 국군장병 위문법회를 개최하며, 경북 칠곡 법전사(주지 혜륜스님)는 24일 11시 낙동강 근처 다부동 전적지 충혼탑 앞에서 '순국선열 호국전몰군경 무명용사 합동 위령제를 봉행한다. 법전사에 모신 위패를 이운해 치러지는 위령제는 국민의식행상과 애국애족의식함양을 위해 19년동안 봉행되어 왔다.

부산 내원정사(주지 정련)도 5월8일 입제한 제20회 선망부모조상 및 전몰장병 호국영령 천도 49일간 지장기도 대법회를 25일 회향한다. 내원정사는 이날 회향과 함께 26일 치자마을에서 방생법회로 호국영령천도법회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부산 남구·수영구 불교사암연합회(회장 지원)는 25일 UN 묘지 위령탑에서 6.25 한국전쟁 50주년을 추모하는 전몰 영령 위령대제를 봉행하며, 문수불교문화원(원장 설곡)은 25일 문화회관 야외 광장에서 부모님과 함께 하는 통일염원 어린이 백일장도 개최한다.

또 경남 함안사암연합회(회장 지정)는 25일 함안 민안비에서 함안군 전몰장병위령제를, 중랑구사암연합회(회장 경천스님)는 육군 57사단 호국용마사에서 22일 호국영령위령대법회를 봉행할 계획이다. 천미회·강지연 기자

뉴스 & 뉴스

연등회 새회장 김기재의원



새천년민주당 연등회는 14일 연등회 총회를 개최하고 신임회장에 김기재 의원〈사진〉을 선출했다.

부회장에 장정언 의원, 이사에 장재식 최선영 조한천 추미애 조성준 곽치영 김태홍 박주선 이원성 이희규 함승희 의원, 노무현 배종무 전의원, 최해조 감사 등이 각각 선출됐다. 강지연 기자

청년불자 환경사랑 지킴이

대한불교청년회 제19차 전국청년대회가 10~11일 이틀간 부산 해운대 송림공원에서 전국의 청년불자 2천 여명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초발심의 청년불자 환경사랑 지킴이로' 라는 슬로건으로 열린 이번 청년대회는 DDR 경연대회, 불청 가요제, 도리도리 축하공연, 법륜 스님 강연 등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진행됐다. 한편 전국에서 참여한 청년 불자들은 해운정사에서 진제 스님을 계사로 '물을 아낀다' '사후 화장한다' 등의 환경 5계 수계식을 통해 환경에 대한 관심과 실천을 다짐했다. 천미회 기자

비지정문화재 잇단 도난

한동안 잠잠하던 비지정문화재 도난사건이 잇달아 발생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5월 23일 올해 들어 처음으로 경북 영덕 관음사에서 현왕탱 1점이 도난당한데 이어, 31일에는 경북 청도 용천사에서 대웅전 석가모니 후불탱화가 또다시 도난당했다. 이번에 도난당한 후불탱화는 18세기에 조성된 것으로 전체적으로 보존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계종 문화부 관계자는 "장마철에 더욱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권형진 기자

'7300-108' 전화하세요

사찰수련법회 정보센터 '오픈'

전국사찰 수련법회 정보는 7300-108로 전화하면 쉽게 얻는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정련)은 13일 2층 강의실에서 포교원장 정련스님, 불교신문사장 영담스님, 각 본사 포교국장스님들이 참석한 가운데 수련법회 정보센터 개소식 행사를 개최했다.

수련 정보센터는 두달간 전국사찰의 수련법회 정보를 취합하여 불자 및 일반인들에게 수련법회 장소, 참가대상, 참가방법 등을 안내한다. 또 수련법회를 진행하고자 하는 사찰에는 개설에 필요한 각종 자료와 교재발간및 업무지원 등도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일반인들의 경우 수련법회 참가요청 및 관심이 쇄도하고 있으나 정보파악에 어려움을 겪고, 본사급 사찰의 경우 높은 경쟁률로 참가가 쉽지않은 실정이다. 반면 일부 말사의 경우는 홍보부족으로 수련대회 참가자가 없는 등 참가자의 빈익빈 부익부의 상황이 전개돼 왔었다.

한편 조계종포교원은 13일 운영과 실무내용을 다양하게 수록한 〈사찰수련법회 자료집〉을 발간했다.

수련법회 자료집에는 '수련법회의 기획' '수련법회의 준비' '수련법회의 운영과 실체' '수련생들의 사후관리' '색다른 수련법회' 등으로 구성돼 있다. 김원우 기자

도와주세요

소아암 앓는 8살 '승욱'

10년째 혈우병 '상훈'



승욱이와 상훈이를 도와주세요.

98년부터 횡문근육종(소아암)으로 삼성의료원에서 항암치료를 받고 있는 오승욱 어린이(8·사진 왼쪽)는 눈에 암이 생겨 사물을 알아볼 수 없을 정도, 월세 20만원을 내기도 버거운 승욱이네 가정형편으로는 병원비를 더 이상 감당할 길이 없어 치료를 못하고 있다. 연락처:오승욱(02-956-1676) 축협 (115-73-02487-917 예금주 윤순덕)

8살 때 재생불량빈혈(혈우병)이 발병해 10년째 병마와 싸우고 있는 심상훈(18)군. 1년에 서나차례나 중환자실 신세를 져야하는 상훈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골수를 이식받는 것. 그러나 월세 15만원, 9평짜리 반지하에 사는 상훈이네는 5000만원이나 되는 수술비를 마련하지 못해 애만 태우고 있다. 연락처:생명나눔실천회(02-734-8050), 농협(053-17-001346 예금주 생명나눔). 김두식 기자

목탁소리

만해상과 신용하교수

오 종 욱 〈취재2부 기자〉

만해사상실천선양회가 최근 발표한 제4회 만해상 수상자 중에서 학술부문에 선정된 신용하(서울대) 교수는 교계의 입장에서 보면 아쉬움을 남기는 사람이다.

진보적인 사회학회를 이끌어온 신 교수의 학문적 업적을 인정해 선정된 점에는 이의가 없지만, 그는 과거 '3·1운동 발발의 경위' 라는 논문에서 "만해 스님은 독립선언문의 공약삼장을 쓰지 않았다"고 주장했기 때문이다.

이 같은 견해는 '만해상이 효교(護敎)에 노력한 사람만이 수상해야 한다' 는 편견에서 출발한 게 아니다. '아쉬움' 은 바로 신 교수가 77년 만해 스님과 공약삼장의 관계를 추론한 논문을 발표한 이래 후속 연구를 하지 않았다는 데 있다. 더욱이 90년 초 교계 한 역사학자가 〈이기영 고희논문집〉 등을 통해 신 교수 주장에 반론을 제기하고 또 논문을 신 교수에게 발송했지만, 지금까지 신 교수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해 왔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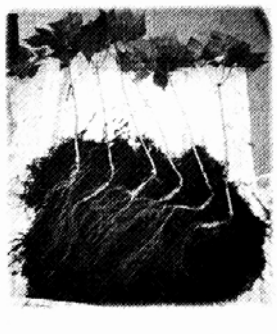
이에 대해 신 교수는 "그 학자의 논문은 특정인의 구전을 토대로 만해 스님이 공약삼장을 썼다는 주장을 제기한 것으로 기억하는데, 역사는 사료를 중심으로 정립해야 한다"며 "학술적인 증거를 찾지 못하는 한 공약삼장의 저자는 아직 밝혀진 게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다.

그 말처럼 관련 문헌이 새롭게 발견될 때까지 기다리는 게 합리적인 태도일지는 모르겠으나, 10여년 이상 그런 입장을 고수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더욱이 신 교수가 다른 사람은 한국 근대불교의 태두와 같은 만해 스님이고, 또 불교 역사학자의 반론을 이미 접했지 않았던가.

만해상 심사위원회는 '대승적 차원' 에서 신용하 교수를 선정했다는 후문이다. 그렇다면 신 교수는 만해상 수상을 계기로 만해 스님과 공약삼장의 관계를 정확히 규명하기 위한 후속 연구 결과물을 내놓아야 할 것이다. 그것만이 만해상 수상자로서 만해 스님에 대한 예우라 생각한다.

산 삼

춘천(홍천) 가리산에서 기도 정진중에
11뿌리 산삼을 캐었습니다.
인연있는 분을 만나고자 하오니 관음사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산삼 보시금은 전액 불사에
쓰여집니다.





▶ 연 락 처
경기도 양평군 청운면 용두2리
관 음 사
0338)773-9751
771-7429
011)229-9751

금해스님의 여 래 선 식



많은 분들께서 여래 선식의 뛰어남에 입에서 입으로… 마음에서 마음으로 감탄하시고 놀라움을 금치 못합니다
손금 만큼 값진 죽염 쥐눈이 콩간장, 콩메주를 발효시켜 한번구운 죽염으로 간장을 뜨고, 숙성시킨 간장에 진짜 자수정 죽염을 넣고, 자수정 죽염 1 : 쥐눈이 콩 간장 5 느릅나무 엑기스 1의 비율과 나머지 약재를 넣고 간장 1 말이 2되 되게 졸인 진 죽염 간장 …
바르고, 넣고, 마시는 그 신비한 진 죽염간장
모든 암에 결정적 영향, 소화기 장질환에 급속 해결

▶▶ 숙취 해소, 가정의 비상약 ◀◀
· 진죽염간장 1L : 200,000원
· 원동 토종매실로 발효시킨 엑기스 1.5L : 60,000원
· 쥐 눈이 콩 메주 1kg 당 : 15,000원
· 쥐 눈이 된 장 1kg 당 : 10,000원

▶건강음료 및 장류 사업 동참하실 불자님을 모십니다
▶자본 3억 이상 출자 가능하신분 .경영전문가

상담문의 0523)372-1221 / 011)564-1217
▪입 금 : 우체국 611715-02-016346 예금주 : 지덕용
▪주 소 : 경남 양산시 동면 사송리 754 약사사

초기에 스님들은 과연 어떻게 생활하였을까?
초기불교 교단생활
부처님 제세시와 열반 직후의 초기불교 교단 내의 여러 가지 생활 상들을 다양한 전거들을 토대로 정리한 책
출가 및 구족계 제도, 안거와 포살 및 자자제도, 승가의 의식주, 계율, 갈마제도 등 부처님이 제정하신 다양한 제도와 구조, 계율과 생활 모습 등에 대해, 만들어지게 된 동기와 과정, 그것이 가지는 의미와 여법한 절차 및 종류 등에 대해 상세하게 고찰하고 있다.



태원스님 저/신국판양장/348쪽/값 13,000원

밀교란 과연 무엇인가?
밀교학개론
종합불교, 살아 있는 진정한 불교로서의 밀교의 모습을 총체적으로 조명한 책
밀교의 기본적 특징 및 그 전개과정, 밀교의 핵심 중 하나인 다라니와 란트라의 의미, 밀교의 교관론 및 핵심 교리, 대일여래를 중심으로 한 불신론, 밀교의 상징적 표현인 만다라를 통한 인식론, 밀교의 성불론, 각국에서의 밀교의 전개 등에 대해 살펴보고 있으며, 이를 통해 밀교에 대한 여러 오해와 편견들을 불식시키고 있다.



종석스님 저/신국판양장/256쪽/값 10,000원

도서출판 운주사 서울 성북구 동소문동 1가 51번지 타운힐빌딩 ☎전화 : 3672-7181~5 팩스 : 3672-7186

주부신행담 다시 부처님 품으로



그림 · 이준석

부처님 말씀은 용기와 희망주는 삶의 청량제이자 활력소 불서 읽으며 심신피로 풀었다

나는 불교 가정에 태어난 인연으로 어렸을 때부터 부모님을 따라 절에 다녔고 그 영향 탓인지 관세음보살 정근은 동요처럼 자연스러웠다.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 관세음보살님이 어떠한 분인지도 모르면서 나는 가끔씩 되뇌이곤 하였다. 시험지를 받아들 때 콩콩 뛰는 가슴을 진정시키느라 염불하였고 간혹 어머님이 아프실 때 "관세음보살님 우리 어머니를 아프지 않게 해주세요" 기원하며 염불했었다.

자라서는 불교를 알고 싶어 불교학생회에도 가입하였고 상급학교 진학할 때마다 관세음보살님에게 원하는 학교에 꼭 들어가게 해달라고 애타게 부르기도 했다. 그러나 늘 노력이 부족한 탓인지 원하는 학교에 합격한 적이 없었기에 나는 그 불합격도 관세음보살님이 나를 돌보지 않아 그렇게 되었다고 보살님을 원망하기도 했다. 그 원망이 깊으면 관세음보살님을 다시는 부르지 않겠다고 마음 속으로 다짐도 하지만 보살님을 찾지 않으면 마음이 허전하여 노력하지 않은 자신을 참회하고 또 관세음보살님을 불렀다.

대학을 졸업하고 취직이 되지 않아 집에서 쉬게 되었다. 그때 많은 불서들을 읽었다. 그 중에서 광덕스님의 책들은 불교를 알기 쉽게 가르쳐 주어 정말 좋았다. 〈생의 의문에서 해결까지〉〈불광〉…이러한 책들은 읽고 또 읽어도 새로웠고 좋았다. 부처님 진리의 태양이 내 생명이다. 내 생명 부처님 무량공덕생명. 불자 앞에 어두움은 없다 던 스님의 말씀들은 나 자신에 대한 긍지와 위대함을 일깨워주는 듯 했다. 취직되지 않아 우울한 내가 얼마나 많은 용기와 희망을 받았는지 모른다. 나는 그때 살아가는데 있어서 부처님의 말씀이 얼마나 소중하며 삶을 맑고 밝게 해주는 것인가를 깨닫게 되었다.

이십대 중반에 결혼을 했다. 남편은 딸 많은 집의 외동 아들로 시댁은 경제적으로 무척 어려웠다. 사랑 하나만 있으면 결혼생활은 문제가 없을거라고 생각했는데 살아보니 그게 아니었다. 시부모님들이 연로하셔서 모시고 살았는데 시집생활이 쉽지 않았다. 자라온 환경과는 다른 시댁의 분위기나 가풍에 적응되지 않아 무척 괴로웠다. 그리고 아들이 귀한 집안이라 시부모님들의 남아선호사상이 깊어 아들을 꼭 낳아야 한다는 부담에서도 벗어날 수가 없었다. 마음이 울적하고 외로우면 집 근처에 있는 연화사를 다녔고 관세음보살님을 더욱더 열심히 불렀다. 첫 딸을 낳고 어려운 살림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자 보험회사를 다녔다. 하루종일 보험을 팔고 지친 몸을 이끌고 돌아오면 나는 부처님의 말씀이 담긴 불서를 읽고 그날 쌓인 심신의 피로를 풀곤 했다. 부처님 말씀은 내 삶의 청량제였으며 활력소였다.

두번째 임신을 했을 때 첫째가 딸이니 두번째는 꼭 아들이면 싶었다. 연로하신 부모님들은 손자를 무척이나 바라셨고 어려운 가정형편에 아들 낳으려고 자꾸 출산할 수도 없었기에 이번엔 꼭 아들이었으면 싶었다. 그러나 또 딸이었다.

세월이 흘러도 어려운 형편은 나아지지 않았고 시부모님과의 동거에서 야기되는 갈등도 괴로웠다. 남편은 영업직이 적성에 맞지 않는지 힘들어했고 수입은 늘 부족해 생계는 힘들었다. 나는 현실이 답답할수록 더욱더 연화사 법당을 찾아 부처님에게 많은 부탁을 하였다. 부처님 세번째 아기는 꼭 아들을 낳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우리 남편이 좋은 곳에 취직되게 해 주십시오. 우리집에 부자되게 해주십시오.

돈이 부족해 불전에 보시도 하지 못한채 부처님에게 어떻게 해달라고 요구만 하는 염치없는 불자였다. 자꾸만 무엇을 해달라는 기복신앙 밖에 갖지 못했지만 부처님을 찾고 부처님에게 모든 것을 의지한다는 것은 정말 마음 든든한 일이었다.

작은 딸을 업고 또 보험회사를 다녔다. 누군가가 전자제품을 판매하는게 보험보다 쉽다고 해 전자제품도 팔러 다녔다. 세번째 임신을 하게 됐을 때 또 딸을 낳을까봐 무척 두려웠다. 아기를 업고 임신한 몸으로 무엇을 팔러 다니는 것은 무척 힘들었다. 그러나 나는 어렸을 때부터 관세음보살 정근을 해 언제나 부처님께서 도와주실거라는 묘한 믿음이 있었기에 그 힘든 일들을 이겨 낼 수 있었다. 일흔이 훨씬 넘으신 시아버지께서 죽기 전에 손자를 보아야 한다고 말씀하실 때에는 내 가슴마저 철렁했다. 나는 현실이 힘들면 힘들수록 더욱더 관세음보살님을 불렀고 의지했다. 그 덕분인지 세번째 아이는 기다리던 아들이었다. 시부모님의 기쁨도 대단했지만 나도 모처럼 마음이 활짝 폈다. 그러나 원하는 아들을 낳았다고 달라진 것 없었다. 오히려 많은 식구의 생계는 더욱더 힘들었다.

그즈음 남편은 원하는 직장을 찾고 싶다며 다니던 영업직을 그만두고 말았다. 수입이 대단하진 않았지만 남편의 실직은 내게 충격이었고 큰 걱정거리였다.

그러던 어느날 우리집에 우유를 배달해 주는 우유 아주머니가 오후에 우유수금을 나오시더니 자기가 믿는 종교에 대해 이야기 해주었다. 자기가 믿는 종교는 대순진리교라 하였고 외래종교와는 달리 교주가 우리나라 사람인 민족종교라고 하였다. 처음 들어보는 신흥종교라 거부반응을 보였더니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종교며 불교 비슷한 종교라고 하였다. 나는 미륵부처님을 모시는 종교라고 하니 미륵부처님도 부처님과 같으신 분이라 그 종교에 대한 경계심이 누그러졌다. 그 아주머니가 선천세계가 어떠하며 후천세계가 어떠하다고 얘기했는데 나는 세상이 이렇게 혼탁하고 한계에 도달한 것 같아 이것이 선천세계이고, 이 세계가 끝나고 새롭고 깨끗하게 다시 시작되는 그 세계가 후천세계라고 여겨졌다. 내가 생각해도 이 세상은 한계점에 도달한 것 같았다. 지구 곳곳에서 벌어지는 전쟁, 기아, 환경파괴, 도덕상실, 각종 범죄들 그리고 지도력을 상실해버린 종교들. 이젠 그 누구도 이렇게 혼탁해진 세상을 해결할 것 같지는 않았다. 그런데 미륵부처님께서 새로운 세계를 말씀하시다니, 나는 문득 이 미륵부처님에 관해 알고 싶어졌다. 어쩌면 이 종교에서는 내가 불교에서 배우지 못한 것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아주머니에게 교리책을 얻어 읽어보았다. 저자가 유명대학 명예교수라 더 신뢰감이 갔다. 이 책을 읽고 보니 교주가 진짜 미륵부처님일지도 모른다고 여겨졌다. 이 우주에서 부처님이 최고이고 부처님 말씀이 전부인줄 알았는데 이렇게 혼탁한 세상을 정리해주신 부처님보다 위대한 분이 계시다니, 나는 그만 부처님에 대한 신뢰가 떨어졌다. 내 고단한 삶의 의지였던 부처님에 대한 믿음을 잃고 나니 무척 괴로웠다. 기복이었을 망정 부처님은 언제나 내 삶의 든든한 의지처였고 어려운 현실 속에서도 희망이었는데 마음의 지주를 잃은 내 마음은 황량하기만 했다.

그러나 위대하다고 생각은 들었지만 대순진리교의 미륵부처님이 진정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나는 이런 저런 상실감 때문에 불면증에 우울증까지 겹쳐 정신병원 입원까지 했다. 지금 생각하면 부처님을 너무 기복적으로 믿은 내 신앙에 문제가 있었다. 나는 부처님 말씀만으로도 행복했던 지난날을 참으로 그리워했다. 그리고 대순진리교에 한때나마 혹한 것을 얼마나 후회했는지 모른다. 나는 지금 다시 연화사를 다니며 내 지난날을 참회한다. 다시 부처님 품으로 돌아와 기복이 아닌 진정한 부처님 말씀을 공부하며 내 자신을 다스리고 있다.

권은주(경남 진주시 옥봉동)



작은키 포기 하지마세요

〈성·장·발·육!〉
성장기에 필요한 필수영양소의 적당한 운동이 중요합니다

키가 쑥쑥! 1m80 롱다리 시대!

키가 유전이라고요?
영양 31% 유전 23%
운동 20% 환경 6% 기타 20%

서울 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는 동·식물 자원으로부터 천연약물, 정료 등 유용한 물질을 개발하기 위하여 1993년 정성제국대학부설 生藥연구소로 우리나라에서 가장 오래된 연구소입니다 키돌이는 바로 이렇게 축적된 노하우에서 탄생한 결정체입니다

연구개발 서울대학교 천연물 과학연구소

엄마가 낳은 작은키 키돌이가 키웁니다. 제조원 (株) 開豊洋行 판매원 키돌이 성장원

許可番號 : 京畿 利川 衛 第13號

Ca



키돌이 성장원
KEYDORI SUNGJANGWON

대리점 모집
(02)563-1533

* 본보 6월 14일자 게재된 소비자 상담 전화번호가 이래 전화번호의 오기이옵기에 정정합니다

제품구입 : 소비자상담(무료전화) 080-011-8677

신간!

휴대폰만큼 작게!
그러나 깨달음의 울림은 크게 담았습니다.

작지만 그 안의 깨침은 위대합니다.



민족사 작은경전 시리즈

①법구경 석지현 스님 역/값 3,300원/
②아함경 돈연 스님 역/값 3,800원/
③화엄경 김지견 박사 역/값 3,800원/
⑤유마경 박용길 역/값 3,500원/

작은경전 시리즈 ④묘법연화경 ⑥능엄경 ⑦부모은중경·지장경 ⑧금강경 ⑨백유경 ⑩대반열반경 ⑪숫타니파타 ⑫본생경 ⑬미륵경전 ⑭과거현재인과경 ⑮밀린다왕문경도 계속 간행됩니다.

*** 사랑하는 이들에게 영원한 부처님 말씀을 전하세요. ****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

"낮선 포교당에서 알아나는 울고웃는 사람들의 이야기"

신간

원옥스님의 포교당일기

"나[redacted]."



"저… 정말로 스님이 맞아요?"
"그래, 내가 스님이란다! 왜 스님을 처음 보니?"
"예, 저는 옛날 이야기 속에서만 나오는 줄 알았어요."
마냥 신기해하는 눈빛의 아이,
스님과 부처님을 모르다니……! 이런 기가 막혔다.

"세상엔 좋은 것이 참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나는 사람이 제일 좋습니다.
만나는 사람들이 너무 신기하고 아름다워서 아름이며, 나이, 생김새,
마음씨 숨음에 기쁨……
그들의 이야기, 너의 잃은 이야기를 소금씩 적어 놓았지요."

신국판 280쪽/값 7,500원

원옥스님은 20년 전 출가하여 중앙승가대학과 동학사 강원을 졸업하고 지금은 강남 함양 안의 포교당에서 주변 사람들과 따뜻한 마음을 나누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민족사 전화 02)732-2403~4 팩스 02)739-7565